
III. 심층 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정책과 현황

- 1. 북한 경제의 개방 · 개혁 정책과 실제**
- 2. 북한 경제의 변화**

1. 북한 경제의 개혁 · 개방 정책과 실제

〈 1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전략: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전략

〈 2 〉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 3 〉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

〈 4 〉 북한 개혁 · 개방 추진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

< 1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전략: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전략

□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전략과 발전 방안 제시
 - 기존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대신해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하고 조선노동당은 이를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확정
 -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이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 사업을 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것”임(김정은, 『로동신문』, 2018.4.21.)
 - 본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인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국가 자원을 경제 발전에 우선 투입하여 경제 전반의 재정비와 경제 활성화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
 - 국방공업 분야에서도 경제발전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강조됨
 - 과학기술 발전은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사회 전(全)부문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써 선차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로 제시됨
-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목표는 자강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지식 경제로 전환 · 발전시켜 선진 경제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하는 것임
 - 세계경제발전 추세에 맞게 경제 구조를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갖춰 생산과정의 자기완결성이 높은 자립경제 실현 지향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에서 혁신을 이루고, 국산화를 통해 자강력을 확보하고자 함
-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략적 방침으로서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통한 지식 경제의 구현
 - 현대화와 정보화 실현의 전략적 목표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한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를 본보기 단위로 하여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임
 - 이러한 중장기적 산업혁신을 통해 경제의 모든 부문을 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특히 첨단과학기술 부문을 우선 발전시켜 전체 산업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나가고자 함

- 국산화를 통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 경제발전을 추동할 선행 부문 및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자국의 원료와 연료에 기반한 생산 공정을 확립해야 함
 - 생산의 기반이 되는 설비 부문에서도 선진기술을 수용하되 자체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첨단 설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함
 -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및 농업 분야에서도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함
-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2019년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에 반영되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으로 공식화
 - 개정 헌법에서는 인민경제의 정보화가 추가되었으며(<제26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제27조>)으로 경제건설을 지향할 것임을 밝힘

□ 과학기술중시노선

- 북한은 역사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의 강화 제시
 - 과학기술은 경제와 군사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북한 또한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해 왔음
 -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제시하고 1998년부터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주로 체제생존을 위한 국방산업 중심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짐
-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은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로서 인민생활 전반을 향상시킬 핵심 추동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됨
 -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강조
 - 전략적·핵심적 부문이며 경제성이 높은 중요 과학기술과제를 선정하고,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역량과 자금을 집중하고 있음
-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 수준으로 올라선 나라이자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임
 - 과학기술지식을 경제사회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여,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경제-과학기술의 일체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 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간 기술 불균형을 조정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함
- ※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수준에 올라간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쳐져 있다.” 고 언급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의 부문 간 기술 불균형은 북한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로동신문」 2016.5.8.)
- 김정은 시대의 제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은 경제발전의 중추적 수단으로 과학기술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김정은 시대에 추진된 제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은 현재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과제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경제 주요 부문에서 과학기술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첨단산업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 집약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선행 분야 및 인민생활과 밀접한 경공업 및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함

〈 2 〉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① 개혁정책

□ 김정은 시대 개혁정책: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김정은이 직접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언급
 -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완성하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일반화해야”(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 지난 기간 경제관리방법은 국가중심의 기업운영방법으로 기업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생산 활동에 수동적 역할 수행
- 당의 결정과 김정은 담화를 통해 경제개혁 공식화
 -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는 신년사에서 언급된 경제개혁을 ‘당의 결정’으로 명시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우리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 완성해야 한다”(『조선중앙통신』, 2013.3.31.)
 -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이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개혁 공식화

-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담화포함)는 곧 법이고 명령이며, 2014년 김정은 명령(담화) 이후 경제개혁 기업에 도입
- 김정은은 담화에서 기업의 경제적 실리 보장, 기업책임관리에 의한 기업 관리방법, 노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소개

<표 Ⅲ-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의 정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이지만,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자율적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 방법
기업에 부여된 권한	계획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등
직장, 작업반, 분조 내에서 개인 담당 책임제	기계설비, 토지, 시설물 등 국가 및 협동소유의 재산을 관리 이용하면서 개인별로 과제 수행
노동의 평가 및 분배	일한만큼, 번 것만큼 분배(인센티브제 도입)

자료: 저자 작성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업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제’로, 농업부문에는 ‘포전담당책임제’로 명명(命名)되어 도입

○ 김정은은 경제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 항시 주문

<표 Ⅲ-2> 신년사에서 강조된 개혁관련 내용

구 분	신년사 내용
2014년	“기업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은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다해야” (『로동신문』, 2014.1.2.)
2015년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각급 당 조직들은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로동신문』, 2015.1.2.)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 적극 조직 전개해야” (『로동신문』, 2016.1.2.)
2018년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에서 실시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로동신문』, 2018.1.2.)
2019년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을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로동신문』, 2019.1.2.)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혁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업개혁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주요 내용 법제화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기업에 계획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인력개발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판매권, 품질관리권,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 무역 및 합영합작권 부여(『기업소법』, 2014년, 2015년 개정)

“국가적 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어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 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인민경제계획법』, 2015년 개정, 13조.)

○ 농업개혁인 포전담당책임제 주요 내용 법제화

- 포전담당책임제: 개별 농민이 생산과 분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한편, 현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작물생산 허용
 -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 수행, 수매 계획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 있게 하며 알곡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농장법』, 2014년 개정, 22조.)
 - “농장은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 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 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 수 있다.”(『농장법』, 2014년 개정, 23조.)

○ 개혁정책 헌법에 명문화

-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개혁정책의 국가경제관리방법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명기
- 북한은 기존의 국가경제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업지도체계’를 삭제하고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수정
 -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업지도체계는 생산단위들의 경영활동이 당위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지도관리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 중심의 경제관리방식
- 반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과 협동농장을 비롯한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이 생산주체에 의해 진행되는 경제관리 운영방식임

- 대안의 사업체계 =기업관리 운영체계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김일성 주석이 1962년 11월 9일 대안전기공장 당 위원회 확대회의 연설을 통해 제시한 공업관리 운영방식
 - 기업경영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위(중앙)에 의한 아래(기업)의 지도와 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음
- 농업지도체계 = 농업관리 운영체계 => 분조관리제 하에서 포전담당책임제
 - 상급기관(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지도관리에 의한 농업 경영 체계
- ※ 북한 농장법에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근거가 마련됨

□ 문헌 통한 개혁 담론의 확대

- 기업에 부여된 실제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조성의 중요성 강조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경영권은 국가가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표만 계획화하고 그 밖의 지표에 대해서는 주문계약, 또는 자체로 결심하여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확대된 경영권이다. 기업이 확대된 경영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경제연구』, 2019. 2호.)
- 기업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 이윤, 인센티브 등 설정 강조
 -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로동신문』, 2019.1.1.)
- 경제효율성과 원활한 기업경영 가능토록 제도 개선 강조
 -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로동신문』, 2019.1.1.)

② 개혁 현황

□ 기업개혁: 기업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 계획과 생산과 관련한 권한의 확대로 기업 간 경쟁과 상표 및 브랜드 등장
 -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북한 기업들은 국가에서 정해진 제품(지표별 계획 할당)을 정해진 수량만큼 생산하여 자재유통기관 및 상업유통기관에 계약에 따라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표나 브랜드 사실상 불필요
 - 그러나 개혁으로 기업이 자체생산지표를 계획할 수 있어 동일제품 생산기업

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판매경쟁을 유발

- 그림에서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기업 능력에 따라 새로운 생산공정 설치 가능
- 이러한 경쟁으로 기업들은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하면서 상표와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 유명 브랜드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 그리고 ‘대동강맥주’, 핸드폰으로는 ‘아리랑’, 길동무, 디지털 TV브랜드 ‘소백수’ 등이 있음

○ 기업 간 판매 경쟁 발생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신제품 홍보 강조

- 개혁 이전 북한 기업들은 내각 산하 연구소에서 일률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국가가 계획하고 생산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음
 - 기업은 기술과, 기술발전과, 기술준비실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 부서는 품질 제고와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기술 혁신에 초점
- 그러나 개혁이후 기업은 판매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중요성 부여
 - “실례로 A구두공장과 B구두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중에서 A구두공장의 신발이 더 잘 팔린다고 하면 이때 B구두공장은 왜 자기 공장의 신발이 잘 팔리지 않는가를 분석, 원인을 연구하여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 판매량을 늘리고 실리를 보장한다”(『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18, 4호.)
- 신제품개발을 통해 2018년 60개 단위에서 300개가 넘는 상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로동신문』, 2019.2.2.)
 - 개혁이전 북한은 경공업부문에서 간장, 된장, 식용유, 술, 맥주, 사탕, 과자와 같은 식료품과 몇가지의 의류, 206종의 일용잡화, 55종의 건재용품 정도만 계획하고 생산
 - 2월2일 제품은 1981년 2월 2일 김일성주석이 전국품질감독일꾼대회에서 품질감독개선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등장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해마다 ‘2월 2일 제품’ 등록 추진
- 개발제품 홍보를 위한 신발, 옷, 식료품 등 각종 품목별 전시회 개최
 - 2019년 봄철 전국 신발전시회에는 원산신발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한덕수 경공업종합대학 등 60개가 넘는 단위가 참석하여 1,100종이 넘는 11만 3,500건의 신발 전시(『로동신문』, 2019.3.21.)
 - 17차전국조선옷전시회에는 전국의 교원, 연구사, 창작가, 기술자, 기능공, 학생, 가정주부들이 만든 700여점의 남녀 조선옷, 결혼식옷, 어린이옷과 70여점의 갓신(가죽으로 만든 신)류가 출품(『로동신문』, 2019.9.5.)

<사진 III-1> 북한의 봄철과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



봄철철전국신발전시회-2019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19

자료: 『로동신문』, 2019.3.21., 2019.10.19.

□ 농업개혁: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 개별 농민이 생산과 분배의 기본단위로 등장

- 북한의 협동농장은 원래 10~15명으로 구성된 분조단위별로 분조가 담당한 농지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했으며, 생산결과에 대해서는 분조단위로 평가하고 분배
 - 분조농사에서는 분조원 모두의 농산노동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돼지, 오리, 양 등 개인축산을 장려하지 않음
- 개혁을 통해 분조를 2~4명으로 대폭 축소한 후 분조내에서 농지(포전)를 개별적으로 할당하고 생산활동 수행, 농민 개인으로 평가하고 분배
 - 개별 농사에서는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거름)와 고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축산이 장려됨
 -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9.1.1.)
- 이로부터 담당 농지에서 다수확을 이뤄낸 농민 증가, 이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 “농업부문에서 알곡 증산을 위하여...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로동신문』, 2019.1.1.)
 - “대흥단군 창평농장 제5작업반 2분조 농장원은 담당한 감자밭에서 해마다 정보당 50톤 이상의 수확고를 기록하였다. 올해에는 정보당 70톤 이상의 감자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동신문』, 2018.12.25.)

○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시켜 개별농민 성과가 결국에는 분조, 작업반, 농장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

- 개혁 초기 분조에서는 지력이나 농사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농경지를 분담한 것으로 하여 좋은 조건의 포전에서는 많은 수확을, 그렇지 않은 포전에서는 적은 수확

- 이 나게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포전을 순환하자는 의견 제기(북한이탈주민 증언)
- 농사조건, 지력에 따라 농경지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각 농민에게 골고루 차례지도록 분담
 - 이 작업반에서는 포전들을 지력과 농사조건 등에 따라 상, 중, 하로 갈랐다. 그리고 분조들에 포전들을 골고루 분담하였다. 결과 분조들의 포전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분산되었다. 분조들에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포전 분담을 이런 방법으로 하였다. … 한 지역의 포전을 담당하게 하던 방법에서 벗어난 것”(『로동신문』, 2019.1.20.)
 - 농장원들이 꼭 같은 농사조건에서 모든 영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포전분담안을 다시 세웠다. 즉 토지를 4부류로 나누고 분조원들에게 매 포전을 골고루 분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포전담당자들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영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 차이로 잘 하지 않던 농장원들이 다 수확 결심 가지고 열심히 참가”(『로동신문』, 2019.1.27.)
- 농장원 담당제와 병행하여 분조내 소규모의 팀을 구성하는 등 생산성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 도입
 - 별방지대이면서 농장원당 차례지는 논 면적이 많고 기계화포전으로 되어 있는 농장들에서 기술수준이 낮고 일손이 느린 농장원이 담당할 포전의 수 확고한 한심하였다. 농장원의 성별, 나이, 건강,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를 구성하였다.”(『로동신문』, 2019.4.8.)

○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버리고 개별 농민의 성과에 따라 분배

-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국가적인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옹계 타산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합니다.”(김정은,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 2014.)
- “일꾼들은 연초에 농장원들과 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 가을에 현금분배를 농장원별 가동일수와 노력공수, 공동노동참가정형, 알곡 수매량 등을 계산하여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정확히 하였다. … 몇해 먹을 쌀이 차례지는 가정들이 늘어나 농장원들의 생산열의가 고조되었다”(『로동신문』, 2019.4.8.)
- 김정은, 신년사에서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라고 언급(『로동신문』, 2019.1.1.)

□ 금융개혁: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 김정은의 서한을 통해 상업은행 설립 공식화

- 2015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군대회에 “재정은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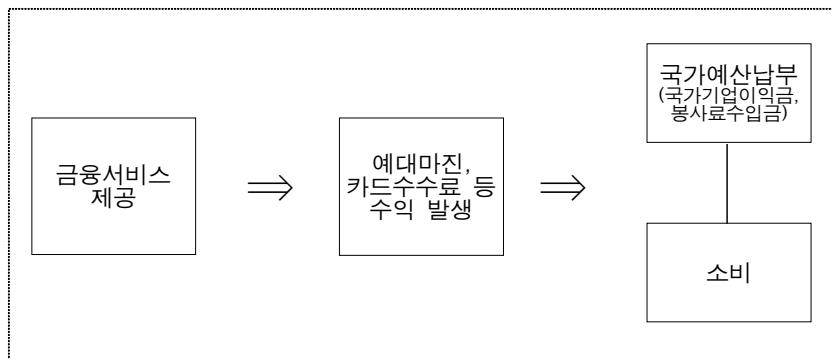
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에서 상업은행 설립이 공식화됨

- 북한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분리를 시도하였지만, 약 10년 만에 현실화

○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문헌을 통해 상업은행의 역할, 운영방식, 업무 등 구체화

- 과거 북한 중앙은행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화폐유통, 자금수요 보장, 자금이용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상업은행은 지역의 화폐유통, 지역의 자금수요 보장, 지역주민의 유휴화폐자금 동원,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이용에 대한 통제 등의 역할 수행
- 은행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 원래 북한의 은행은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국가예산에서 받아 쓰는 예산제 방식 적용
 -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상업은행에 관한 사상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금융기관 채산제에 관한 사상이론이다. … 금융기관채산제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 방식, 다시말해 금융업무과정에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업무과정에 제기되는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이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제도이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8, 1호.)

<그림 Ⅲ-1> 북한 상업은행 운영방식



자료: 저자 작성

- 상업은행은 예금업무, 대출업무 등 중앙은행에서 이관된 업무와 카드발급과 같은 신규업무 수행

<표 Ⅲ-3> 북한 상업은행의 업무

주요업무	세부내용	비고
예금	• 거래자(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의 예금	과거 중앙은행 업무 이관
대부	• 담보, 보증 • 거래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부	
채권발행 및 팔고사기	• 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확보(해당기관 승인 필요) • 유통 중의 각종 채권 매매	
귀금속의 거래	• 귀금속의 수매, 보관	
고정재산의 등록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 •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등록	
국고업무 대리	• 국가예산자금 지출 및 국가예산납부금의 중앙은행 납부	
환전	• 기준 환율과 변동 폭 범위에서 자체실정 고려	과거 무역은행 등 외환 전문 은행 업무 이관
계좌개설	• 타 은행계좌 보유자는 계좌개설 제한	개인대상은 신규
대금결제	• 이체로만 가능	
화폐 팔고사기	• 중앙은행과 원화와 외화 교환	신규업무
카드발급	• 개인대상 원화카드 발급	
대외결제	• 승인된 상업은행에 한함	

자료: 저자 작성

- 2015년 이후 중앙은행 지점에서 분리된 함경북도은행, 자강도은행 등이 새롭게 등장했으나 이들 은행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
 -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전국에 점포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시중은행(市中銀行),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인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으로 구분
 - 북한이 지방 상업은행을 설립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상업은행 설립자금 부족, 김정은 집권이후 경제관리의 지방 분권화와 관련
 - 현재 함경북도 은행, 양강도 은행, 평안남도 은행 등 각 도별 상업은행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짐(북한이탈주민 증언)
- 카드발행을 통한 결제수단 다양화와 기업의 개인 유희 화폐자금의 이용 허용
 - 무역은행 ‘나레카드’, 고려은행 ‘고려카드’, 대성은행 ‘금길카드’,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내화 카드인 ‘전성카드’ 그리고 한국의 백화점카드와 유사한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발생한 ‘광복지구상업중심카드’ 등이 있음

- 최근 설립된 지방 상업은행은 외화와 내화 카드 모두 발행할 수 있어 북한 내 전자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카드이용 확대
 - 2015년 7월 상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카드발급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이 무렵 상업은행이 설립됨
- 북한은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개인의 유희 화폐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 이로부터 기업의 암묵적인 사금융 활용이 증가

□ 개혁인재 양성: 대학, 학부, 학과 신설

- 평양관광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구 설립을 위해 각 도 사범대학에 관광학부를 신설하고 관광전문가 양성
- 경제개발 인재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국제경제학과, 인민경제대학에 개발학과 신설
 -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국가경제관리학부를 신설하고 경제법률학과, 경제법제정학과를 내왔으며, 관광경제학과, 보험학과, 가격학과도 신설
 - 국가소유·국가경영인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기업간 분쟁,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문제 등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이론’만 교육
 - 특히 김정은 정권들어 기업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해 MBA 과정을 신설하고 마케팅 전략, 세무 등도 교육

< 3 >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

① 개방정책

□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창설

- 김정은이 개방관련 정책 직접 언급
 -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대외개방을 위한 무역, 합영·합작, 경제개발구 창설 등 제시
 - “여러가지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고 합영,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4.1.)
 - 합영·합작은 FDI와 더불어 투자유치 방식, 북한은 개혁정책을 통해 모든 기

- 관, 기업소, 단체에 해외기업 및 개인과의 합영·합작 권한 부여
- 무역과 합영·합작은 선대정권에서 추진하던 지속적인 정책이며, 경제개발구 식 특구개발은 김정은 시대 새롭게 제시된 개방 정책

○ 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목적

- 경제개발구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관리주체에 따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부문별로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구로 구분
 - 특수경제지대란 ‘경제활동질서가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설정된 지역’으로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과 질서를 토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지역 의미
 - 특수경제지대는 1991년 12월에 설정된 나선 경제무역지대(당시 명칭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특구와 2013년 5월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 기초하여 지정된 경제개발구로 구성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재 어느 정도 운용되고 있는 특수경제지대는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불과
- 경제개발구는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국내경제 발전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확산 효과를 통해 전 국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
 -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세계적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해야”(『경제연구』, 2015년, 2호)

○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

- 각 도 노동당 간부들로 구성된 ‘친선참관단’이 중관춘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등 중국 발전 현황 참관(『연합뉴스』, 2018.5.15.)
 - 중관춘과학원은 중국 최고, 최대의 자연과학 학술기관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 지역에 위치
-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를 평양서 개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 전수
 -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되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건설과 관련된 사진 126장 전시(중국『신화통신』, 2019.8.7.)
-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선진경제특구 성공사례 연구 강조
 -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제특구의 창설과 운영 경험,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 운영 경험 분석할 필요”(『경제연구』, 2015년, 2호.)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강원도 원산과 금강산 지구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구와 동해 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6.12.)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원산지구(원산시, 안변군), 마식령스키장지구(원산시, 법동군), 울림폭포지구(문천시, 천내군), 석왕사지구(고산군), 통천지구(통천군), 금강산지구(고성군, 금강군)로 구성
-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강조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5.1.1.)
 -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8.1.1.)

□ 외자유치를 위한 법률적 조건 마련

-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 10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

<표 III-4> 주요 개정법안

구 분	제정 연도	개정	
		김정은 집권 전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경제중재법	1999.7	1회	1회(2014.7)
무역법	1997.12	4회	2회(2012.4, 2015.12)
세관법	1983.10	10회	1회(2012.4)
합작법	1992.10	6회	2회(2011.12, 2014.10)
합영법	1984.9	7회	2회(2011.12, 2014.10)
외국인기업법	1992.10	5회	1회(2011.12)
토지임대법	1993.10	2회	1회(2011.12)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2008.10	-	1회(2011.12)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2005.10	1회	1회(2011.12)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2009.1	-	2회(2011.12, 2015.8)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1	5회	2회(2011.12, 2015.9)
외국투자기업등록법	2006.1	1회	1회(2011.12)
외국투자은행법	1993.11	2회	1회(2011.12)

자료: 저자 작성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발구법(2013.5.)을 비롯해 종합무역장관리법(2014.12),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2015.10.) 등 제정
-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개방 관련 내용 수정
 - 2016년까지 대외무역만 명시했으나, ‘대외경제관계’로 수정하면서 대외경제의 양대 축인 대외무역과 투자의 병행 추진 명기

〈표 III -5〉 2019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대외경제 부문

구 분	2016년 사회주의 헌법	2019년 사회주의 헌법
제36조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u>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u>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u>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u>

자료: 저자 작성

② 개방 현황

□ 특수경제지대, 점에서 선으로 확대

- 2013년 11월부터 지정된 경제개발구는 북한 전역에 걸쳐 22개, 현재 총 28개의 특수경제지대 존재
- 군사적 지형 변화까지 감수한 경제개발구 선정
 - 남포와 강령에 지정한 경제개발구의 경우 인근에 군부대 위치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진도수출가공구는 서해함대사령부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
 -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연평도와 마주한 최전방지역으로 근거리 해군 8천 대와 해안포 부대 주둔
- 경제효과 및 성공가능성을 고려한 경제개발구 지정
 - 역대 지도자들은 경제특구를 체제안정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면, 김정은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경제개발구 지정
 - 은정첨단과학기술구와 강남경제개발구는 평양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로 수도 평양에 대한 위협도 고려한 경제개발 사업

<그림 III -2>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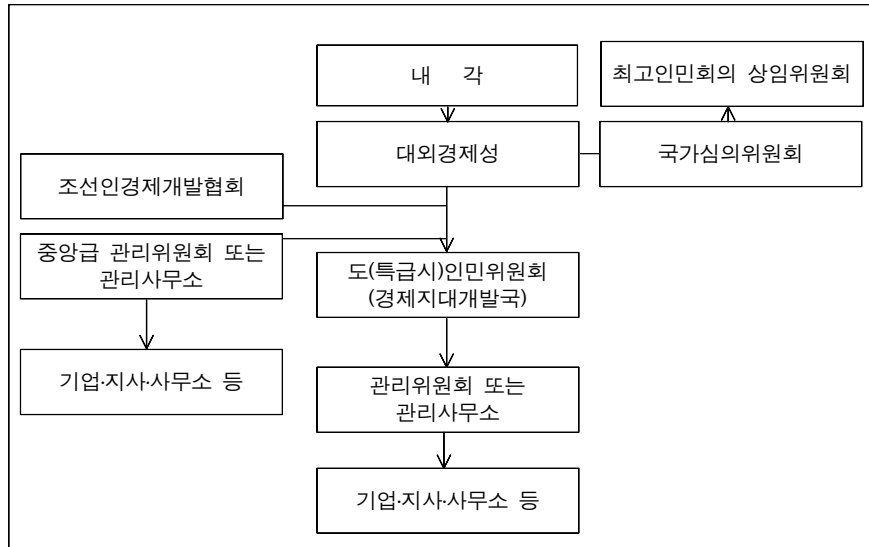


자료: 차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 특수경제지대 관리 조직 정비

- 경제개발구법을 토대로 중앙에서 각 도에 이르는 기구체계 정비
 - 2013년 10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경제개발구를 관리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중앙기관 설립
 - 경제개발총국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10개년전략계획이 발표되면서 설립
 - 2014년 6월, 대외무역을 관장하던 무역성과 투자를 관장하던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외경제 전체를 관장하는 대외경제성으로 확대
 - 지방급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으로 각 도 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 신설
-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북한 사상 최초의 민간급 경제조직인 조선경제개발협회 신설(『조선중앙통신』, 2013.10.16.)
 - 조선경제개발협회는 북한의 특별경제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기업들과 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설립된 비정부기구
 - 기업 활동 지원, 정보제공, 잠재적인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정부의 투자유치 활동 보완

<그림 Ⅲ-3> 특수경제지대 운영 조직도



자료: 저자작성

□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금우대, 신변안전보장 제시

○ 기업소득세 및 관세 우대

-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은 10%로 개성공업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부과된 세율과 동일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소해주거나 면제,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개발기업의 재산에는 재산세 면제(55조), 이는 여타 경제특구보다 좋은 조건
 -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경제개발구에는 특혜관세제도 도입
 - “건설용물자,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경제개발구법』, 2013년, 56조.)

○ 신변안전을 위한 내용 명시

- 법 규정을 통해 북한 관광객과 기업인들의 북한 체류시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
 - “북한의 법에 따라 보호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법』, 2013년, 8조.)

□ 특수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자의 안전한 자금회수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서 BOT방식 도입

- 2013년 ‘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에서 ‘특별허가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BOT방식을 체계적으로 반영
 - BOT투자방식은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 기간 운영(Operate)한 뒤 일정 운영기간이 종료하면 정부에 그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는 방식
- ※ 특별허가경영은 기업이 특별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상에 대한 건설(Build)을 진행하고 경영(Operate)하는 것으로 규정(『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 2013년, 2조.)
- ※ 특별허가경영계약에는 경영기간, 투자방식, 투자회수방식,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경영기간 종료후 대상 이전방식과 절차(Transfer) 등을 규정(『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 2013년, 27조.)
- 2015년 2월에는 대외경제성이 BOT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세칙을 완비 중이라고 발표
 - 대외경제성 이순학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OT(민간건설·운영·인도)방식 등 여러 투자방식도 우리나라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규정·세칙들도 완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조선중앙통신』, 2015.2.2.)
- 문헌 등을 통해 BOT방식 이용 강조
 -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옹계 이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해야“ (『사회과학원 학보』, 2013년)
- 2016년 원산시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서에 희망 투자유치액으로 2,100억을 제시하며 BOT방식의 개발 추진을 제시

○ 홍보 책자 발간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

- “금강산개발과 관련한 투자개발 설명문”(중문, 영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개발 실태와 전망”(영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정책과 전망계획”(중문, 영문, 국가관광총국) 등의 자료를 만들어 중국을 통해 홍보
- 2017년에는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책자 발간
 - 북한의 자연 경제적 조건, 경제발전 과정, 주요 경제정책,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 관련 법 등을 소개
- 2018년에는 외국문출판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홍보 책자 발간,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소개 상세 수록

□ 관광지구 개발 노력

- 삼지연시 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 김정은은 2016년 11월 삼지연군 일대를 현지시찰 하면서 3~4년 내 ‘삼지연 꾸리기’ 사업 지시, 2017년 말부터 공사에 착수
 - 교양구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 현대거리구획으로 구분하여 개발
 - 김정은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삼지연군 건설은 김정일의 고향 꾸리기와 더불어 관광지로 개발
 - “혁명의 고향군을 꾸리는 사업을 단순한 건설사업으로 여기지 말고 (중략) 백두산 아래 첫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듯이 일떠 세워야 한다.”(김정은, 『로동신문』, 2018.8.19.)
 -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도록 지시하고 2018년 5월, 8월, 11월, 2019년 4월, 7월 5회에 걸쳐 현지지도
 -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건설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20년 4월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
 -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다수의 현지시찰 이후 2019년 12월 완공되어 개장
-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책자 발간 및 설명회 등 개최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발간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소개 △투자 대상별 소개 △외국인투자자 법규 목록으로 구성, ‘투자 대상별 소개’에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청사진 구체화
 - 2015년 3월 20일에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원산-금강산 개발 계획 설명회’ 개최
- 북한은 삼지연, 원산-갈마 해안, 양덕온천 등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한편 평양, 금강산, 묘향산, 개성, 남포 등 9개 관광지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관광지구 개발 확대될 것으로 전망(『중국 인민일보』, 2019.9.9.)

< 4 > 북한 개혁·개방 추진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

① 배경

□ 북한체제의 빈곤 탈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열망

- 김정은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수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경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체험했다는 것을 지도자 소양 중의 하나로 꼽았음
 - “김정은 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인생체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 아마 김정은 동지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일, [2011년 10월 8일, 12월 15일 발언], 『김정일 선집 (중보판) 2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6년, 419쪽.)
 - 이 경험이 그에게 빈곤 탈출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심어준 것으로 추정
- 김정은은 집권 후 첫 대중연설(2012년 4월 15일)에서 빈곤극복과 부강국가 실현을 공언했으며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반복
 - “우리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로동신문』, 2012.4.16.)
 -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 을 “맹약” (『로동신문』, 2017.1.1.)

□ 고도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

- 김정은은 북한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과 외부의 선진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능가하는 경제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② 역사적 계기

□ 핵무력 완성 선언

-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선언(2017.11.29.)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재래식 군비경쟁 구도에서 벗어남으로써 국방비 경감을 통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

2. 북한 경제의 변화

〈 1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 2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이유

< 1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① 건설경기 활성화

□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추진

○ 평양은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 '려명거리'를 연이어 건설하여 35~55층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사진 III-2>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



자료: 『로동신문』, 2016.5.23.



자료: 『서광』, 2018.

○ 건설경기는 평양뿐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에도 나타나고 있음

- 신의주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현지지도를 통해 신의주시 건설 총 계획도와 도시건설 전망 모형 등을 검토하며 '신의주시를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며 개발 사업을 독려함(『로동신문』, 2018.11.16.)

<사진 III-3> 신의주 26-8, 9, 10호동 살림집 건설 현장



자료: 저자 촬영, 2019.5



자료: 저자 촬영, 2019.8

- 헤산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색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관찰됨

<사진 III-4> 헤산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자료: 저자 촬영, 2018.8.



자료: 저자 촬영, 2019.8.

- 중강군 농촌지역의 경우, 살림집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지역에 새로운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사진 Ⅲ-5> 자강도 중강군의 농촌 지역의 변화



2012년 8월



2016년 8월



2019년 8월

자료: 저자 촬영

② 차량 증가

□ 교통량의 증가와 다양해진 교통수단

-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의 버스, 트럭 외에 오토바이, 택시 및 탑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현저하게 증가
 - 과거 택시영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이 대거 이용함에 따라 증가
 - 현재 고려항공에서 직영하는 택시회사를 비롯하여 대동강택시회사, 대외봉사총국 택시사업소 등 여러 택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 북한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차는 승용차로서, 중국산 화타이의 ‘루성 E70’ 과 평화자동차의 휘파람, 뼈꾸기, 삼천리, 준마 등의 모델임. 현재 평화자동차는 독자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은 중국 내 자동차 회사의 설계도면을 따라 제작하는 수준

<사진 III-6> 평양의 택시



자료: 저자 촬영, 2018.10.

- 지방 도시에도 과거보다 교통수단이 증가
 - 신흥부자(돈주)나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영업하는 택시 서비스와 미터기가 없는 ‘개인택시’ 존재(북한이탈주민 인터뷰)
 - 택시 운행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은 택시는 평양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 간 이동 가능(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사진 Ⅲ-7> 혜산시 시내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와 탑차



자료: 저자 촬영, 2019.8.

<사진 Ⅲ-8> 평안북도 산간 지역인 창성군에 정차되어 있는 승합택시와 소형 차량들



자료: 저자 촬영, 2019.8.

③ 휴대전화의 보편화

□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

- 지난 10년 동안 급증하여 2018년 58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인구의 23%) 것으로 추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추정치, 『중앙일보』, 2018.9.17.)
-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가입자 증가 속도는 조사대상국 중 1위
 - 휴대전화 가격은 100~400 달러 수준으로 북한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고가의 상품임에도 빠른 속도로 보급
- 2017년에 출시된 ‘진달래’의 경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등,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

<사진 III-9> 북한의 휴대폰



진달래 3

자료: 『조선의 오늘』, 2017.3.



평양2425

자료: 『서광』, 2019.4.

- 휴대전화는 정보통제 차원에서 인터넷 연결 대신 내부 인트라넷과 연결하여 사용

④ 소비성향의 변화: 식생활 개선

□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식료품 출시

- 불과 4~5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김치, 찌갈 등 각종 반찬까지 다양하게 상품으로 판매

<사진 III-10> 평양 제1백화점에 진열된 식품들



자료: 저자 촬영, 2019.10.



○ 식료품, 제과류 등 소비제품의 다양화 진행

- 대표적으로,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2016년 10종, 360여 가지의 제품 생산에서 2018년에는 30여 종, 690여 가지 생산으로 제품 다양화 성과 달성(『로동신문』, 2018.12.12.)

○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식당이 개장·정비되는 등 외식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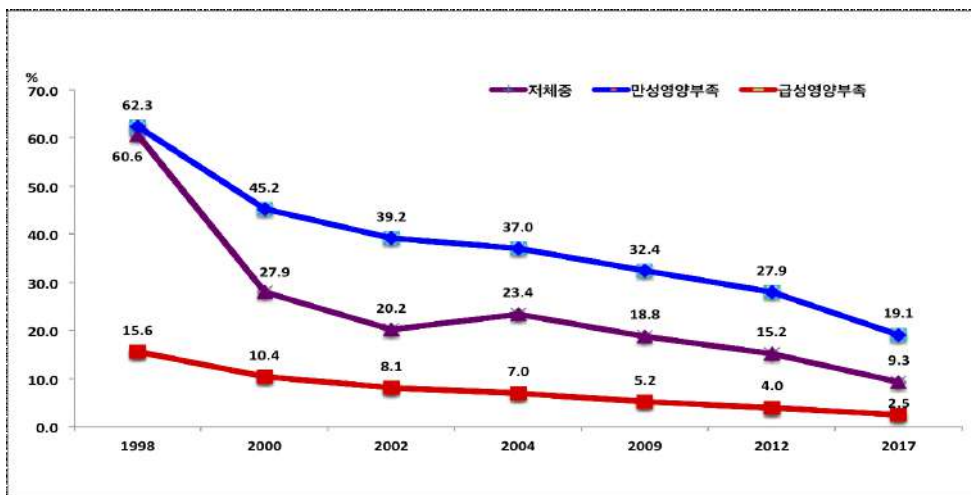
- 과거 외식은 결혼 등 특별한 ‘가족행사’에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
- 시장을 중심으로 간이 매대나 길거리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음

□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의 변화

○ 1998~2017년 기간 중, 특히 식량원조가 급감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1998~2017년 북한의 영유아 저체중 비중은 51.3%(60.6% → 9.3%), 급성영양실조 비중은 13.1%(15.6% → 2.5%)로 하락
-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만성영양실조 비중은 43.2%(62.3% → 19.1%)로 하락,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

<그림 III-4>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 변화 추이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Findings Report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UNICEF DPRK, 2018

〈 2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 이유

① 시장의 활력

□ 북한에서 시장은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확산

- 종합시장은 2003년 허용, 2010년 200여개가 개설, 2019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개 내외로 증가
- 종합시장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도 등장했고, 더욱이 2015년 이후에는 on-line(전자상거래)도 등장
 - 옥류('15), 만물상('16), 은파산('17), 앞날('18) 등 매년 새로운 전자상거래가 등장
 - 이는 △PC와 휴대전화 사용자 급증, △전자결제 카드 이용 확대 및 △오토바이 등 배달 서비스의 확대를 기반으로 가능
 - 북한 내 전자결제 카드는 은행거래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각종 시설 이용, 주유, 통행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 최근에는 시외버스 택배와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활용한 물건 배송 증가
-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도 형성되고 있음
 - 민간자본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 분양, 매매하는 경향이 확대
 - 식당, 상점, 소규모 공장, 소규모 탄광 등을 사실상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노동자를 직접 고용

□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생산 확대 및 시장경제 개혁을 촉진

- 2002년 7.1조치 이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원자재의 시장 구입 및 생산 제품의 시장 판매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 거래는 생산의 증대를 촉진하는 주된 메카니즘으로 정착
- 한편 시장의 확산은 시장경제를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촉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은 확대되고 제도화되고 있음
 - 김정은 집권 이후 개혁개방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이 전체 법률 제정 및 개정의 50%를 차지
 - 2012년 이후 새로 제정된 북한 법률 31건 가운데 경제관련 법률은 15건, 새로 개정된 법률 106건 중 경제관련 법률은 49건
 - 주된 입법 방향은 (1) 기업소 및 지방에 대한 자율권 강화, (2) 시장제도의 반

영 (3)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정비 등임

② 개혁의 효과와 국산화 정책

□ 기업과 협동농장에 자율권 부여, 자체 생산계획 수립과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 허용되면서, 생산단위들 간 시장 경쟁 확대

□ 제조업 부문

○ 브랜드 경쟁 및 제품의 다양화

- 북한은 건강식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 자신의 기술과 자원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 그 중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제조가 어렵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

- 화장품은 ‘봄향기’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기초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장품이 출시

· 브랜드 경쟁: 봄향기, 은하수, 금강산, 미래 등 4가지

※ 봄향기는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 평양화장품 공장의 ‘은하수’가 현대적인 첨단 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시작 하면서, 브랜드 간 경쟁이 촉발되었고, 금강산과 미래는 신생 브랜드로서, 금강산은 금강산합작회사, 미래는 묘향천호합작회사의 브랜드임

· 제품의 다양화: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미백과 여드름 치료를 위한 기능성 제품까지 다양함

<사진 III-11> 북한의 화장품들



봄향기 화장품 세트

자료: 『서광』, 2019.8.7.



은하수 화장품 세트

자료: 『로동신문』, 2019.4.3.

○ 신제품의 빠른 증가

- 신제품은 신기술과 함께 주로 전시회, 전람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음

· 이들 행사는 ‘14년에 34건, ‘18년에 53건, ‘19년 9월 현재 38건으로 확대되는

추세(로동신문)

- 일용잡화, 가구, 스키기재, 의료기구, 건축마감재, 신발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신제품이 출품되고 있음
- 일용잡화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전국206가지일용잡화전시회’를 통해 출품

<표 Ⅲ-6> 전시 출품 현황

구 분	6차	7차	8차
연 도	2017	2018	2019
출품 종류/수	350여종 3,000여점	300여종 8,000여점	400여종 42,000여점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한 개방의 성과 제약

- 그로 인해 개혁도 일부 영역 위주로 성과를 거두는 ‘불균형 발전’을 보이고 있음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및 중화학공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단지 소규모 자본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공업, 농업, 건설 등 일부 영역에서 개혁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농업의 경우에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트랙터, 비료 등 농자재의 충분한 투입 없이 인센티브 개선만으로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건설의 경우에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평양과 기타 지역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 금융 부문

- 카드 사용 확대
 - 2010년 조선무역은행이 '나래카드'를 발행하면서 카드 사용이 본격화되었고, 나래카드를 통해 외화가 은행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자 '전성카드' 등 내화용 전자결제카드도 발행
 - 조선중앙은행의 '전성카드', 조선대성은행의 '금길카드', 황금의 삼각주은행의 '선봉카드', 고려은행의 '고려카드' 등 20여종의 카드가 유통되고 있음
 - 북한 정부는 주요기관과 상점, 백화점 등에 CD기(현금인출기)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사용을 독려함에 따라 주민들의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되었을 가능성

- 카드사용 확대로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내 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통제를 강화
 - 카드는 은행계좌를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됨
 -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카드 사용 제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거래가 은행계좌와 연동돼 공식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집중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국내 자금조달을 통한 경제건설 목표 아래 카드사용 추진, 금융사업 방법 개선 등 주요 금융정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힘(조선신보, 2015.2.3.)
 - 따라서 카드결제 확대로 △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재정 확충 △ 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에 따른 자금용 억제 및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조달 원활화 △ 내화용 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외화사용 확대 억제 등을 기대

□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장기 대북제재에 대비하여 국산화를 본격 추진

- 과거에도 자력갱생의 측면에서 국산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2013년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대북경제 제재를 봉쇄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3호)
 - 2013년 소비재 부문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원자재 및 기계설비의 국산화로 확대

□ 그 결과, 경공업의 국산화는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금속 및 화학 부문의 국산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 제품경쟁을 통한 국산화가 촉진되면서 식료품,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공장 등 여러 공장들의 자동화와 함께 LED TV, PC 등 일부 가전제품들의 수출도 모색하고 있음
 -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도 빠르게 국산화 추진
 - 현재 락원, 푸른하늘, 보통강 등 3개 브랜드의 LED TV, 곡면 TV 등이 경쟁 시판하고 있고, 일부는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음(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18 조선상품』)
 - ※ 한국의 경우, LED 곡면 TV는 2013년 개발되어 2014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되고 있음
- 운송수단 부문의 국산화 업그레이드
 - 과거 낙후된 모델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화물차, 버스, 트랙터, 전차 등을 새로 선보이고 있음
 - 화물차의 경우, 승리-58, 자주호 등이 생산되었는데, 2016년 5월 승리 자동차연합기업소가 5톤 신형 화물차를 새롭게 출시

□ 국산화의 영향

- 자체 과학기술을 토대로,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원자재 및 설비 국산화 추진, 지방공업 활성화 및 대북제재 충격 완화 등의 파급효과를 낳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디자인에 각별한 의미 부여
 - 경공업에서는 섬유류, 기계공업에서는 농기계, 수송기계 등 국산화가 용이한 부문의 국산화 추진
 - 도, 시, 군 단위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활용하여 식품 가공업 육성
 - 특히 수입대체 진척으로 대북제재 충격 완화, 그 결과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물가 안정

③ 과학기술 중시 정책

□金正은의 과학기술 정책 강화로, 일부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SW 기술 역량의 성장
 - 북한 대학생들은 2013년부터 국제 SW 경진대회 출전하여 매년 우승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상품화 능력은 부족하지만, 음성 인식과 자연 언어 처리, 번역, 패턴 인식 기술 등의 개발 영역에서는 큰 성과
 - “SW 기술은 남한 것과 거의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발달해 있고요. … ‘알파고’가 나오기 전인 2014년까지 북한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은별’은 전 세계적으로 6년 동안 1등을 했어요.” (함흥컴퓨터기술대학 교수 출신인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 CNC 기반의 공장자동화
 - CNC 및 컴퓨터 종합관리체계는 높은 정밀도와 원격 조정을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고도화
 - 2009년 이후 이들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민수경제에 적용하면서 공장 자동화 추진
 - △다양한 작업물의 가공이 가능한 CNC기계집단, △이를 연결하는 자동 작업물 운송체계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하는 중앙컴퓨터를 기반으로 일부 공장들에서 자동화 추진
 - 『로동신문』에 따르면, 통합생산관리체계를 토대로 자동화를 실현한 공장들로는 선홍식료공장, 류원신발공장, 류경김치공장, 룡악산비누공장, 룡악산샘물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만경대경홍식료공장, 대동강과일종합공장, 순천매기공장, 평양자라공장 등을 들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가속화

- ‘새 세기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축적된 SW 및 CNC 역량을 기반으로 Mobile, AI, AR/VR, 로봇 등 핵심 기술의 개발에 주력
- 최근 들어 이들 기술들로 만들어진 제품이 출시되거나 교육, 산업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음
 - 2017년에는 AR/VR을 이용한 게임 및 교육, 드론 등이 등장하고, 음성인식, 얼굴인식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폰이 판매
 - 2018년에는 AI, IoT가 장착된 초보적 형태의 스마트 홈(지능 살림집)을 선보임
 - 2019년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생육상태 평가, 평남지역의 협동농장 보급

Ⅳ. 북한 일지

1. 정치 · 군사 분야
2. 경제 · 사회 분야
3. 대외 · 대남 분야

1 정치 · 군사 분야

01.01.(화)

- 김정은 위원장, 2019년 신년사 육성 발표  이슈 분석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수행: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내각 총리) 등 당과 국가기구, 근로단체 간부

01.04.(금)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 참가 간부: 박봉주(내각 총리),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 보고: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01.06.(일)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 개최

01.07.(월)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군중대회 개최

01.09.(수)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0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1.8) 보도
- 노동신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자강도, 강원도, 라선시 군중대회의 7일과 8일 개최 보도

01.12.(토)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조직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1.11) 보도
 - 중앙선거위원회 조직: 위원장(양형섭), 부위원장(김평해), 서기장(정영국), 위원(최부일, 김영대, 김영호, 박철민,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리두성, 박명철, 려정선)

01.14.(월)

❑ 노농적위군 창건 60주년 중앙보고회 개최

- 참석자: 최룡해(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인민보안상), 김능오(평양시당위원장), 리영래(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장), 리영길(총참모장) 및 군 간부 등
- 로동신문, 창건 60기념 사설 게재(『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노농적위군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 ※ 인민자위대 → 1959년 1월 14일 노농적위대 창건 → 2010년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으로 명칭 변경

01.23.(수)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신년사 과업 관철 토의 진행

01.24.(목)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일성 사망일(7월8일)과 김정일 사망일(12월17일)을 ‘국가적인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정령 발표(로동신문, 25일자에 보도)
-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참가자: 박철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및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청년동맹 간부 등
 - 신년사 제시 과업 관철을 위한 선봉으로 청년동맹원의 역할 강조, 당에 드리는 맹세문 및 청년동맹조직과 청년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 및 결정서 채택

01.25.(금)

- ❑ ‘조선중앙년감’ 창간 7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기념보고를 통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연감을 편찬·발행할 것을 강조

01.29.(화)

❑ 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선거분구 조직 보도

02.06.(수)

- ❑ 북한군 창건 71주년을 맞이해 인민무력성에서 북한 주재 무관단을 위해 연회 개최
 - 참가자: 노광철(인민무력상), 리두성, 리용주 등 북한군 장령 및 군관과 무관단, 외교대표

02.08.(금)

- ❑ 김정은,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 인민무력성 방문 연설 **이슈 분석**
 -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수립,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군대의 최정예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의 역할 강조

- 김정은, 조선인민군 창건 71주년을 기념해 인민군 전체 대연합부대, 연합부대장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및 연회 참석
 - 참가자(군): 리명수(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 김수길(총정치국장), 리영길(총참모장), 노광철(인민무력상) 및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
 - 참가자(당, 정): 최룡해,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김영철 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간부 및 국무위원회 간부

02.11.(월)

- ‘전국 노동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 회의’ 개최
 - 참가자: 박봉주, 최부일(인민보안상), 리만건(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능오(평양시 당위원장) 및 리영길(총참모장)과 군 간부
 - 김정은 서신 전달(리만건), 리영래 당중앙위원회 부장 보고 진행 (민방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언급)

02.15.(토)

- 김정일 생일 7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참가자: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리용호, 최부일, 로두철, 박태덕, 정경택, 조연준, 리만건, 리병철, 김능오, 김영대 등 당정 간부 및 리명수, 김수길, 노광철 등 군 간부와 리주학 재일본조선인총속하단 단장, 리순남 재중조선인총연합회속하단 단장
 - 최룡해, 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자”고 주장



02.16.(토)

- 김정은, 김정일 생일 77주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최룡해, 리만건, 김여정, 리영식 등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간부 동행
- 로동신문,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군 지휘관 진급 명령 제006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발표 [이슈 분석](#)
 - 대상: 중장 진급 3명(양동원 등), 소장 진급 27명(최동주 등)
- 로동신문 사설, 김정일애국주의 구현을 통한 사회주의강국건설 강조

02.20.(수)

-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임무 부여 및 역할 강조
- 로동신문 논설, 우리나라제일주의와 국풍 강조

02.22.(금)

- 로동신문 논설, 사회주의생활양식(개인 이기주의 타파, 사회주의 도덕 고수, 집단주의 강조 및 비사회주의적 요소 배격) 강조

02.24.(일)

- 로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 공시 보도
- 로동신문 논설, 사회주의문명건설 위한 ‘미풍 발취, 비도덕적·비문화적 현상 통제, 일심단결, 책임일군들 역할’ 강조

02.26.(화)

- 로동신문, 김정일의 베트남 방문성과 기대 속 국풍 수립 강조(사설, 영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을 힘 있게 과시하자)
- 로동신문 논설, 김정은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발표 5주년을 기념하여 사상사업의 중요성 강조

03.03.(일)

- 로동신문 정론, 김정일의 베트남 방문을 ‘불면불휴 대장정’으로 부각하며 ‘만리마속도창조운동’ 강조

03.04.(월)

- 전승혁명사적관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김능오(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 우선회(전승혁명사적관 관장) 보고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사적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 보존법 및 강의활동 도입 강조

03.05.(화)

- 로동신문,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앞두고 선전선동 사업의 책임과 역할 강조(논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사상전선의 전초병」)

03.08.(금)

- 로동신문 사설, 3.8국제부녀절 109주년 기념 사설 발표
 - 가정과 사회, 조국과 혁명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증산 돌격운동 참여,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 고수, 자녀교육을 통한 혁명의 계승자 육성 강조
 - 당조직들에 대하여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보장 강조
- 로동신문 논설, ‘민족자존·자력갱생 고수 및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구현’ 강조

03.09.(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도건설위원회 수도건설설계연구소 등 22개 단위에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03.10.(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 김정은, 제10호구 제40호분구 선거장(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

03.12.(화)

- 중앙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발표  이슈 분석
 - ※ 김정은 위원장, 대의원 미 선출: 북한 역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 미진출
- 노동신문 논설, 당과 청년동맹 조직의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 주문

03.15.(금)

- 노동신문 논설, 당간부들에게 1970년대 간부들의 모범전형(강한 사업의욕과 낙천성, 학구열)을 배울 것을 주문
- 전국 청년동맹 5대 교양해설 대경연 개최 (3.15-20)

03.21.(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의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
- 노동신문 정론, '민족자존'·'자력갱생' 강조

03.24.(일)

- 노동신문 논설, 비사회주의·부정부패척결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
- 김일성 함경남도 현지도(1959년 3월, 룡성기계공장, 비날론공장건설장, 광포오리목장 등)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장, 기념보고를 통해 수령 유훈관철 사회주의건설 적극 헌신 강조

03.25.(월)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지도(3.25-26)  이슈 분석
 - 참가자: 리명수,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 군 고위 간부, 군 지휘관 및 모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 노동신문 논설, 전체 일군, 당원,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가의 원칙성과 투쟁력 보유를 통한 당적 충실성 강화와 사회주의건설 적극 참여 독려

03.27.(수)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 리명수,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 군 지휘성원 참가

03.31.(일)

- 로동신문 논설, 김정일의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37주년을 맞이해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강조

04.01.(월)

- 로동신문 논설, 전체 인민들에게 ‘자력갱생·간고분투 혁명정신 총폭발’을 통한 사회주의강국건설 동참 주문

04.09.(화)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 참가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일부 부서 부부장 및 도위원장은 방청으로 참가)
 - 김정은 위원장 사회
 - 2018 국가예산집행정형 및 2019년 국가예산 토의 및 승인
 -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도당 간부들의 사업에 대한 자료통보 진행. 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내각의 사업실태를 분석하면서 정치국 성원들과 정부, 지방당 간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우결함들 지적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4월 10일 소집한다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채택



자료: 『로동신문』, 2019.4.10.

04.10.(수)

-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지도 이슈 분석
 - 참가대상: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원,

- 북미 정상회담 언급 및 자력갱생의 기치와 자립적 경제토대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천명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및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소환 및 보선



자료: 『로동신문』, 2019.4.11.

04.11.(목)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이슈 분석**
 - 참가자: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양형섭(개회사),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영철, 리용호, 태형철, 김수길,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리영길,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김영대
 - ※ 김정은 위원장 불참
 -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
 -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무위원회,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내각,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 선거
 - 헌법 수정보충(개정)
 - 2018년 국가예산결산과 2019년 국가예산 보고



자료: 『로동신문』, 2019.4.12.

04.12.(금)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2일회의 진행
-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주제로 시정연설  [이슈 분석](#)

04.13.(토)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개최
 - 참가자: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김재룡(내각총리), 리만건, 리수용, 태종수,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태형철,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김덕훈, 리룡남, 조연준, 김능오, 조춘룡, 김수길, 노광철 등 당·정부·무력기관 책임간부, 평양시내 기관·공장·기업소 근로자, 청년학생, 군, 해외동포 참가
 - 최룡해, 경축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추대함으로써 “공화국정권을 강국건설의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다그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 경축연설(리명환 등 5명) 진행
- 로동신문, 김정은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7주년 기념 사설에서 자력갱생통한 사회주의강국건설 강조

04.14.(일)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참가자: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리용호, 태형철,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리룡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조춘룡 등 당·정 간부, 김수길, 노광철 등 무력기관 책임 간부, 권순휘(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김영녀(재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 김칠성(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등 참가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인민군 간부의 장령급 인사 명령 제 007호 발표  [이슈 분석](#)

04.15.(월)

- 김정은, 김일성 생일 107주년(‘태양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동행: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등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국무위원회 성원
- 로동신문, 김일성 생일 107주년 기념 사설 게재

04.16.(화)

- 김정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 지도
 - 동행: 최룡해,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김수길, 노광철,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석상원(정치위원, 항공군소장) 및 군지휘관 등
- 불시 훈련장 방문을 통한 비행사들의 공중전투조작능력 점검



자료: 『로동신문』, 2019.4.17.

04.17.(수)

- 김정은, 국방과학원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 및 지도
 - 참가자: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리병철, 김정식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와 김수길, 리영길(총참모장), 노광철, 박정천(포병국장), 박광주 등 인민군 지휘관
 - 영접: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위력을 과시하는 결과로 평가
- 로동신문 사설,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전 인민이 철저히 구현할 것을 주문

04.18.(목)

- 로동신문 사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학습 강조

04.20.(토)

- 로동신문 정론, 전 인민의 당 정책 관철을 통한 사회주의강국건설 독려

04.21.(일)

- 로동신문 논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중요성 강조 및 학습 독려

04.25.(목)

- 김정일과 김정은의 원산농업종합대학 현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인 2009년 2월과 4월 김정일과 함께 원산농업종합대학 방문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옛 건군절)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진행
- 중앙통신,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동력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강조(자력갱생-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의 원동력)

04.28.(일)

- ❑ 로동신문, 김정일 저작(『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보도에서 ‘제재 맞서 당 영도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 촉구 강조

05.04.(토)

- ❑ 김정은,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 참관: 김평해, 오수용, 리병철, 조용원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리영길(총참모장), 박정천(포병국장) 및 군 지휘관
 -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검열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훈련 진행



- ❑ 로동신문, 당간부들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헌신 강조(논설, 『인민생활향상과 당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
 -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및 당 추진 과업 완수 강조, 사업 과정에서의 관료주의, 패배주의 지양 및 애민정신 강조, 실력형 인재상 강조

05.06.(월)

- ❑ 김정일 저작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발표(1974년 5월 7일) 45주년 기념 출판보도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 출판보도선전에서 형식주의 타파,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의 밀접한 결합 강조

05.07.(화)

- ❑ 로동신문, 김정일 저작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발표 45주년 기념 논설 발표
 - 비사회주의의 유발 사상 차단, 사회주의경제건설관련 선전선동 강화, 인민이 진실성과 통속성을 느낄 수 있는 기사 집필 강조

05.08.(수)

- 로동신문, 당 제7차 대회 3주년 기념 사설을 통해 전체 당원, 간부, 근로자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총력 집중 강조
- 로동신문, 故김양건 대남비서 회고 기사 게재(『위인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충실한 혁명전우』)
 - 대남담당 간부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 및 충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전형으로 김양건 부각
 - 특사로 파견되어 출국하는 날 어머니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장례보다 과업 수행을 우선한 김양건과 이를 만류한 김정일의 혁명적 동지애 소개
 - 사망 이후에도 김정은에 의해 지속적으로 호명되며 수령과 인민품에 영생하는 김양건 강조
- 철도설계연구원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석(철도설계연구원장, 기념보고) 및 관계자 참석
 - 해산-삼지연구간 광폭 선로 및 고암-담춘철길공사설계 및 기업소·공장 현대화 공로 치하
 - 철도현대화 달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기여 다짐 결의문 채택

05.09.(목)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 참관: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박정천(포병국장),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지휘관
 -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및 제4차 포병대회 제시 과업 수행 강조, 즉각 전투 준비태세 완비 강조

05.11.(토)

- 로동신문 정론, 수령과 인민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하며 제재국면 속 내부결속 강조

05.13.(월)

- 로동신문 논설, 선전담당 간부들의 태도 변화 주문
 - 사상사업에서 인민들을 덕과 정으로 대하는 인정미를 발휘할 것을 강조

05.19.(일)

- 로동신문 논설, 사회적 준법기풍 확립과 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강조
 - 준법교양 강화,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 전개, 지역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기능 확립, 법기관의 기능 강화, 법집행에서의 이중규율 금지 등 구체적 방안 제시

05.20.(월)

- 노동신문 논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자주노선 관철 강조
 - 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자력갱생에 기초한 발전전략, 기업전략, 경영전략 수립 및 관철 촉구
 - 강원도 근로자 호소문에 의하여 촉발된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사회주의경쟁 열기 지속 보장 강조
- 노동신문, 자력갱생 위한 ‘강원도정신’ 강조
 - ※ 2016년 12월 김정은이 공사가 부진한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한 이후 북한 강원도 민들이 동원되어 약 4개월 만에 발전소를 완공, 이후 ‘강원도정신’이 선전구호로 등장

05.22.(수)

- 김일성의 ‘무산지구전투승리’ 8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 참가자: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기념보고), 전광호(내각 부총리), 로광섭(당역사연구소 소장), 리상원(량강도당위원장), 리성국(량강도인민위원장), 노광철(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비롯 무력기관 성원, 근로단체, 량강도 근로자 등
- 김정은 시정연설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 참가단위: 중앙 및 평양시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 토론자: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광일(인민경제대학 총장), 임철웅(내각 부총리),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05.30.(목)

- 노동신문 사설, 선전선동사업 강화를 위해 당초급선전간부를 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조

05.31.(금)

- 노동신문 논설, 비사회주의현상의 해독성 지적 및 전 사회적 투쟁 촉구

06.10.(월)

- 노동신문, 수령 및 당과의 동지애를 실천한 대외사업부문 모범 관료의 전형으로故 강석주 전 당 국제비서를 부각하는 회고 기사 게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7월 21일 실시 공고

06.13.(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조직 결과 발표
 - 위원장(태형철), 부위원장(김평해), 서기장(정영국), 위원(최부일, 김영호, 박철민,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06.18.(화)

- 김정일 저작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 발표 1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 참가 단위: 중앙당 및 평양시 당·행정·근로단체·과학·교육·문학예술·출판보도 부문·당간부양성기관·혁명사적부문
 - 토론: 최상건(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최순철(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 홍서헌(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김영건(김일성고급당학교 당위원장)

06.25.(화)

- 로동신문, ‘조국해방전쟁’(6·25전쟁) 발발 69주년 관련 사설 발표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계승을 통한 사회주의강국건설 적극 참여 독려

06.28.(금)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 참가자: 최룡해(기념보고),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조춘룡, 최선희 등 당정 간부와 김수길, 노광철 등 군 고위 간부

07.08.(월)

- 김정은, 김일성 사망 25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김일성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 참가: 김정은, 최룡해(추모사),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김여정, 리병철,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조춘룡, 최선희 등 당정 간부와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 군 고위간부
 - ※ 녹음실황 보도(중앙방송) 및 오후 12시 전국에 추모 사이렌 3분 방송

07.15.(월)

- 로동신문 사설, 군의 사회주의강국건설 참여 독려
 - “인민군대가 주동, 기수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07.17.(수)

- 로동신문, 김정은 원수 칭호 수여 7주년 관련 기사 게재

07.20.(토)

- 중앙통신,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소식 보도
 - 신년사 및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총화 발표 및 경제 계획 달성을 위한 토의 진행

07.21.(일)

- 김정은, 함경남도 제201호선거구 제94호분구 선거장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참가 [이슈 분석](#)
 - 동행: 조용원, 김용수, 리영식, 현송월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주성호, 정송식 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 진행

07.22.(월)

-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7.21 대의원 선거 결과 발표

07.23.(화)

- 김정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 참관(로동신문) [이슈 분석](#)
 - 동행: 조용원, 홍영철, 유진, 김정식, 리종식, 최명철, 장창하 등 당중앙위원회 및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07.25.(목)

- 김정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 시위사격’ 조직 지도 [이슈 분석](#)
 - 참관: 조용원, 리병철, 홍영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 로동신문, 금번 사격을 통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성능지표 검증 및 무기체계 우월성 확인 주장

07.26.(금)

-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체결) 66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4.25 문화회관)
 - 참가: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태형철, 로두철,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김덕훈, 리룡남, 조춘룡 등 당·정 간부 및 내각과 근로단체 간부, 김수길(기념 보고), 리영길, 노광철 등 군 간부

07.27.(토)

- 김정은, 정전협정체결 66주년 맞아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참배 및 7.27 기념 음악회 관람
 - 관람: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조용원, 김여정, 최선희, 양형섭, 리명수, 최영림 등 당정 간부 및 전쟁노병

07.31.(수)

- 김정은,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이슈 분석](#)
 - 동행: 조용원, 리병철, 유진, 김정식, 박정천
 - 영접: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부문 간부
 - 로동신문, 시험사격 통해 신형 무기의 효과성 입증 주장

08.02.(금)

- 김정은, 새벽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이슈 분석
 - 동행: 리병철, 유진, 김정식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및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부문 간부

08.06.(화)

- 김정은,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 참관  이슈 분석
 - 참관: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용원, 리병철(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영길(총참모장), 박정천(포병국장) 등 군 고위 간부
 - 영접: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 신형 전술유도무기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 진행

08.07.(수)

- 만경대혁명사적관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성국(관장) 및 사적관 종사자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및 관장 보고 진행, 학술연구, 진열전시, 관리운영사업 개선 강조

08.08.(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하는 결정 제20호 발표
- 로동신문, 당 간부들에게 사업결과 평가만 행하는 피동적 업무를 지양하고 증산투쟁의 설계에서 실천까지 대담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는 사설 발표

08.10.(토)

- 김정은,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이슈 분석
 - 영접: 리병철, 유진,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 등 당중앙위원회 및 국방과학부문 간부
 - 신무기 확인 및 시험사격 진행

08.12.(월)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103명의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을 진급(상장 1, 소장 1 포함)시키는 명령 제008호 발표

08.15.(목)

- 로동신문, 8·15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74주년 기념 김일성 ‘조국해방’ 업적 찬양 사설 게재

08.16.(금)

- 김정은, 16일 오전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 지도: 리병철,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 당중앙위원회 및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 김정은, 주체의 국방건설노선 고수 발전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결조건임을 강조

08.24.(토)

- 김정은,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 지도  이슈 분석
 - 지도: 리병철,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 등 당중앙위원회 및 국방과학부문 고위 간부

08.25.(일)

- 로동신문 사설, 선군절(8.25) 59주년 기념 김정일 선군영도 업적 찬양 및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독려

08.26.(월)

- 김정은 저작(『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발표 3주년 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 참가: 박철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및 리주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혜선(금성청년출판사 사장), 청년동맹 관계자
 - 청년세대의 도덕기강 확립 및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동맹의 역할 강조

08.29.(목)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진행  이슈 분석
 - 주석단 참가자: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화,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개·폐회사),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하용, 조춘룡
 -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보충
 -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손영훈 내각사무장 임명

08.31.(토)

- 로동신문 논설, 최근 ‘무기개발 성과’를 강조하며 국방공업분야의 발전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

09.06.(금)

- 김정은,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
 - 참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관계부서 간부, 도당위원장, 군중, 군단위급 지휘관
 - 박정천 육군대장을 군 총참모장으로 임명

- 김정은, 전국 위기관리 실태 분석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지역 단위별 위해요소 평가 및 취약지대점검 등의 피해예방대책 강구 지시, 계단식 댐이 위치한 강하천들에 대한 지휘통신체계 정비보강 강조, 인민군을 동원한 농업 부문 피해최소화 대책 강구 지시



09.08.(일)

- 중앙통신,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제13호 태풍 피해 발표 보도
 - 5명 사망, 3명 부상

09.10.(화)

- 김정은,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지도
 - 참가: 박정천(총참모장), 김여정, 조용원, 리병철, 김정식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고위 간부
 - 시험사격 2회 진행을 통한 운영, 비행궤도, 정확도 및 유도기능 검증 평가

09.22.(일)

-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진행
 - 참가: 박광호(추모사), 최휘, 태형철, 전광호 등 당·정 간부 및 중앙기관 간부, 노광철(인민무력상) 및 군 간부, 모범간부 및 근로자

10.02.(수)

- 국방과학원, 2일 오전 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호 시험발사 [이슈 분석](#)
 - 로동신문, 고각발사방식의 시험을 통한 핵심전술기술지표 점검 성공 보도
 - 김정은,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 연구 단위 축하

10.10.(목)

- 김정은, 당 창건 74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경축공연 관람
 - 동행: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및 당정 간부

10.16.(수)

- 로동신문, 김정은의 백두산 백마 등반 보도

10.17.(목)

- 노동신문 사설, 김정은의 백두산정상 등반을 '백두령장의 준마행군'으로 소개하며 전체 당원 및 인민들에게 험지를 백마 타고 오르는 영도자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

10.19.(토)

- 중앙방송, 신흥혁명전적지관리소·영광혁명전적지관리소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보도

10.20.(일)

- 중앙통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보도
 - 김재룡 등 내각 성원 참가, 당의 교육정책 관철 및 3.4분기 경제사업 총화

10.21.(월)

-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응섭(해외동포사업국장), 관계자
 -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의 사업 강화 다짐
- 사회주의통계사업 개선에 관한 김일성·김정일 저작 발표 기념 보고회 개최
 - 참가: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 경제건설노선에서 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과학적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계사업의 정보화·현대화 수준의 격상 주문
- 김일성·김정일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 박춘식(문화상), 최태영(학장) 및 대학 관계자

10.25.(금)

- 노동신문, 김정은 저작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 발표 3주년 관련 '수령결사옹위·자력갱생·노동계급의 새 문화 창조' 강조

10.31.(토)

- 국방과학원,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진행
 - 노동신문, 연속사격체계 안정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라 발표

11.16.(토)

- 노동신문, 김정은, '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9' 참관 보도
 - 영접: 박정천(총참모장), 김광혁(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및 군 지휘관

11.18.(월)

- 로동신문, 김정은, 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 강하훈련 지도 보도
- 만수대창작사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11.23.(토)

- 로동신문,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인 수령’에 대한 충성 강조 기사 게재

11.25.(월)

- 로동신문, 김정은의 창린도방어대 및 군 제5492군부대 관하 여성중대 시찰 보도
 - 동행: 박정천(총참모장), 당중앙위원회 간부

11.29.(금)

- 로동신문, 김정은의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사격 참관 보도
 - 영접: 리병철(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고위 간부, 박정천(총참모장) 및 대연합부대장 등
 - 로동신문, 전투 적응성 최종검토를 위한 연발시험사격시험이라고 언급

12.03.(화)

- 로동신문, 김정은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방문 및 2차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
 - 동행: 최룡해, 박정천(총참모장), 군중사령관 및 군단장, 당중앙위원회 간부
 - ※ 리설주 동행
 - 김정은, 혁명 전적지 및 사적지 방문 후 체험형 혁명 전통 교양활동 적극 추진을 통한 세 세대 육성 강조하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언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12월 하순 소집 발표

12.07.(토)

- 노동신문 사설,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행군을 언급하며 전 당 차원의 혁명전통 무장 강화 및 전 사회적인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조직사업 전개 당부

12.10.(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개편하는 정령 발표
 - 행정구역 변화: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개명하고, 기존 삼지연읍을 광명성동, 배개봉동, 봇나무동, 이갈동으로 분할 개편 및 삼지연읍 폐지
 - 백두산밀영노동자구 등 6개 노동자구를 동으로 개편

12.17.(화)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동행: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을 비롯한 당정 간부

12.22.(일)

- 노동신문,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지도 보도
 - 참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 군종 및 군단지휘관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들,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문제들 토의
 - 신규 부대 조직 및 확대 개편, 일부 부대 소속 변경, 부대배치 변경 등 결정
 -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

12.28.(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집(12.28-31)

12.29.(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2일회의 진행

12.30.(월)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12.31.(화)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4일회의 진행

2

경제 · 사회 분야

01.01.(화)

-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 진행(18.12.31-19.1.1)
 - 설맞이 공연으로서는 최초로 야외무대에서 공개 진행



- 로동신문, 노래 ‘우리의 국기’ 악보 및 김정은의 ‘보급사업 지시’ 친필 게재
 - ‘우리국가제일주의’ 대표 상징곡, ‘우리국가제일주의’ 본격 캠페인 시발점

01.04.(금)

- 로동신문 사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자력갱생 대진군’ 등 강조

01.05.(토)

- 로동신문, 박봉주 내각총리의 2.8 직동청년탄광,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건재공장 등 현지요해 보도

01.08.(화)

- 로동신문, 평안북도 양생원(장애인 복지시설, 염주군 서림리) 건설 보도
- 로동신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소개

01.09.(수)

- 로동신문, 평안북도 보건산소공장 및 신의주김치공장 건설 보도

01.11.(금)

- ❑ 김정은, 설맞이 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개최
 - 참가자: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응섭(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경준(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및 간부
 -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자, 총련의 기둥으로 성장할 것을 강조

01.13.(일)

- ❑ 로동신문, '상품식별부호(바코드)' 확대도입 소개

01.15.(화)

- ❑ 로동신문, 박봉주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탄소하나화학공업 대상건설장, 선교편직공장 등 현지요해 보도

01.16.(수)

- ❑ 로동신문, 최룡해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 조선신보, 조선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황해북도 봉산군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소식 보도 [이슈 분석](#)

01.17.(목)

-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창립 73주년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개최
 - 참석자: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동맹 간부

01.19.(토)

- ❑ 로동신문 사설, 5개년전략목표 수행에 '총공격' 독려

01.20.(일)

- ❑ 로동신문 논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는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라고 강조

01.21.(월)

- ❑ 로동신문 사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위력한 정치사상적 무기'라고 강조 [이슈 분석](#)

01.22.(화)

- ❑ 중앙통신, 인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조선인삼협회' 조직 보도
- ❑ 제45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
- ❑ 로동신문, 박봉주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신포수산사업소 등 함경남도 현지요해 보도

01.23.(수)

- ❑ 노동신문, 최룡해의 하당닭공장과 농업연구원 가금공학연구소 현지요해 보도
- ❑ 황해남도 배천메기공장 준공식 개최
 - 참가자: 박영호(황해남도당위원장) 및 배천군 간부, 근로자 등

01.24.(목)

- ❑ 중앙통신, 수산업 정보 홈페이지 ‘이채어경’ 소개
 - 수산분야 과학기술자료 및 실시간 해양 정보 서비스 제공 보도

01.25.(금)

- ❑ 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인삼법’ 채택 보도
 - 5개 장, 48개 조로 구성, 인삼 부문 사업 원칙, 인삼발 조성과 재배 및 수매, 가공품 생산과 판매, 사업 지도 통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로 구성

01.26.(토)

- ❑ 중앙통신, ‘은하수’ 화장품 25종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품질인증 보도

01.28.(월)

- ❑ 노동신문, 「김정일전집」 제24권(1974.8-12월, 담화 및 연설 등 47건 수록) 출판 보도

01.29.(화)

- ❑ 노동신문, 최룡해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안주오리공장 현지요해 보도
- ❑ 노동신문, 라선시 중요대상건설 완공 보도
 - 보건산소공급소, 청학샘물공장, 양로원 등 10여 곳 완공
 - 라선시경기장, 축구학교 등 공공건물 개건(리모델링) 완료

01.30.(수)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부 등 35곳에 모범 준법 단위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 ❑ 중앙통신, 높은 기온 및 적은 강수량 등 겨울 이상기후현상 보도
 - 이슈 분석
 - 38년만의 최저 강수량(3.6mm) 기록 및 기상관측이래 최저 평균대기습도(64%) 기록
- ❑ 노동신문, 산림구역에서 송충이 출현 관련 긴급 대책 수립 및 ‘송충 구제사업의 군중적 전개’를 촉구

01.31.(목)

- ❑ 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민족유산보호법’ 수정 보충 보도
 - ※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 민족유산보호법 개정 보도(1.19)

02.03.(일)

- ❑ 로동신문 논설, 자립경제 강화 위한 준법기풍 확립 강조

02.04.(월)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주체철 및 철강재생산 독려

02.06.(수)

- ❑ 로동신문 논설, 다수확 성과 달성 위한 과학농사 강조
- ❑ 로동신문, 평성김치공장(평성시 봉학동지구) 건설 보도

02.07.(목)

- ❑ 로동신문 논설, 당원 및 근로자들에게 ‘직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강조
- ❑ 제16차 2.16과학기술상 수상식
 - 참가자: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임철웅(내각 부총리),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선정 발표
- ❑ 조선신보, 각 기관·기업소·단체별 산림책임할당제 도입 보도
 - 대중·군중적 식수 및 관리를 통한 빠른 산림복구추진 언급

02.09.(토)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의주화장품공장, 해방산호텔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 광명성절 기념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모범단위를 선정하여 훈장 수여 진행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한 일군들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기여한 모범단위에 3중 26호모범 기대영예상을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 평양방직기계공장 공구직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02.10.(일)

- ❑ 로동신문 사설, 석탄 증산으로 ‘당의 전략노선 관철’을 촉구

02.11.(월)

- ❑ ‘제34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위력” 주제 과학연구성과 230여건 출품 및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전시회, 새 기술교류 등 진행

02.12.(화)

- 원산구두공장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참가자: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통해 원산구두공장을 “경공업부문의 선두에서 내달리는 전형 단위,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만아들공장”이라 격려

02.13.(수)

- 박봉주, 영유광산, 증산광산, 신계린회석광산 및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요해
 - 증산투쟁, 생산공정 현대화, 자재보장대책 수립, 광부 생활 개선, 생산품 질 제고 및 생활문화 개선 등 강조

02.14.(목)

- 광명성절 기념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청년동맹회관)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관계부문 회의 개최
 - 참가자: 박봉주,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인민무력상)
 - 나무모 생산시설 및 기술 발전, 산림과학기술 발전 및 산림 조성 및 보호관리 강조

02.15.(금)

-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 휘거(피겨)축전’ 개막
 - 참가자: 전광호(내각 부총리), 리일환(당중앙위원회 부장), 기광호(빙상휘거협회 위원장) 및 대회 관계자와 참가자

02.18.(월)

- 노동신문 정론,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경제발전에 매진” 촉구
- 노동신문, 황해남도, ‘물 확보’ 사업 주력 동향 소개

02.20.(수)

-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 주제 300여건 연구성과 및 80여건 과학창상 출품
 - 12개 분과별 과학기술성과 발표, 전시회, 전시경연, 신규 기술교류 등 진행

02.21.(목)

-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진행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금성트랙터공장-대안친선유리공장
 - ※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동종 업종간 경쟁을 붙여 생산량과 질에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북한식 방법

02.23.(토)

- 노동신문 사설, 증산투쟁과 함께 “절약사업 강화” 강조
- 노동신문 논설, 인재육성 및 과학교육 사업 강조

□ ‘2018년 사회주의경쟁 총화회의’ 진행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신의주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신의주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신의주신발공장

02.26.(화)

- 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소식 보도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기술혁신성과전시회’ 개최

02.27.(수)

- 로동신문, 박봉주의 안주펌프공장, 안주절연물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 및 교육과학전시관 등 현지요해 보도
- 설비 국산화, 생산공정에서의 내부예비 확보, 경영전략 수립과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한 절연물 질제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자재보장대책 강구 강조

02.28.(목)

- ‘3.1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개최
 - 참가자: 리혜정(사회과학원 원장), 최수남(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등
-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박춘남(문화상, 보고), 안동춘(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 예술 인재 육성사업 및 음악 과학연구사업 등 강조, 결의문 채택

03.01.(금)

- ‘3.1인민봉기 100주년’ 기념 평양시보고회 개최
 - 참가: 양형섭, 로두철, 최휘 등 당 정 간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장), 박명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자), 최고령도자의 령도 아래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고수와 사회주의 부강발전 및 자주평화통일 투쟁 강조

03.02.(토)

- 로동신문 사설, 식수절(3.2) 기념 ‘전국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추진’ 강조 및 ‘봄철 나무심기’ 독려

03.04.(월)

- 제34차 철도성 과학기술축전 개최(3.4-6)
 - 철도수송수단 기술개조에 기여한 100여건의 성과자료 출품
 - 철도운수부문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강조

03.06.(수)

- 김정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 발송
 - 형식주의적 사상교양사업 배격, 필수 5대교양 중심의 교양사업 진행
 - 과도한 개인숭배경향 비판: 위대성교양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품모 신비화 지양하여 인민에게 헌신하는 수령상 제시를 주문
 - 당사업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대한 선전선동 화력 집중 당부
 - 과학기술발전 및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강조
- 3.6-7,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진행, 김정은 위원장 ‘서한’ 전달
이슈 분석
 - 참가자: 김기남(당중앙위원회 고문, 김정은 위원장 서한 전달), 리영식(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보고)
- 제34차 농업연구원 과학기술축전 개최
 - 농업의 과학연구사업에서 달성한 80여건의 성과 출품
 - 김광옥 농업연구원 원장 개막사 실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 강조

03.07.(목)

- 노동신문, 박봉주의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농기계공장 현지요해 보도
- 길상봉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 ‘식량 주권과 농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네팔 방문(3.7-17)

03.08.(금)

-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 109주년 중앙보고회 개최
 - 참가자: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능오(평양시당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리일환(당중앙위원회 부장, 기념보고), 장춘실(여성동맹 중앙위원장) 등
 - 여성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투쟁할 것을 주문(경제, 교육, 군중문화예술분야)
- ‘3.8국제부녀절’ 109주년 기념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개최

03.13.(수)

- 노동신문, 박봉주의 평양제약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보산제철소, 장산광산, 람정광산 현지요해 보도
- 제34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 진행(3.5-13)
 - 자재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300여건 과학기술성과 및 창의고안 출품

03.15.(금)

- 중앙통신, 삼지연군 백두산생물권보호구 보도
- 노동신문,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허혈성뇌혈관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줄기세포활성화제-1” 및 주사약 개발 보도

03.16.(토)

- ❑ 로동신문 사설, '도별 경쟁' 통한 사회주의경쟁 촉진, 국가 발전 강조

03.18.(월)

- ❑ 로동신문 논설, '군'단위 지방경제 발전 강조
-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도도 1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자: 전명식(평안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오철수(연합기업소당위원회 위원장, 기념보고)
 - 대중기술혁신운동을 통한 원자재 국산화 비중 증가,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성과 도입 강조
- ❑ 로동신문 사설, '도덕교양 통한 국풍 수립' 강조
 - 집단주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강조, 비사회주의의 현상 극복 및 이를 위한 도덕교양 강조

03.19.(화)

- ❑ 중앙통신, '2018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기술자' 선정 명단 보도
 - 윤원남(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대체혈액연구), 박지민(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 과학기술대학, 주체철생산체계 연구), 유철준(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대체에너지 개발), 김남철(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양자정보학 암호통신기술 연구), 박준일(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생산체계 연구)

03.20.(수)

- ❑ “봄철전국신발전사회” 개막(평양역전백화점, 3.20-26)
 -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등 60여개 단위 1110여종 11만 3500여점 제품 출품 및 연구 성과 제출
 - 참가자: 리주오(내각 부총리, 개막사), 최일룡(경공업상)

03.21.(목)

- ❑ 로동신문, 박봉주, 신도군 갈중합농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신의주시 토성협동농장 등 현지요해 보도
 - 생산공정의 현대화,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간부들의 책임성 증가 언급

03.23.(토)

- ❑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애국헌신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 및 업무에 대한 책임있는 수행자세 강조

03.25.(월)

- ❑ 로동신문 사설, '봄철 국토관리 사업'(산림복구, 도로기술개건, 강하천정리) 독려

03.26.(화)

- ❑ 로동신문 논설, 인민 체육활동을 국력신장의 조건으로 결부, 당의 대중체육활동 조직 및 활성화 강조

03.28.(목)

- ❑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 진행
 - 참가자: 전광호(내각 부총리), 김일국(체육상, 올림픽위원장, 보고자) 및 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체육부문 간부
 - 2018년 올림픽위원회 사업총화 및 2019년 사업방향 토의, 국제경기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전문체육기술 발전, 체육과학연구부문 전환 관련 실무 토의 진행

03.29.(금)

- ❑ 로동신문, 농업성이 운영하는 ‘먼거리 영농기술 문답봉사체계’ 보도
 - 농업성-과학연구기관-각급농업지도기관 및 농장을 연결, 영농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를 협의 대책하는 네트워크형 정보기술체계로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 신규 기술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3.30.(토)

- ❑ 로동신문 논설, 3-4월 ‘봄철 위생월간’ 맞아 위생적이고 문명적인 문화 확립 강조

04.02.(화)

- ❑ 로동신문, 축산업 발전 위한 ‘4대고리(종자·먹이·사양관리·수의방역)’ 강조 및 개인부업축산 장려(사설,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 제24차 태양절요리축전 개최(4.2-4, 평양면옥)
 - 폐막식 참가자: 리주오 내각 부총리, 김경남 상업상, 리영철 인민봉사총국장, 한영훈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장
 - 1000여점의 요리 및 음료와 160여건 과학기술성과자료 출품, 우수단위 상장과 메달 증서 수여 및 시상 진행

04.03.(수)

- ❑ 로동신문, 박봉주의 장송협동농장 등 황해남도 옹진군 협동농장(장송협동농장, 랑정협동농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가죽이김공장 현지요해 보도
 - 농업분야의 증산 달성을 위한 당간부 사업기풍 개선, 영농의 기계화 증가, 선진영농방법 도입 및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강조
- ❑ 태양절 기념 국가학위학직 수여
 - 참가자: 전광호 내각 부총리
 - 수여 대상: 과학, 경제, 교육사업 기여자 (최정식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등 후보원사 칭호 3명, 리광희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등 교수 학직 14명 등 수여)

04.04.(목)

❑ 로동신문, 김정은의 삼지연군 현지도도 보도

- 동행자: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 영접: 박훈(건설건설공업상), 김영환(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상원(량강도당위원장), 양명철(삼지연군위원장)
-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 공급 책임 지원 강조, 세쌍둥이자매 가정 방문, 삼지연들쪽 음료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및 삼지연 초급중학교 방문



❑ 로동신문 논설, 도(道)별 경쟁 재강조

❑ 태양절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4.4-515,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 참가: 리주오(내각 부총리, 개막연설)
- 삼지연들쪽음료공장 제품상표도안,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제품포장상표도안 등 270여점 도안 및 860여점 산업미술도안 전시

04.05.(금)

❑ 로동신문, 함경남도 황초령샘물공장 완공, 제품 시험생산 돌입 보도



04.06.(토)

❑ 로동신문, 김정은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및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도도 보도

- 동행: 최룡해, 조용원, 박창호, 김응복

- 영접: 안지용(육군중장) 및 군 지휘관
- 원산 갈마지구 공사기한을 2019년 10월에서 6개월 연장하도록 지시



원산-갈마관광지구(4월)



양덕온천건설장(4월)

04.07.(일)

- 태양절 기념 '제30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개최
 - 참가자: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김일국(체육상, 개막연설)

04.08.(월)

- 로동신문, 김정은의 대성백화점 현지지도 보도
 - 동행: 최룡해,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간부
 - 생필품, 인민대중소비품의 원활한 보장을 통한 인민생활 편의 보장 강조



- 중앙통신, 최룡해의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 황주군농기계작업소, 사리원 닭공장, 오리공장, 황주군 장천협동농장, 평양 타조목장 현지요해 보도
 - 선진 영농기술 및 방법 수용, 농기계 가동율 향상을 통한 증산 강조, 과학기술보급실운 영을 통한 신규 영농설비 창안 도입 강조

04.09.(화)

- 중앙통신, 박봉주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어랑천 4호발전소건설장, 팔향언제건설장, 염분진호텔건설장 등 함경북도 현지요해 보도
- 제4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 개최(4.9-11, 청류관)
 - 50여개 단위 창작 4000여점 사탕, 과자조각 출품

04.10.(수)

- ❑ 김정일 저작(『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 45주년, 전국 의학 과학토론회진행(4.10-11, 과학기술전당)
 -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의 현대화 추진, 의료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인민 건강 담보 강조
 - 330여건의 의학과학논문 발표 및 참가자 대상 발표증서 수여

04.12.(금)

- ❑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첫 공연 개최

04.14.(일)

- ❑ 대성백화점 준공식 개최
 - 참가자: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훈(경흥지도국 국장, 준공연설)
- ❑ 평안남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개최
 - 참가자: 강형봉(평안남도인민위원장), 김두일(평안남도당위원장, 준공사, 우량품종 나무 육종 및 도내 산들의 수림화 기여 강조)
- ❑ 매봉산생물공장(원산시) 준공식 개최
 - 참가자: 박정남(강원도당위원장), 한상준(강원도인민위원장, 준공사, 생산정상화를 통한 인민생활 기여 강조)

04.15.(월)

- ❑ 제6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국내외 참가자들 태양절경축공연 개최(평양대극장 외 7곳)

04.16.(화)

- ❑ 로동신문, 김정일의 신창양어장 현지지도 보도
 - 동행: 리설주, 최룡해,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김수길(총정치국장), 노광철(인민무력상)
 -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 실현을 위한 표준이자 본보기, 교육단위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



자료: 『로동신문』, 2019.4.17.

04.23.(화)

- ❑ 김일성 저작 「보건일군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 발표 6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
- ❑ ‘제34차 전국 과학기술축전’ 개막(4.26-5.3, 3대혁명전시관)
 - 참가: 김재룡,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승두(교육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개막사) 및 관계자
 - 500여개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
- ❑ 제6차 국경-풍산개품평회 사리원시에서 개최
 - 풍산개 품평회를 애국사업으로 보도

04.24.(수)

- ❑ 노동신문 사설, 자력갱생 대진군 호소
- ❑ 노동신문 논설,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 강조

04.28.(일)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영광전주공장 등 23개 모범단위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애국림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

04.29.(월)

- ❑ 노동신문 정론, ‘농업전선의 생산력 증가를 바탕으로 자력갱생 대진군’ 달성 강조
- ❑ 중앙통신,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 의한 학령 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선전

04.30.(화)

- ❑ 노동신문, 김재룡 내각총리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 보도

05.01.(수)

- ❑ ‘5.1절’(노동절) 12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참가자: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보고),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능오(평양시당위원장), 고인호(내각 부총리)
- ❑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등 당과 정부 간부들, 기업소 방문 및 노동계급 축하 방문
- ❑ 노동신문 사설, 5.1절 기념 근로자 역할 치하 및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여 독려, 당조직에 근로자 대상 사상교양사업 진행 강조

05.02.(목)

- ❑ ‘제21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진행(5.2-3, 인민문화궁전)
 - 참가단위: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및 보건부문 관계자,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재미동포의학자 대표단
 - 의학과학기술분야 협력 및 교류 확대발전 강조 및 해당분야 논문 발표와 토론 진행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자: 최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럽윤학(총장, 보고), 관계부문 종사자
- 당의 과학, 교육 중시정책에 부흥하여 인재육성에 매진할 것 결의

05.03.(금)

❑ 로동신문, 최룡해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 현지요해 보도

❑ 로동신문 사설, 간석지 건설을 통한 경지면적 확장 강조

❑ 장애인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체육경기대회) 개막(5.3-19, 창광원)

- 참가자: 정현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개막연설) 및 관계자
- 당의 장애인 보호정책 우수성 언급 및 장애인 체육사업 발전 강조

05.04.(토)

❑ 로동신문, 김정은의 금야강2호발전소 현지도도 보도

- 동행: 김평해, 오수용, 조용원, 김용수, 리영식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 영접: 리호범 금야군위원장
- 미설치 발전기, 변압기 책임 전달 약속, 발전소관리운영 통한 인민생활 향상 강조



05.06.(월)

❑ 로동신문,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강조하는 사설 발표

- 과학기술의 급속발전을 자립경제 강화 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규정, 당의 과학기술중시 정책 관철을 위한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 강조

❑ 평양 당뇨병의학과학 토론회 진행(5.6-7)

- 참가단위: 조선병원협회 당뇨병위원회, 국제당뇨병연맹대표단
-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경험교류를 위한 토론, 당뇨병치료기술 습득 진행

05.07.(화)

- ❑ 제19차 5.21 건축축전 개막(과학기술전당)
 - 참가: 동정호(내각 부총리), 심영학(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장, 개막사), 건축설계 부문 관계자
 - 각 도, 직할시 축전 당선작 420여건 건축설계안 및 50여점 건설장비 및 기공구, 30여건 설계정보화 프로그램 전시회 진행

05.08.(수)

- ❑ 신의주학생소년궁전 개건

05.09.(목)

- ❑ 희천정밀기계공장, 김정일 현지도 10주년(2009년 5월, 김정은 동행) 기념보고회
 - 참가자: 권대성(자강도당 부위원장), 한철봉(희천정밀기계공장 당위원장, 기념사) 및 구성원
 - 신형 윤전(운송)기재 부속품 개발 및 증산 강조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에 기여한 김일성종합대학 인쇄공장 등 18개 단위에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제30호 발표(로동신문, 5.15에 보도)

05.12.(일)

- ❑ 청산협동농장에서 북한지역 첫 모내기 시작



05.13.(월)

- ❑ 로동신문, 노력·에너지 절약형 과학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강조하는 사설 게재
- ❑ 2019 전국 마감건재(마감재) 부문 과학기술성과 전람회 개막(5.13-20, 과학기술전당)
 - 참가자: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조석호(수도건설위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및 관계 실무자
 - 250여건 마감재 연구 및 생산과정과 연구 성과 및 제품 전시

- ❑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막(5.13-14, 남포 대진 용접봉공장)
 - 참가단위: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문천금강제련소
 - 신규 용접 방법과 설비 개발과 관련된 70여건의 논문 및 전시품 출품

05.14.(화)

- ❑ 노동신문, 배천군 수원농장에서 전국 농업부문 간부 대상 기술전습회 개최 보도
 - 참가: 리재현(농업성 부상), 내각 및 농업성 간부, 각 도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및 처장
 - 모내기, 발작물 비배관리(거름주기), 농기계 사용법 안내, 강냉이, 콩 비배관리 기술전수 진행
- ❑ 노동신문, 가뭄현상 보도 및 피해 대책 강구 강조
-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25권(1975년 1월-4월 담화, 연설 등 55건 수록) 출판

05.15.(수)

- ❑ 노동신문, 김재룡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건설장 자재 보장 대책 강구, 제철소 철강재 생산 정상화 및 연료보장대책 마련 강조
- ❑ 노동신문 사설,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만리마속도창조운동’ 통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조기 완수를 촉구

05.16.(목)

- ❑ 노동신문 논설, 김정은 저작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5주년을 기념하여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강조
 - 인민문학예술 구현, 대중의 당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선전선동 역할 강조

05.17.(금)

- ❑ 중앙통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감자녹말 가공품 생산공정 도입 보도
- ❑ 중앙통신,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의 벼겨(벗겨) 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 과학화 보도
- ❑ 전자공업성 주관 새 제품개발성과 전시회 평양자동화기계공장에서 개최
 - 23개 단위 참가, 115종 170여점 자동화설비, 전자요소, 인민소비품 출품

05.18.(토)

- ❑ 노동신문, 전당, 전국가 차원에서 모내기에 역량 집중을 강조하는 사설 게재
 - 노동력 및 물질기술보장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적 모내기 달성 강조
- ❑ 노동신문, 금창청년소목장(김형직군) 건설 보도

05.19.(일)

- ❑ 로동신문, 각지 ‘가뭄피해 방지 투쟁’사례 보도
 - 관수설비 및 물 운반수단 총동원을 통한 효과적 물 보장체계 구축 사례 소개
- ❑ 무역은행 창립(1959.5.20) 60주년 기념보고회
 - 참가자: 로두철(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 내각 부총리), 고철만(무역은행 총재, 보고) 및 무역은행 종사자
 - 우리 식의 금융관리, 대외결제체계 발전을 위한 무역은행 대외신용 증가 방안 모색(국제금융시장 진출)

05.20.(월)

- ❑ ‘제22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5.20-25, 3대혁명전시관)
 - 참가단위: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등 국내외 450여 회사
 - 금속, 전자, 기계, 건재, 운수, 보건, 경공업, 식료일용공업 등 선진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 전시
 - 참가자: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대(대외경제상), 오철룡(대외경제성 부상, 축하연설), 김철훈(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웅식(조선국제전람회 사장, 개막사), 경제무역부문 관료
 - 자주, 평등, 호혜 원칙에 입각한 국제 대외경제활동 확대발전 계기이며, 참가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임을 부각



05.21.(화)

- ❑ 로동신문, 남포양로원(와우도유원지 인근) 완공 보도

05.22.(수)

- ❑ 로동신문, 김재룡의 순천화력발전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봉천군 신담협동농장, 배천군 영농현장 현지요해 보도
 - 전력생산에서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신규 혁신기술 창안 도입 강조
- ❑ 로동신문 논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성공적 추진 위한 기본과제 제시
 - 우리나라제일주의의 신념화, 과학기술능력 확보 및 인재육성 강화,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 등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촉발할 수 있는 군중운동 지속 추진 강조

05.23.(목)

- ❑ 로동신문, 최룡해의 평안남도 증산군 산림부문사업(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현지요해 보도
 - 자체적 나무모(묘목) 육성을 통한 나무 생존율 향상 및 땀감의 순환식 채벌 설계 강조
- ❑ 인민경제 부문별·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2019 개막(5.23-7.3, 강원도예술극장)
 - 참가자: 전광호 내각총리(개막연설), 주영길 직총 중앙위원장, 윤강호 노동상, 한상준 강원도인민위원장 및 관계자
 - 미장, 목공, 용접, 제관, 선반 종목에 대하여 전국에서 200여 기능공 참가
- ❑ 로동신문, 함경북도 명천메기종어장 완공 보도

05.24.(금)

- ❑ 라선학생소년궁전 준공식 진행

05.25.(토)

- ❑ 로동신문 사설, 제재국면 속 도덕기풍확립을 통한 제국주의 책동 분쇄와 사회주의 승리 강조
 - 전 사회에 김정은 도덕관 따라배우기, 공공장소에서의 도덕 질서 지키기, 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교양 강화, 당 간부들의 솔선수범 등 도덕기강 확립 위한 방안 제시
- ❑ 로동신문, 개성시, 만월대 등 올해 20여개 역사유적 개건 보수 완료 보도
 - 남대문, 선죽교 비각, 선죽교 표충비각, 송양서원, 왕건왕릉, 고려성군관, 개성첨성대, 만월대, 개성성, 대각국사비 등

05.26.(일)

- ❑ 로동신문, 황해북도 송림김치공장 완공 보도



05.27.(월)

- ❑ 중앙통신, 김재룡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기술혁신안 수용 및 계획적 설비보수 강조, 생산공정의 현대화 및 전력생산 위한 원료와 자재보장대책 강구 요청

- ❑ 로동신문, 인민경제활성화 및 주요 대상건설과업 완수를 위한 주체철 생산정상화 독려(사설, 「주체철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경영관리방법 혁신, 주체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추구를 통한 생산단가 절약 강조

05.28.(화)

- ❑ 조선신보, 김치·맥주·화장품 등 북한 상품 ISO·HACCP 국제품질 인증 동향 보도

05.29.(수)

- ❑ 로동신문, 국산품 사용 및 질 제고가 애국활동임을 강조하는 논설 발표

05.30.(목)

- ❑ 로동신문, 적시 모내기로 쌀 증산 달성을 위해 농업부문 간부 및 근로자들에게 물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기사 게재(「생명수」)
- 우물, 굴포 형성, 보막이, 물주머니 제작 등 물원천 확보 강조
- 양수동력설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상시 점검 및 보수,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수방법 도입 강조

05.31.(금)

- ❑ 중앙통신, 40여개 우량 과일품종의 ‘국가품종’ 등록 보도

06.01.(토)

- ❑ 로동신문, 김정은의 강계시·만포시 강계뜨락또르(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 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 현지지도 보도
 - 동행: 조용원, 유진, 김용수, 현송월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김창선, 마원춘 등 국무위원회 간부
 - 영접: 강봉훈 자강도당위원장 및 각 공장 간부
 - 국가 기계제작공업 발전에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장들로 평가, 과학기술보급실 운영 통한 지식형 근로자 육성 강조, 공장의 개건현대화, 기술장비 및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 지시
 - 학생소년궁전의 준공 상황 점검, 형식주의, 요령주의, 날림식 설계 지적
- ❑ 김정은, 강계시와 만포시 건설총계획 지도
 - 참가자: 조용원, 강봉훈, 리형근(자강도인민위원장), 도·시별 행정 간부, 자강도 도시설계연구소 관계자
 - 구체적 도시설계계획에 입각한 건설 진행 강조, 지역 특색이 발휘되도록 건축형성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 지시
- ❑ 6.1 국제아동절 69주년 기념 친선연환(연합)모임 진행(대성산유회장)
 - 참가: 최휘, 태형철, 전광호, 김승두(교육위원장),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장춘실(여맹 중앙위원장) 및 관계자, 북한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 및 관계자, 북한체류 외국인

- 어린이 공연, 체육유희오락경기(운동회) 외 다수 행사 진행



- ❑ 장애어린이 6.1국제아동절 기념모임 개최(대동강구역체육관)
 - 참가자: 정현(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송향춘(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원장), 관계자 및 장애아동, 북한 주재 유럽연합 협조대표부 구성원 및 외국인
 - 예술소품공연 및 체육유희오락경기 진행

06.02.(일)

- ❑ 로동신문, 김정은의 평남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보도
 - 동행: 조용원, 홍영철, 유진, 김용수, 현송월, 김창선, 마원춘 등 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위원회 간부
 - 제품 생산의 프레스화, 고속도화, 무인자동화를 통한 제품 질 향상 강조
- ❑ 보천보혁명사 체육경기대회 개막(6.2-28, 혜산체육관 개막행사 진행)
 - 30여개 종목을 청년급, 성인급으로 구분하여 평양, 평성, 함흥, 사리원, 남포 등에서 진행
 - 참가자: 김일국(체육상), 이상원(량강도당위원장) 및 도내 관계자, 체육인

06.03.(월)

- ❑ 김정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6.2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당선작) 관람
 - 관람자: 최룡해,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김기남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 및 조선인민군 지휘관, 예술분야 관계자
-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5월1일경기장)
 - 김정은, 리설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조용원, 김여정, 리영식, 현송월, 권혁봉, 장룡식, 박춘남(문화상, 개막연설) 등 당 정 간부 및 평양시민
 - 김정은, 공연 창조성원(기획, 감독 등)들의 그릇된 창작창조기풍과 무책임한 사업태도에 대해 고강도 비판
- ❑ 로동신문 논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의미와 기능, 중요성을 강조
 - 적대세력의 제재 봉쇄 속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기실현을 위한 당적 영도 수행 강화와 전사회적 군중운동으로서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조직 강조
- ❑ 전국소년과학환상(SF)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 개막(6.3-7, 과학기술전당)
 - 전국 학생들 400여건 문예작품 및 모형 출품

- ❑ ‘세계금연의 날’ 토론회 진행(인민대학습당)
 - ‘담배통제법’ 올해까지 4차례 수정보충 등 금연 조치 강화

06.04.(화)

-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당선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인민무력성)
 - 참가: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 군 간부
- ❑ 로동신문, 김재룡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신원군 월당협동농장, 하성차바퀴공장, 국가정보화국 현지요해 보도
 - 노동자 기술기능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주문
 - 포전담당책임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농장원에 대한 작업과제를 하달 및 평가하고 과학기술에 입각한 영농작업 진행을 강조
- ❑ 중앙통신, 황해북도 산림관리국 산림검사검역소의 ‘모형항공기’ 이용한 병해충 구제작업 실시 보도

06.05.(수)

- ❑ 로동신문, 농업연구원 수의학연구소 실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수의방역대책 안내 보도
 - 증상의심 돼지 출몰 농가에서의 즉시 통보 및 격리차단조치 강조, 오염된 먹이(사료) 급여 통제, 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사업 강화 등 실효적 예방대책 소개
- ❑ 로동신문, 온성군의 1500 m^2 규모 체육관 건설 및 운영 보도
- ❑ 중앙통신, 서해안 중부이남·동해안 일부 지역, 가뭄현상 지속 보도

06.06.(목)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유학생 숙소 등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에 기여한 28개 단위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하는 정령 제51호 발표
- ❑ 조선소년단창립(1946.6.6.) 73주년 기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개최
 - 참가: 최휘, 김능오(평양시당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및 관계자, 박철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기념보고) 및 청년동맹 간부 및 경축행사대표 등
 - 세계적 과학자, 발명가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학생들의 토론 진행
- ❑ 조선소년단 창립 73주년 종합공연 ‘람홍색기발아래 300만은 자란다’ 개최(만경대학생소년궁전)
 - 관람 주요인사: 최휘, 박철민

06.08.(토)

- ❑ 로동신문, 금성식료공장 등 20여 단위 80여 제품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 보도
 - ※ 2월2일 등록 제도는 1981년 이후 북한에서 마련한 품질인증체계

06.09.(일)

- 중앙방송, 김정은 위원장 기상수문국 현지지도 5주년, '기상관측사업 성과' 보도
- 로동신문, 평안북도 신도군에서의 비행기 이용한 갈밭 비료 산포 보도



06.11.(화)

- 중앙통신, 김재룡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 영농사업 현지요해 보도
 - 발전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일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 강화 지시
 - 가뭄속 적기 모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장원 및 지원자 노고 치하
- '온실남새(채소)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 개막(6.11-26, 평양남새과학 연구소)

06.12.(수)

- 로동신문, 각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방지를 위한 수의비상방역사업 진행 보도
 - 지역 축산단위별 자체 수의약품 생산 이용사업 강조, 가축들에 대한 검진 및 축사 소독 진행,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국경검역사업 강화 등 촉구

06.17.(월)

- 중앙통신, 김재룡의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은산군에 위치한 평안남도양생원(장애인 복지시설) 준공식 개최
- 평양국제건강 및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막(6.17-21, 과학기술전당)
 -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100여 단체 출품 기능성 건강제품, 의약품, 진단 및 치료예방 기구 및 위생용품 전시
 - 개막식 참가: 최정호(과학기술전당 총장), 김정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형훈(보건성 부상) 및 관계자, 각국 대표단

06.18.(화)

- '김정일 당 사업 시작' 55주년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조선미술박물관)
 - 참가: 박춘남(문화상), 미술부문 종사자

06.22.(토)

- 로동신문 논설, 경영활동의 숫자화(디지털화)·과학적 계산 강조
- 중앙통신, 전국 벼 모내기 완료 보도

06.23.(일)

- ❑ 북한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 음악무용종합공연 개최(6.18, 평성시)
 - 참가: 김두일(평안남도당위원장), 강형봉(평안남도 인민위원장)
 - 장애자의날 기념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 ‘우월성’ 강조 예술행사 진행

06.24.(월)

- ❑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 준공
 - 참가자: 김능오(평양시당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최동명(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홍서헌(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및 관계자
 - 첨단기술제품생산 통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추동 강조
- ❑ 노동신문, 독일 ‘수자경제(디지털경제) 박람회’ 등 국제사회 ‘수자경제’ 사례 소개

06.26.(수)

- ❑ 노동신문 논설, 인민들이 ‘수입병’을 극복하고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산품 애용 균중운동 추진과 생산품의 질적 혁신 강조
- ❑ 노동신문, 전국 청소년학생들이 청년림·소년단림 조성사업 활발히 참가하여 3년간 8천만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 달성 보도

07.01.(월)

- ❑ 중앙통신, 박봉주의 평안북도 신도군 갈종합농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대계도·곽산간석지 및 흥건도간석지 현지요해 보도

07.02.(화)

- ❑ 중앙통신, 김재룡의 2.8직동청년탄광, 금포광산, 국가과학원 순천탄광기계공장, 해주만 중요 발전소건설장 현지요해 보도
 - 탄광에 통합생산체계 구축,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 및 신규 기술혁신안 도입 강조
 - 채광장 설비보수진행 및 과학에 기초한 경제사업 진행(최량화, 최적화) 강조

07.05.(금)

- ❑ 노동신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원림녹화사업(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지시 과업) 성과 보도
 - 1년간 35만 여 그루 나무심기 통한 녹지조성 사업 시행
- ❑ 중앙통신, 육해운성 해운과학연구소, 선박 배기가스 속의 유화물 제거 장치 연구 개발 보도

07.06.(토)

- ❑ 노동신문, 함경북도·함경남도 등 각지에서 그물우리양어장(가두리양식장) 건설 보도
 - 어랑천 팔향저수지에 자동조종체계(자동화설비) 갖춘 그물우리양어장 완공(2018년 7월 김정은 현지지도 지시 과업)
 - 함경남도 정평군에 1,000^m² 규모 그물우리양어장 신설

07.08.(월)

- ❑ 청년학생들의 회고음악회 ‘영원한 태양의 노래’ 진행(청년중앙회관)
 - 참가: 리일환(당중앙위원회 부장), 박철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및 청년동맹 간부

07.10.(수)

- ❑ 로동신문, 김재룡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성천군 읍협동농장 현지요해 보도
 - 공장설비 개건 현대화, 숫자화(디지털화) 생산공정 확립, 포전담당책임제 성과적 운영 관련 논의
- ❑ 중앙방송, 국제학술잡지에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의 60여 건 학술논문 게재 보도

07.12.(금)

- ❑ 로동신문, 박봉주의 금성간석지, 증산, 평원군 간석지 등 서해안의 간석지 건설정형 현지요해 보도

07.13.(토)

- ❑ 로동신문 논설, 삼지연군건설에 투입된 216사단 돌격대원들의 노고 치하 및 당창건 75주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것을 독려

07.15.(월)

- ❑ 로동신문, 김재룡의 황해남북도·남포시 농업 부문 사업 현지요해 보도
 - 은천군 은혜협동농장, 남포시 태성호, 온천군 보림협동농장, 은률군 원평협동농장, 황주군 석정협동농장 등 방문 및 요해 및 가뭄피해 대책 점검
- ❑ 함흥메기공장 준공식 진행
 - 참가: 김성일(함경남도당위원장), 김봉영(함경남도인민위원장), 관계자
 - 통합조종실, 부화동, 치어동, 과학기술보급실 등 시설 완비
- ❑ 전국단고기(개고기)요리경연대회 개최(7.15-18, 평양면옥)
 - 전국의 120여명 요리사 대회 참가, 민족 풍습에 맞는 개고기 요리 발전 및 대중 전파 목적으로 진행

07.16.(화)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농사실태 점검 및 룡매도 간석지 건설 정형 현지요해 보도
- ❑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최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7.16.-17. 과학기술전당) 진행
 - 건축공학기술 발전 관련 110여건 논문 제출

07.18.(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부선공정 개건현대화, 준공식 진행
 - 참가자: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웅(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당위원장) 등



- 로동신문, 제11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소식 보도
 - ※ 조선신보, 7.10-19 제11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소식 보도



07.19.(금)

- 로동신문, 김재룡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청진제강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명간군 립석협동농장 등 함경북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07.23.(화)

- 제8차 전국206가지일용잡화전시회 개최(7.23.-26. 평양역전백화점)
 - 전국 300여개 단위 생산 주방도구 및 전기 전자제품, 학용품 등 400여종 42,00여점 제품 출품
-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7.23-24, 과학기술전당)
 - 대학 및 과학원 등 17개 단위 교원, 연구자들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110여건 논문 제출 및 과학기술성과 경험 발표 진행

07.24.(수)

- 로동신문, 김재룡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정형 현지요해 보도
- 씨마스터 2019년 국제탁구연맹 챌린지 플러스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 개최(7.24-28, 청춘거리 탁구경기관)
 - 중국, 노르웨이, 태국, 이란, 인도 등의 선수 참가

07.27.(토)

- ❑ 정전협정체결 66주년 기념 공훈국가합창단과 만수대예술단, 인민극장과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 진행

07.30.(화)

- ❑ 로동신문, 박봉주의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순천보온재공장 등 순천시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07.31.(수)

- ❑ 로동신문, 김재룡의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은산탐사기계공장, 순천보온재공장, 평양제약공장 현지요해 보도
- ❑ 로동신문 논설, “사회 모든 성원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사업 강조
 - 구비된 여건(12년제 의무교육, 원격교육체계 수립 및 과학기술보급실)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무진의 역할 수행 촉구
- ❑ 로동신문, 농근맹 중앙위원회 주최 2019년도 생산 과일맛품평회 개최 보도

08.04.(일)

-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8.4-8, 평양제1백화점)
 - 25,000여종 385,700여점 소비품 출품
 - 조영철(지방공업상), 개막사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통한 신규 우수상품 생산 독려



- ❑ 로동신문,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가 최근 개발한 CNC장치, 사보구동장치 (servo motor_자동기계장치를 가동하는 모터, 서보모터) 및 생산 공정의 자동화 성과 보도

08.05.(월)

- ❑ 중앙통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미래과학기술원 건설 보도

08.06.(화)

-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증보판」(1946년 4월-7월 발표된 저작, 연설 103건 수록) 제6권 출판
- ❑ 전국 경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막(8.6-9, 과학기술전당)
 - 경공업부문 원료·자재 국산화 및 재자원화 관련 400여건 논문 및 1,500여점 전시품 제출
-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성과 사진전시회 개막(8.6.-8, 인민문화궁전)
 - 참가: 김영재(대외경제상),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진진(북한주재 중국 대사)
- ❑ 청춘거리 체육인숙소 준공식 진행
 -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 준공사를 통해 김정일 유훈 관철 및 국가 대표 선수 및 감독의 향상된 체육경기성과에 대한 기대감 표명 및 체육과학기술정보사업 강화 당부
- ❑ 평양기계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전국과학토론회 개최(8.6-7)
 - 기계공학, 재료공학, 운전(수송) 및 동력기계, 에너지, 전자자동화, 정보기술, 역학, 기초과학분야의 600여 논문 제출 및 경험교환 진행

08.08.(목)

- ❑ 로동신문, 김재룡, 단천마그네사공장, 단천제련소, 단천광산기계공장, 룡양광산,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및 제3선광장, 허천군 수의협동농장 현지요해 보도
 - 에너지절약형 생산공정 전환을 통한 증산 강조
 - 경영, 기업전략 정립 및 실리에 맞는 경제조직 및 지휘 강조

08.09.(금)

- ❑ 로동신문, 김재룡 삼지연군 백두산종합박물관, 삼지연군문화회관, 삼지연군인민병원, 호텔 등 현지요해 보도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건설법' 일부내용 수정·보충
- ❑ 개건된 평양타조목장 준공식 진행
 - 110여개 타조우리, 과학기술보급실, 체육관, 타조고기가공공장, 부화실 등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완료
 - 참가: 리만건(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영호(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 공장 관계자

08.10.(토)

- ❑ 로동신문, 김재룡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흥남제약공장 현지요해 보도
- ❑ 로동신문 사설, 전체 당 구성원들에게 환경보호사업 동참을 강조
 - 대기, 강하천, 바다오염 방지 투쟁을 독려하며 건설시 환경보호대책 강구, 기업소에 제진, 밀폐, 배풍장치 설치(먼지방지대책) 및 보수정비,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 정화를 위한 정화시설 점검 및 침전지 구축 강조
 - 국토환경보호성 및 각급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사업 강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강화 촉구

08.11.(일)

-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26권(1975년 5월-10월 발표 연설, 담화, 저작 등 62건 수록) 출판 보도

08.12.(월)

- ❑ 로동신문 사설, 제재·봉쇄 국면속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 등 ‘신년사 과업’ 관철 강조
- ❑ 평양빠스공장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
 - 참가: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룡(평양빠스공장 지배인, 보고) 및 관계자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운전기계공업부문 현대화공사 우수단위 치하)
- ❑ ‘제9차 라선 국제상품전시회’ 개막
 - 북한,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각국 100개 단위 출품 건재, 경공업제품, 식료일용품, 의약품 등 전시
 - 참가: 조정호(라선시인민위원장),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활동가 및 관계자

08.13.(화)

- ❑ 로동신문, 김재룡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대안친선유리공장 현지요해 보도
- ❑ 로동신문, 숫자 및 통계를 강조하는 기사 게재
 - 경제성 평가(“치밀한 타산”)에 입각한 과학적 경제건설 촉구

08.16.(금)

- ❑ 두만강 하류, 홍수(큰물) ‘1급 경보’ 발령
- ❑ 로동신문, 박봉주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 현지요해 보도
 - 장비 및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을 통한 전력 증산 강조

08.17.(토)

- ❑ 중앙통신, 두만강 하류 홍수(큰물) 경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두만강 하구 구간에 홍수 ‘특급 경보’ 발령

08.18.(일)

- ❑ 운산메기공장 준공식 진행
- ❑ 로동신문, 평성의과대학, 수술화상원격교육실 신규 설치 보도
 - 평안남도인민병원 수술실-도산원 수술실과 네트워크 연결 통한 실시간 화상자료 송수신 체계 구비, 실시간 수술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개
- ❑ 국가품질감독체계 수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08.19.(월)

- ❑ ‘전국 가구 및 건축장식 부문 과학기술성과 전람회 2019’ 개막(8.19-26, 과학기술전당)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및 참가자
 - 가구 및 건축장식과 관련된 50여 단위 300여건의 연구성과 및 제품 전시

08.20.(화)

- ❑ 로동신문 정론, “전인민이 삼지연 열풍에 화답”하여 자력갱생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달성할 것을 강조
- ❑ 중앙통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에 ‘녹색건축기술’ 도입 보도
- ❑ 전국 에너지 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8.20-23, 과학기술전당)
- ❑ 전국유색금속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문평제련소), 수산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원산수산대학) 개최(8.20-22)
 - 기업소 현대화 및 제련실수률(광물 생산량) 및 제품 질 증가, 수산업 발전에 관한 210여건 논문 제출
- ❑ 전국 지진 및 화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8.20-21,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질학연구소, 지진연구소, 화산연구소 관계자 참가
 - 지진 및 화산감시·예측·관측의 현대화와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논문 발표
- ❑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8.20-21, 과학기술전당)
- ❑ 함흥수리동력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전국 수리동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8.20-21)
 - 400여건 논문 제출·평가 및 과학기술발전 성과 기술교류활동 전개
- ❑ 로동신문, 허천군의 해바라기 심기 군중운동 통한 해바라기유 생산 및 경제적 성과 달성 보도

08.21.(수)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 등 43곳의 설비·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모범단위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하는 정령 제95호 발표
- ❑ 로동신문 사설,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노동생활기풍을 확립할 것을 주문
 - 근로자의 노동기풍 확립을 위한 당 및 근로단체의 사상교양 강화, 비사회주의의 검열을 위한 사상전 전개, 노동법 및 노동규정에 입각한 노동생활의 규범화 및 정규화 추진, 충분한 노동생활여건 보장을 통한 대중의 투쟁열 고양 등 세부 방안 제시
- ❑ 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전국 철도운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8.21-22)
 - 철도운수부문 580여건의 연구논문 및 전시품 제출

08.22.(목)

- ❑ 김정은,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 발표
 - ※ 예정된 14차 전국교원대회를 국가 교육사업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 과학기술형 인재육성, 지식형 근로자 육성을 위한 교육의 과학화·정보화 실현 촉구

08.26.(월)

- ❑ 노동신문, 박봉주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요해 보도
- ❑ 전국 청년 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8.26-29, 청년중앙회관)
 - 550여건 과학기술성과자료 및 기술혁신안 출품
 - 참가: 최휘(당부위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박철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및 청년동맹 간부
- ❑ 해주김치공장 준공식

08.27.(화)

- ❑ 노동신문, 김재룡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양빠스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현지요해 보도
 -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로봇화 강조
- ❑ 전국도서관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최(8.27-29,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 평양시 및 각 도에서 우수 평가된 제안 및 30여개 단위의 80여건 논문 제출
 - 도서관사업을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 논의
- ❑ 국가창건 기념 성, 중앙기간 일군 체육경기대회 개막(청춘거리 농구경기관)
 - 참가: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개막연설), 전광호(내각 부총리)
 - 참가 선수들에게 전 사회에 체육열풍을 고조시킬 것을 당부

08.28.(수)

- ❑ 노동신문, 청년절(8.28.) 28주년 기념 사설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 발표

08.29.(목)

- ❑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원격교육학부 제1기 졸업식 진행, 졸업생 97명 배출
 - 노동신문(9.2), 지식형 근로자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동력 확보 평가

08.30.(금)

- ❑ 전국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교육지원전시회 개막(8.30-9.6, 과학기술전당)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해 자체 제작된 3,100여종 실험실습설비·기구와 1,800여점 교편물 출품(제 14차 전국교원대회 기념 전시회)
 - 각 성·중앙기관에서 6만여 점 설비 및 기구를 전시회에 기증하며 교육지원열풍에 동참

08.31.(토)

- ❑ 로동신문, 김정은의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도도 보도
 - 동행: 최룡해, 김여정, 조용원, 현송월, 마원춘 등 당·정 간부
 - 영접: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육군 중장) 및 건설부대 지휘관
 - 12월까지 준공 및 운영되도록 지시

09.01.(일)

- ❑ 평양기계종합대학·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함흥수리동력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각각 진행
 - 평양기계종합대학: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홍철진(평양시당 부위원장)
 - 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혁(철도상)
 - 함흥수리동력대학: 김성일(함경남도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심영일(대학 초급당위원장)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인재육성 및 국가경제 과학화·현대화에 기여한 개별 대학 치하 및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독려)
- ❑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청진광산금속대학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
 -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봉석(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참가)
 -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근석(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 청진광산금속대학: 리히용(함경북도당위원장)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경공업, 상업, 공업 등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분야의 과학기술인재육성에 기여한 성과 치하)

09.02.(월)

- ❑ 국제첨단기술상품 전람회 개막(9.2-6)
 - 참가: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리명환(건설건재공업성 부상, 개막연설을 통해 북중친선관계 강조 및 경제협력과 교류 강화 언급) 및 관계자
 - 첨단기술 도입된 인공지능제품, 전자, 건재, 경공업제품 및 가정용품 출품
- ❑ 로동신문, 해산시 도시정비사업 보도



09.03.(화)

❑ 제14차 전국교원대회 개최(평양체육관) 이슈 분석

- 13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축적된 교육분야의 성과와 결함을 분석,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천문제 토의
- 김정은 위원장의 교육사업 관련 8.22 담화 전달
- 참가: 김재룡(내각 총리),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최동명(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각 도당위원장 및 모범 교육일군, 교원
- ❑ 로동신문, 김재룡의 서해갑문-신천-강령, 웅진물길 1단양수장, 은률군 읍협동농장, 서곡협동농장,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등 황해남도 농업부문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 농업용수 보장 실태 점검, 지역별 자연에너지 활용 강조
- ❑ 전국 각·관 및 호텔들 사이 요리경연 진행(9.3-5, 함경남도 신흥관)
- 지방 특산 요리 경쟁력 강화 및 봉사단위(국영 식당) 경쟁력 향상 목적 40개 팀 참가

09.04.(수)

- ❑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 김정은 위원장 저작 해설, 모범단위 경험 소개,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통한 학생 주도의 교육방법 도입 및 이를 위한 교원의 능력 함양 강조
- ❑ 제17차 전국조선옷(한복)전시회 개막(9.4-6, 청년중앙회관)
- 교원, 기능공, 학생, 가정부인 등 제작 700여점의 의복 및 70여점 갓신(가죽신)류 출품
- 참가: 전광호(내각 부총리, 개막연설 통해 민족풍습 장려 및 우리식 의복문화 확립 강조)

09.06.(금)

- ❑ 김정은,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와 기념사진 촬영

09.07.(토)

- ❑ 중앙방송, 제13호 태풍 상륙지역·이동경로·예상 강수량 등 실시간 보도

09.10.(화)

- ❑ 중앙방송, 함흥시 회양2동 지구에 18동 584세대 새 살림집 건설 보도

09.11.(수)

- ❑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전국과학토론회 개최(9.11-12)
- 인민봉사부문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 실현을 위해 작성된 230여건의 논문 제출 및 경험교환 진행
- ❑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9.11-12,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 생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된 190여건 논문 발표

09.12.(목)

- ❑ 황해북도양생원(장애인 복지시설) 준공식 진행

09.14.(토)

- ❑ 로동신문, 김재룡의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 현지요해 보도
- 기업소의 자동화, 현대화 강조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구현을 위한 대책 논의

09.15.(일)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황해남도지역 태풍 피해 입은 여러 협동농장 현지요해 보도
- 피해복구중인 간부 및 근로자 격려, 피해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 보장 강조

09.16.(월)

- ❑ 중앙통신, 중앙계량과학연구소, 현대적 화재경보기와 광전비색계 개발·도입 보도

09.17.(화)

- ❑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개막(9.17-19)
 - 종자, 비료, 물문제, 농업의 기계화와 관련된 300여건 논문 제출 및 최근 농작물재배 방법, 기술, 미생물농약 발전추세 등 농업분야 과학기술 강의 진행
-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9.17-19)
 - 금속, 화학재료부문 100여건의 논문 및 60여종의 전시품 출품, 금속재료 및 화학재료에 대한 연구, 응용, 개발전망과 관련된 영상 시청 진행
-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개막(9.17-19, 사리원시)
 - 축산정책을 연구한 80여건 논문 제출(공동축산 및 개인부업축산의 종자, 먹이, 수의방역 부문 관심 집중)
-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모임 진행(과학기술전당)
 - 참가: 임철웅(내각 부총리), 리용선(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및 위원회 집행위원), 각국 무도대표
 - 무도대회를 통한 각국의 친선협조관계 강화 및 위원회 발전 강조

09.19.(목)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평양시내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 현지요해 보도
 - 선진영농방법 도입 통한 알곡 증산, 용배수체계 확립 및 영농기술 신장 사업 추진 강조
- ❑ 제11차 전국 가설 및 착상발표회 진행(9.19-20, 원산시·사리원시)
 - 인민경제 활성화, 농업분야 증산, 경공업 원·부자재 국산화, 정보·생물공학 발전을 연구한 400여건 가설 및 착상 소개

09.20.(금)

- ❑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9.20-27, 평양국제영화회관)
 - 참가: 전광호(내각 부총리),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정영남(국가영화총국장) 및 영화·예술부문 관계자 및 해외 초청 내빈 및 심사위원
 - 이란예술영화 「굴 따는 날」 최우수영화상 수상

09.21.(토)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공장, 경흥은하 수식료공장, 만경대경흥식료공장 등 평양시에 위치한 식료공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보도
 - 생산하는 식료품의 질 향상 강조 및 공장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기업전략 수립 논의
- ❑ 로동신문,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27권(1975.11-1976.5 발표 담화, 연설 등 65건 수록) 출판 보도

09.23.(월)

- ❑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참가: 안정수(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안경근(평안북도당 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영(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 및 공장 간부·종업원
 -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화장품공업을 선도하는 본보기공장으로 지칭
 - 화장품생산의 국산화, 재자원화 추진 및 신규 고품질 화장품 생산 결의
- ❑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진행(9.23-27, 평양체육관)
 - 참가: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박웅식(조선국제전람회 사장) 및 외국 대표단
 - 참가 국가들의 자주·친선·공동발전 및 번영 강조 속 양자, 다자협조 강화 언급

09.24.(화)

- ❑ 로동신문, 박봉주의 영광군·장진군 태풍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사업 대책 토의 및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모방직 공장, 함흥메기공장 등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 태풍피해복구 작업 투입 근로자 독려, 생산활성화를 위한 과학 경영전략·기업전략 수립 강조
- ❑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9.24-25, 과학기술전당)
 - 건설 재료 및 도시경영부문을 연구한 80여건의 논문 발표

09.25.(수)

- ❑ 중앙통신, 청진샘물공장 개건 준공식 보도

09.26.(목)

- ❑ 로동신문, 김재룡의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량책베아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방직공장, 12월5일청년광산, 봉화화학공장, 신의주마이싱공장 등 평안북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 생산 공정 현대화, 신제품연구개발, 추수준비 강조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및 신의주방직공장 시공설계 및 자재보장대책 수립 강조

- ❑ 로동신문 논설, 개인주의, 가족이기주의 극복을 강조하며 “가사 위에 국사 있다” 구호를 제시
- ❑ 중앙방송, 함경북도 명천메기종어장 준공식 보도
-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과학성과전시회 개막(9.26-30)
 -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추진 및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연구된 수백 건의 성과 자료(교과서, 참고서, 교육지원프로그램, 첨단실험기구 등) 출품
- ❑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 개막(9.26-30, 평양국제문화회관)
 - 리순철(문화성 부상), 국가 악기공업 발전 및 예술발전을 독려하는 개막연설 진행
 - 50여종 800여대 악기, 40여종 700여점 부품 출품
- ❑ 김정일의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1979.9.28) 기념보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기념보고), 중앙·지방 예술선전대·기동선전대 대장 및 모범 경제선동대원
 - 중요대상건설장 및 인민경제 중요부문 경제건설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동의지 고양을 위한 선전활동 강조

09.27.(금)

- ❑ 만수대예술단 조직 50주년(1969.9.27.) 기념보고회(동평양대극장)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철(만수대예술단 단장) 및 만수대예술단 소속 간부
 - 특색 있는 공연활동을 통한 경제건설 고무추동 성과 창조를 강조

09.28.(토)

- ❑ 중앙방송,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살림집 수백 세대 신축 보도

09.29.(일)

- ❑ 로동신문, 박봉주의 평성관개기계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 등 평안남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 보도
- ❑ 대동강식료공장 설립 10주년 기념보고회
 - 참가: 안정수(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봉석(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 당중앙위원회, 국주(평양소주)를 생산하는 식료공업 표준공장이라 치하

09.30.(월)

- ❑ 김재룡, 평양자동화기구공장, 평양고무공장, 장산광산, 평양연마석공장 등 현지요해
 - 과학기술·지식 주도형 경영관리체계 확립 및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의 변화 주문
 - 에너지절약, 인건비 절약형 생산 공정 도입을 통한 제품생산원가 절감 및 제품 질 향상 주문

10.01.(화)

- ❑ 전국 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2019 개막(10.1-4, 과학기술전당)
 - 참가: 전광호(내각 부총리),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관계자
 - 생산공정의 로봇화와 관련하여 제작된 로봇 및 기계요소, 구동장치, 조종프로그램이 전시 및 과학기술성과발표와 기술교류사업 전개

10.03.(목)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 보충
- ❑ 전국 주민연료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10.3-8, 과학기술전당)
 - 참가: 전광호(내각 부총리, 개막사) 등
 - 주민연료부문 정보화, 대체연료 및 연료첨가제, 착화제와 관련된 240여건 연구결과 및 제품 출품

10.04.(금)

- ❑ 자강도 체육인숙소 건설 준공식 개최
 - 참가: 김장원(자강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형근(자강도인민위원장), 체육 관계자

10.06.(일)

- ❑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농촌마을 살림집(주택)이용허가증 수여 모임 개최
 - 대상: 양덕군 온정리, 삼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 법동군 상서리 등 6개 마을
 - 참가: 박정남(강원도당위원장), 김두일(평안남도당위원장), 강형봉(평안남도인민위원장), 한상준(강원도인민위원장) 및 관계자

10.07.(월)

- ❑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기념보고) 및 관계자
 - 시대 전형 창조 및 모범 따라배우기의 시원을 김정일이 1979년 10월 7일 발기한 군중운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

10.08.(화)

-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2주년 기념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동평양대극장)
 - 참가: 박봉주, 리만건, 김평해, 최휘, 태형철 등 당 고위 간부
- ❑ 강계교원대학 준공식 개최
 - 참가: 김장원(자강도당부위원장), 리형근(자강도인민위원장)

10.09.(수)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종자연구개발원) 농장 현지 지도
 - 동행: 박봉주, 박태덕, 박태성, 김여정, 조용원, 김용수, 리정남, 현송월, 손철주(총정치국 부국장, 육군 상장)
 - 김정은, 농업과학연구부문 성과 달성을 위한 인적·물적지원 강조 및 농업생산량 증가를 위한 종자 개발 및 영농방법 연구 지시



- 로동신문, 김재룡의 희천 10호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개천탄광, 개천탄광기계 공장, 천성청년탄광, 문천발브(밸브)공장 등 전력·석탄공업부문 현지요해 보도

10.14.(월)

- 중앙통신, 김재룡, 동평양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조양탄광 현지요해 보도
 - 동계 화력발전소 보온대책 강구, 표준 조작법과 기술규정에 입각한 발전소 운영 강조
 - 탄광 자체적으로 갱목생산을 위한 임지 조성사업 전개 및 신규 탄발(탄층) 개발 독려
- 제1차 청진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210여단위에서 출품한 경공업, 식료품, 일용품, 의약품 전시
 - 참가: 박경수(함경북도인민위원회 사무장)

10.15.(화)

- 로동신문 정론, 군민대단결(군대의 건설현장 투입)을 통한 북한 사회 발전상 언급
- 전자공업성, 산하단위들에서 새로 개발한 가정용전기제품들에 대한 전시회 진행 (10.15.-31)
 - 전기밥가마(밥솥), 가정용냉동기, 자동조명알림시계, 액정(LCD)텔레비전, 원격선(무선) 선풍기, 증기(스팀)다리미, 전기적쇠, 수자식(디지털)텔레비전안테나, 전기가열식신선로, 가정용극동기(냉동고), 오존발생기, 점적액가온기, 보온국통 등의 제품 전시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강원도에서 토끼기르기 경험」 등 과학영화 4편 창작 발표(중앙통신)
- 해산-삼지연 철길 개통식, 위연청년역에서 진행

10.16.(수)

❑ 로동신문, 김정은의 삼지연군 건설장 현지도 보도

- 동행: 조용원, 김여정, 리정남, 유진, 박성철, 홍영성, 현송월 등 당 간부 및 마원춘(국무위원회 설계국장)
- 영접: 양명철(삼지연군위원장), 216사단 현장지휘관
- 김정은, 삼지연군 건설은 제재 국면 속 북한 자력갱생 노선 승리의 상징임을 강조

❑ 제23차 전국 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10.16-23)

- 참가: 최휘(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춘식(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 전국 300여개 단위에서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 체육기자재, 측정기구, 의약품 및 영양제, 도서, 논문 등 1040여점 전시

10.17.(목)

❑ 황해북도 성산목장 준공식 개최

10.18.(금)

❑ 로동신문, 김정은의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 현지도 보도

- 동행: 조용원, 김여정, 리정남, 유진, 박성철, 홍영성, 현송월, 마원춘
- 김정은, 반궁룡식 2중박막온실(반원형의 이중 하우스) 조성 강조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과학농사 도입 지시



❑ ‘가을철 전국신발전시회-2019’ 개막(10.18-25, 평양역전백화점)

-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서천해동공장,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 50여개 단위 1,300여종, 185,000여점 제품 출품
- 참가: 임철웅(내각 부총리), 최일룡(경공업상)

❑ 수성천종합식료공장 강냉이가공분공장, 청진김치공장 준공식 개최

❑ 장애자예술단 중국방문 귀환 공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10.19.(토)

❑ 로동신문, 박봉주의 곡산군 무갈협동농장, 평암협동농장, 신계군 읍협동농장, 구락협동농장, 지역 량정사업소, 신곡저수지,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등 현지요해 보도

- 농업의 기계화 비중 증가 강조, 양어사업소 개건공사 추진 협의
- 로동신문, 전국 화력발전소의 “고온공기연소안정화 및 무중유착화기술”도입을 통한 화력발전 효율 향상 보도

10.20.(일)

- 평성샘물공장 준공식 20일 진행

10.22.(화)

- 평양외국어대학 설립 70주년 기념 전국 외국어부문 과학토론회 진행(10.22-23)
- 140여건 논문 제출 및 외국어 교수법 향상을 위한 토론·경험 교환활동 진행

10.23.(수)

- 로동신문, 김정은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도 보도 **이슈 분석**
 - 동행: 장금철(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조용원, 리정남, 유진, 홍영성, 현송월, 장성호,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마원춘(국무위원회 국장)
 - 노후된 금강산 관광시설 비탄 및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추진 지적
 - 남측과 합의하 시설 철거 및 재개발 지시
- 중앙통신, 유엔아동기금 협조로 건설된 ‘자연흐름식 상수도시설’ 준공식 개최 보도

10.25.(금)

- 로동신문, 김정은의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점검을 위한 현지도 보도
 - 동행: 장금철, 김여정, 조용원, 리정남, 유진, 홍영성, 현송월, 장성호, 마원춘
 - 영접: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육군중장) 및 건설지휘부 고위 간부
 - 김정은, 전반적인 건설 상황 만족 표시 및 군인건설자들의 노고 치하 및 해외 온천문화 발달 해외 국가들의 서비스를 배울 것을 지시
 - 금강산관광지구와의 대조를 통해 사회주의건축의 ‘우월성’ 과시
- 로동신문, 박봉주의 대안천선유리공장,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숙천군 칠리농장,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등 현지요해 보도
 - 에너지 절약형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의 진행, 협동농장단위들에 적기 수확을 위한 노력 당부, 연구소에 우량품종 과일나무 육종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언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 일부 내용 수정·보충

10.26.(토)

- 로동신문, 김재룡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흑령탄광,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광기계수리공장 현지요해 보도
 - 막장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탄 증산 촉구 및 중소탄광 관리운영의 개선을 통한 겨울철 전력생산 정상화 논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건설법 제33조와 제53조 수정·보충 발표

10.27.(일)

- ❑ 로동신문, 김정은의 묘향산의료기구공장 현지지도 보도
 - 동행: 김여정, 조용원, 리정남, 홍영성, 현송월, 장성호, 강봉훈(자강도당위원장), 마원춘
 - 영접: 박광철(평안북도당 부위원장), 공장 관계자 및 공장개건현대화 상무 간부
 - 김정은, 공장 현대화 추진 상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 지시, 의료기구 제작에서 최신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 강조
- ❑ 원산시, 모체양묘장 새로 건설
- ❑ 로동신문, 수화 학습프로그램 우리 동무 1.0 개발 보도

10.28.(월)

- ❑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대회소집 25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 중앙통계국, 인구연구소, 북한 주재 유엔인구기금 대표, 세계식량계획 대표 등 참가
- ❑ 제2차 평양국제녹색건축(친환경건축자재) 및 가구 전람회 개막(10.28-31)
 - 참가: 김영재(대외경제상), 오철룡(대외경제성 부상), 김철훈(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웅식(조선국제전람회 사장 및 관계자)
 - 대회참가자들, 친환경건축자재를 통한 생태보호효과와 과학기술교류를 통한 참가국들 사이의 친선 교류 강화 언급
- ❑ 북중 건강 및 체육 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막식(10.28-11.1)
 - 참가: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최정호(과학기술전당 총장), 황상호(체육성 부상) 및 관계자, 중국 참가자
 - 건강 및 체육과학기술과 관련된 성과 교환 및 교류 진행
- ❑ 전국 전자자동화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10.28-30)
 - 210여건 논문 평가회, 서보모터체계(자동기계체계) 개발·설계에 관한 강의 진행
-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 진행(10.28.-11.1)

10.29.(화)

- ❑ 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전국 자연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참가: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1부상), 김성남(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개막사)
 - 자연보호 성과도출을 위해 연구된 205여건의 논문 제출
- ❑ 전국 칠감(페인트)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10.29-30)
 - 마감재 국산화 연구 90여 편 논문 평가회, 기능성페인트 및 현대제품도장공정 강의 진행
- ❑ 전국 버섯재배기술경험 발표회 진행(10.29-30)
 - 버섯재배기술경험 교환, 발표 및 강습회 진행
- ❑ 용악산지구 용봉약품공장 준공식 개최

10.30.(금)

- ❑ 로동신문, 박봉주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평안남도 전력·석탄공업부문 현지요해 보도
 - 동계 대비 석탄생산 정상화 대책 강구 지시
- ❑ 전국 미꾸라지요리경연 개최(평양면옥)

11.01.(금)

- ❑ 강계시 장자강 유역 홍주청년 5호발전소건설 착공식 진행
 - 참가자: 강봉훈(자강도당위원장, 착공사), 리형근(자강도인민위원장), 관계부처 간부 및 근로자
- ❑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 개막(11.1-7)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장), 리명철(국가정보화국 국장, 개막사)관계자 및 근로자
 - 1,600여건의 정보기술성과, 정보기술제품 전시, 프로그램 경연, 제품 및 기술발표회, 로봇 축구경기 등 진행

11.02.(토)

- ❑ 로동신문, 김재룡의 배천군 오봉협동농장, 연안군 풍천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평성시 자산협동농장, 온천군 석치협동농장,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 등 황해북도 와 평안남도 및 남포시 현지요해 보도
 - 협동농장별 선진영농법 도입, 지하수원천 확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정확한 시행 강조 및 적기 수확을 위한 탈곡기 가동 준비 강조

11.04.(월)

- ❑ 로동신문, 김정은의 전력문제 해결의 전국가적인 사업화 지시 보도
 - 어랑천발전소,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조·수력과 풍력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하라고 지시

11.05.(화)

- ❑ 로동신문, 최룡해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 현지요해 보도
 - 마감공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 가운데 계획된 기일에 끝낼 것을 당부

11.06.(수)

- ❑ 로동신문, 평양건축대학에서 연구개발한 ‘분열주입에 의한 댐 보강공법’ 개발 및 개천-태성호 개건 현장에의 도입 보도
- ❑ 개건 현대화된 사리원포도술(와인)공장 준공식 개최
- ❑ 제38차 윤이상음악회 개최

- 공연: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균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 참가: 최홍남(문화성 부상), 예술부문 간부, 종사자 참가
- 윤이상, 베르디 작곡 작품들 연주
- 로동신문, 「김일성 전집 증보판」 제7권(1946.8-10 발표된 연설, 담화 107건 수록) 출판 보도

11.07.(목)

- 노동신문,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개발 연료 첨가제, 전력공업성 개발 계통병열형 역변환기, 국가과학원 제작 공기정화소독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개발 나노재료 생산용 초음파처리기 등 2019년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된 상품 소개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일용화학공학부의 파수지 재생 원료 이용 첨가제 연구 완성,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의 식료부분, 제약부분, 농업부분을 비롯한 나노재료 다량생산 강력초음파처리기 제작완성 및 3차원 인쇄기, 붓글연습천(먹물이 필요 없는 붓글씨연습 특수 서예지), 읽기펜 제품 개발 보도
- 전국여맹간부 및 여맹원 ‘토끼기르기경험토론회’ 개최
 - 당의 토끼기르기 군중운동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끼사양관리(사육) 우수사례 소개 및 학습을 위한 발표회 진행

11.08.(금)

- 로동신문,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종자연구개발원) 농장현지도에서 지적인 과학기술중시관점과 태도를 국풍으로 확립하는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중시기풍 확립과 당원들의 솔선수범 강조
- 제50차 예술인체육대회 개최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인범(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 로동신문 보도, 대회가 예술인들의 작품 창작의지 고취 목적으로 진행됨을 소개

11.09.(토)

- 로동신문, 김재룡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2.8직동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 세포지구 축산기지 및 군민발전소건설장 현지요해 보도
- 겨울철 전력생산 정상화, 철강재 증산, 기업소 생산, 경영전략 수립 강조

11.10.(일)

- 로동신문, 2019년 110여개 생산 공정의 관리체계 인증 및 백여 점 제품에 ‘2월 2일 제품’ 등록 인증소식 보도
- 산림기자재공장 준공
 - 참가자: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관계자, 공장 근로자, 공장 건설자 등

11.11.(월)

❑ 전국화장품전시회 개막(11.11-18)

- 참가: 리강선(일용품공업상), 계획남(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출품 단위 종사자 및 관계자
- 930여종 137,000여점 화장품 및 80여종 향료 전시 및 화장품공업부문 연구 성과 자료 60여 편 소개

❑ 평양국제농업 및 식품전람회 개막(2019.11.11.-14)

- 국내외 60여개 회사 참가, 농식품분야 제품 및 과학기술자료 전시
- 참가: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개막사)출품 단위 간부 및 참관인

11.12.(화)

❑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19 개막(11.12.-15)

- 인공위성, 천체물리학 및 우주 관련 과학기술을 연구한 180건 논문 전시회 진행
- 참가: 계획남(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현광(조선우주협회 부위원장)

11.13.(수)

❑ 제30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평양제1백화점)

- 참가: 임철웅(내각 부총리), 최일룡(경공업상), 조영철(지방공업상), 리강선(일용품공업상), 참가 단위 간부 및 관계자
- 600여 공장, 기업소 생산 41만여점 인민소비품 출품

❑ 전국 채취기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석탄증산을 목적으로 쓰여진 110여건의 논문 출품 및 평가회 진행

❑ 로동신문 보도,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석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 등 12편의 과학영화 창작 소개

11.15.(금)

❑ 로동신문, 김정은의 양덕온천관광지구건설장 현지도 보도

- 동행자: 장금철, 조용원, 현송월, 한광상 등 당 간부 및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육군 중장), 건설 지휘부 고위 간부
- 김정은, 이전 현지도에서 지시한 과업(10.23) 결과 점검 및 향후 복합 휴양 레저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지시

11.20.(수)

❑ 로동신문, 김재룡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명간화학공장 현지요해 보도

11.21.(목)

❑ 로동신문, 박봉주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 가금연구원 알용닭연구소 현지요해 보도

- ❑ 로동신문,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 불구 ‘올해 농사 좋은 결실’ 주장 및 “다음 해 농사차비에 모든 힘 총동원, 총집중” 강조
- ❑ 중앙통신, 전국인삼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진행 보도

11.25.(월)

- ❑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개막(11.25-29)
 - 240여 단위 출품 2,500건 의학과학연구성과 전시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개막사), 김형훈(보건성 부상) 및 관계자
- ❑ ‘제9차 전국 술 및 기초식품전시회’ 개막(11.25-29)
 - 16,000여점 주류 및 식품 전시
 - 조영철 지방공업상, 개막사에서 식료품 질 개선 및 세계적 경쟁력 보유한 제품 생산 강조

11.26.(화)

- ❑ ‘전국 농업부문 기술경험발표 및 과학연구 성과 전시회’ 개막(11.26-29)
 - 400여종 1,600여종의 신규 개발된 농산물 종자 및 의약품 전시
 - 참가: 고인호(내각 부총리, 농업상, 개막사), 박태덕(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승두(교육위원장), 김광욱(농업연구원 원장)
- ❑ 김일성 저작 「사회주의 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40주년 및 김정일 저작 「노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기념사), 윤강호(노동상)
 - 로두철, 기념사에서 노동생활의 정규화·규범화 통한 노동정량의 제정 및 노동조직 개선을 통한 사회주의노동행정사업 개선 강조

11.28.(목)

- ❑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 및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 개최
 - 참가: 리룡남(내각 부총리), 최동명(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최상건(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및 고등교육상)

12.01.(일)

- ❑ 안주121호종이공장창립 4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자: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순철(공장초급 당위원장, 보고), 공장 일군 및 종업원
 -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의 현대화 강조

12.02.(월)

❑ 김정은,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 참가

- 참가: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내각총리),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동정호(내각 부총리), 이상원(량강도당 위원장), 박훈(건설건설공업상), 양명철(삼지연군당위원장), 박정천(인민군 총참모장), 군인건설자 및 근로자, 관계자 등
- 최룡해, 보고를 통해 삼지연군 읍지구의 건설은 제재 속 자력갱생노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성과임을 강조



12.03.(화)

❑ 김정은, 중평남새(채소)온실농장, 양묘장 조업식 참가

- 참석: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업사), 박태덕(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히용(함경북도당위원장), 신철웅(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장), 중평농장 및 양묘장 관계자
- 김정은, 채소의 질 담보를 위한 선진과학기술 도입 강조 및 이를 위한 도 안의 온실농장들 사이의 경쟁 및 과학농사정형판정 관례화 지시

❑ 제35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 과학기술에 관련된 250여건 연구성과 및 착상 출품
- 참가: 최상건(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고등교육상) 및 대학 관계자, 축전 참가자 등

❑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개막(12.3-6)

- 80여개 단위 참가, 수산부문 관련 23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 전시
- 참가: 리룡남(내각 부총리), 송춘섭(수산상, 개막연설), 계획남(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시회 관계자

❑ 농업성·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공동주최 ‘공농사성과발표회’ 개막(12.3-6)

-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등 40여개 단위 참가, 공농사의 과학화와 관련된 100여건의 논문 출품
- 참가: 계획남, 리재현(농업성 부상)

12.05.(목)

❑ 어랑천발전소 팔향댐 준공식 개최

- 참가: 박봉주(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내각 총리, 준공사), 오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동정호(내각 부총리), 리히용(함경북도당위원장), 장혁(철도상), 권성호(국가건설감독상), 관계자, 군 장병 및 건설자, 발전소 종사자 등

- 김재룡, 어랑천발전소 건설을 군민협동작전의 성과이자 국가경제발전의 상징으로 언급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혁신 창조를 강조



- 각 도건재전시회 2019 개막(12.5-24)
 - 건축자재의 국산화에 기여한 66,000여점의 건축자재 및 생산기술공정 출품
 - 참가: 동정호(내각 부총리),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대회 관계자
- 정방산생물공장(황해북도 사리원시) 준공식 개최
- 외국문출판사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 박광호(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출판사 관계자 및 종업원 등
 - 당중앙위원회, 수령과 당의 출판물 번역 사업을 통한 선전선동활동 기여 치하

12.07.(토)

- 김정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 참석
 - 참가: 최룡해(준공사), 박봉주, 김영남, 양형섭,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등 당 고문 및 박광호, 리수용,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 김두일(평안남도당위원장), 박정천 및 군인건설자, 관계자 및 종업원 등
 - 김정은, 삭도(리프트)를 타고 스키장 점검, 군인건설자들의 노고 치하
- 로동신문, 김재룡의 각 도건재전시회장, 신림연구원건설장, 교육도서인쇄공장 현지요해 보도
 - 건축자재 국산화 강조

12.08.(일)

-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 양덕군 읍지구 참관
 - 참가: 박광호, 리수용,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12.09.(월)

- 로동신문, 신도군 갈(갈대) 대풍 보도
 - 김정은의 운송기재 및 수확기 지원, 비행기를 이용한 갈밭 비료 산포 조치 등을 강조
- 제1차 전국교육과학성과전시회 및 제4차 전국교육과학토론회 개막(12.9-13)
 - 도서, 실험실습설비, 교육지원프로그램 등 640여점의 교육과학연구성과물 전시 및 200여건의 논문 제출
 - 참가: 김승두(교육위원장), 차기철(교육연구원장), 교육부문 관계자 및 교원

12.10.(화)

-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12.10-11)
 - 채탄효율 증가, 갱 작업의 기계화, 운반수단 다양화 등에 관한 180여건의 논문 심사 진행

12.11.(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만경대혁명사적관 등 18개 단위에 사회주의애국림칭호 수여를 결정하는 정령 발표

12.12.(목)

- 고산군 설봉리에 위치한 석왕사 준공식 개최
 - 참가: 김철(강원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배명식(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직원 및 관계자

12.14.(토)

- 로동신문, 박봉주의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전국농업부문 기술경험발표 및 과학연구성과전시회장 현지요해 보도
 - 생산하는 객차의 질적 향상 및 전시회에 출품된 과학연구성과와 기술경험의 적극 현장 도입 강조

12.16.(월)

- 교육연구원 창립 60주년(1959.12.16) 기념보고회 개최
 - 참가: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승두(교육위원장), 차기철(교육연구원 원장)

12.21.(토)

- 로동신문, 김재룡의 증산광산, 남양제염소,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일용품공장, 양덕군 지방공업공장 현지요해 보도
 - 노동자 생산, 생활조건 보장 강조 및 기업소 기계화를 위한 토의 진행

12.22.(일)

- 로동신문 논설, 당원 및 근로자들에게 제재속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건설 참여 독려
 -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있고 생활상 곤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후대들에게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투쟁 강조

12.24.(화)

- 강계시 김치공장 및 샘물공장 준공식 진행

12.25.(수)

- ❑ ‘12월15일품질메달’ 수여식 개최
 - 참가: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최일룡(경공업상), 기업소 관계자 및 수상 기업소 근로자
 - 원산구두공장, 류경김치공장, 나래도자기공장에 ‘12월15일품질메달’ 수여
 - ※ ‘12월15일품질메달’: 2014년 제정된 품질인증 기준으로, ‘2월2일제품’ 등 기존 제도에 인증된 제품 가운데 우수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

12.27.(금)

- ❑ 강원도, 도농업과학연구소와 원산남새(채소)연구분소 개건
- ❑ 로동신문, 남포시 김치공장 준공 보도

12.28.(토)

- ❑ 로동신문, 박봉주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요해 보도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토의 진행

12.29.(일)

- ❑ 로동신문 논설, 당의 농업발전의 5대 요소(종자육성, 과학농사, 신규 농토 확보 사업, 저수확지 증산운동, 당적지도 강화) 해설 및 전 간부 및 근로자들에게 5대 요소 학습 주문
- ❑ 로동신문, 김재룡의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평양목재공장, 순천기관공장 현지요해 보도

12.30.(월)

- ❑ 강원도자력갱생전시관 개관

3 대외 · 대남 분야

01.02.(수)

- ❑ 조선신보, 미국이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 싱가포르 회담을 이행한다면 “조미 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

01.03.(목)

- ❑ 노동신문, 남북관계의 대미종속 비난 및 남한당국의 태도전환 촉구

01.04.(금)

- ❑ 김영남 · 리용호(외무상), 미얀마 독립 71주년 맞아 축전 발송

01.05.(토)

- ❑ 중앙통신,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평화체제 구축 주장

01.07.(월)

- ❑ 김정은, 중국 방문(1.7-10)  이슈 분석
 - 수행: 리설주,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노광철(인민무력상), 김여정(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일환(당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당중앙위원회 부장) 등 당·정·군 간부
 - 7일 평양 출발, 단둥 도착 → 8일 베이징 도착 및 시진핑 총서기와 정상회담 → 9일 오전 베이징시 참관 후 시진핑과 오찬, 오후 베이징 출발 → 10일 평양 도착
 - 정상회담 배석: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 ❑ 노동신문,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한의 전쟁장비 반입 중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 강조

01.8.(화)

- ❑ 노동신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위한 평양 출발 보도

01.10.(목)

- ❑ 노동신문, 김정은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
 - 북·중 정상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소개

01.11.(금)

- ❑ 로동신문, 김정은의 방중 후 귀국 보도

01.14.(월)

- ❑ 로동신문, 남북선언의 이행 주장

01.17.(목)

- ❑ 조선신보, 제4차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북-중의 대미외교 협조를 부각하며 미국에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제시

01.20.(일)

- ❑ 로동신문, 우리군의 국방중기계획 및 F-35A 도입 비난
 - 한국의 국방개혁을 (북한 겨냥)“전략목표타격”으로 규정 및 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 선언 위반이라 규탄
 - ※ 2019년 북한 최초 남한 국방중기계획 공식 비판

01.21.(월)

- ❑ 로동신문, 키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비난기사 게재
 - 보고관의 방한 목적을 ‘대조선제재압박기운을 고취’이자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 규정

01.23.(수)

- ❑ 김정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결과 청취
- ❑ 리용호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예술대표단 방중(1.23-31)
 - ☞ 이슈 분석
 - ※ 2015년 모란봉악단(단장 현송월) 방중, 공연 직전 전격 취소(15.12.12)
- ❑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개최
 - 참가: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 두철(내각 부총리) 및 북한 정부, 정당, 단체 대표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한반도 평화 촉구
- ❑ 로동신문, 남북협력 및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 실현’ 주장

01.28.(월)

- ❑ 로동신문, 한국군 ‘흑한기 전술훈련’ 및 ‘F-35A 실전배치’ 비난

01.30.(수)

- ❑ 로동신문 논평,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요구를 비난하며 제재 유지는 시대착오적이라 주장

01.31.(목)

- ❑ 김정은, 중국에서 귀국한 친선예술대표단과 기념촬영
- ❑ 로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친선예술대표단과의 담화 및 공연관람 보도



02.03.(일)

-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정부와 인민의 자주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 발표
 - ※ 2018년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는 중-러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파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부정선거에 따른 임시대통령직 수행을 발표한 과이도파가 갈등중. 북한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두로 지지 입장을 표명

02.04.(월)

- ❑ 김영남, ‘제32회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축전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회의장에 발송
- ❑ 북한 적십자회, 일본 인근 해상으로 표류한 북한 선원의 귀국을 위해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한 일본에 감사 표시 전달

02.06.(수)

- ❑ 로동신문 논평, 우리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F-35A 실전배치’ 비난

02.07.(목)

- ❑ 로동신문,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근접 비행’ 관련 일본을 비난

02.08.(금)

- ❑ 중앙통신, 한국군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및 군사비 증액, 무기(F-35A, 글로벌 호크, SM-3)구입 비난

02.12.(화)

- 베트남 팜빙밍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 단장 이하 외무성대표단 방북(2.12-14)

02.13.(수)

- 로동신문, 우리군의 '흑한기 전술훈련' 및 'F-35A 실전배치' 비난
- 北 대외문화연락위 - 러시아 문화성 간 '2019-2020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 리용호 외무상-팜 빙 밍 베트남 외무상 회담 개최
 - 양국 친선 협조관계 확대발전 및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02.14.(목)

- 금강산에서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진행
 - 2019년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로 당초 1월 30-31일 예정이었으나 1차례 연기
 - 김홍걸, 이창복, 김희중, 지은희, 한충복 등 남측 민간, 시민사회, 종교 및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문화관련 인사 약 260명 방북

02.17.(일)

- '북-중 문화협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연회, 베이징 개최
 - 참가자: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
 - 양국의 친선 단결, 교류 협조 강화발전 강조

02.21.(목)

- '2019 북-중 친선 봄맞이모임' 진행 통한 친선유대관계 강조
 - 참가자: 리길성(외무성 부상), 박춘식(문화성 부상), 박경일(조중친선협회 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진권 북한주재 중국 대사, 길림성문화예술대표단 등

02.23.(토)

- 김정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23일 오후 평양 출발
 - 수행원: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노광철(인민무력상), 김여정, 리영식,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최선희(외무성 부상), 박정남(강원도위원장) 등



-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를 통해 인도 ‘테러 공격 사건’ 관련 “깊은 우려” 및 “테러 반대” 입장 표명

※ 2.14 인도 카슈미르주 풀와마에서 폭탄 테러로 경찰 41명 사망,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에-무함마드가 배후임을 선포한 가운데,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주장하며 비난 및 최혜국 대우 철회 선언

02.24.(일)

- 로동신문,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계획 소개
- 중앙통신, 조선국립교예단이 ‘제8차 금코끼리상(배) 국제교예축전(스페인)’에서 최고상 수상소식 보도
 - ※ 평양교예단, 국가제일주의 일환으로 조선국립교예단으로 명칭 변경

02.25.(월)

- 로동신문 논평, 미국 ‘블루릿지함’의 부산 입항과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참가 병력 방한 비난
- 김영남, 쿠웨이트 독립 및 해방 기념 세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에게 축전 발송

02.26.(화)

- 김정은, 오전, 베트남 하노이 도착 및 오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대표단, 김정은에게 사업정형 보고
- ‘북-중 문화협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연회 개최
 - 참가자: 전광호(내각 부총리), 박경일(조중친선협회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선(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리진진 북한주재 중국 대사

02.27.(수)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제1일 회담 진행
 -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상봉 및 단독회담, 만찬 진행

02.28.(목)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제2일 회담 진행 ⇒ 회담 결렬 [이슈 분석](#)
- 리길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대표단 방중(2.28-3.5)

03.01.(금)

- 김정은, 베트남 친선방문 및 응우옌 푸 쯩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진행 및 환영 연회 참석



- ❑ 북-러,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러시아 관광국 국장)
- ❑ 한만혁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 김일성의 소련 첫 공식방문과 북-러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참석 목적 러시아 방문(8일 귀국)

03.02.(토)

- ❑ 김정은, 호찌민 묘·영웅열사추모비에 헌화 및 베트남 출발



- ❑ 김영재 대외경제상,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9차 회의’ 참가하기 위해 방러

03.05.(화)

- ❑ 김정은, 베트남 공식친선일정 종료 후 귀국

03.07.(목)

- ❑ 중앙통신, ‘동맹’ 한미합동군사연습 개시 비난

03.08.(금)

- ❑ 로동신문 논평,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일본 행위 비난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일본의 납치자 문제 이슈화 및 로비활동 비난

03.09.(토)

- 김정은,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3월8일혁명절' 기념 축전 발송

03.11.(월)

- 임천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대표단,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 참석차 러시아 방문

03.12.(화)

-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축전(3.9, 혁명절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03.14.(목)

-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 진행, '2019-2020년 교류계획서' 조인
 - 임천일 북한 외무성대표단 단장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성 부상(차관급), 모스크바서 양국 정치분야 고위급 접촉 및 교류 강화, 경제 및 인도주의분야 협력, 한반도 문제 상호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교류계획서 조인

03.15.(금)

- 최선희 외무성 부상, 평양 외신 기자 및 외교관 대상 기자회견 개최
 - 미국을 향해 '강도 같다'고 표현하며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 추진 거부 의사 표명
- 조선신보, 미국의 '일괄타결·빅딜' 제안 비난 및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 마련 촉구

03.16.(토)

- 러시아 연방평의회 대표단, '김일성 첫 소련공식방문' 및 북-러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주년 기념 방북
 - 대표자: 올레그 멜니첸코 러시아 상원 북러 친선협회 단장
-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 평양 도착(3.16-19)
 - 대표자: 라파엘 내젤리 스위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03.17.(일)

- 박봉주 내각총리·리용호 외무상, 신임 알제리 수상·외무상에게 축전 발송

03.18.(월)

- 북-러 친선의원단 위원장 회담 진행
 - 참가자: 홍서헌(북러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석남(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러시아연방평의회대표단 및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대사, ‘북-러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0주년’ 연회 개최(대동강외교단회관)
- 참가자: 김영재(대외경제상), 임천일(외무성 부상), 박춘식(문화성 부상),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03.21.(목)

- 김정은, 분냥 보라чит 라오스 국가 주석에게 ‘당 창건 64주년’ 기념 축전 발송

03.22.(금)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중국 장쑤성 화학공장 폭발 사고 관련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커창 국무원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문 발송

03.24.(일)

- 로동신문 논평, 일본 자위대의 F-2 비행훈련 재개 및 방위상의 수륙기동단 시찰 비난

03.26.(화)

-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로동당대표단, 라오스 방문(3.26-4.1)

03.27.(수)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 “골란고원은 시리아의 영토” 언급
- 시리아 주권 및 영토 회복지지 의견 중앙통신에 게재

03.28.(목)

- 리수용, 분냥 보라чит 라오스 국가 주석과 접견 및 친선담화 진행
- 리수용, 판캄 위파만 라오스 부주석과 회담 진행 및 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03.31.(일)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관련하여 이를 “국가주권 침해·국제법 유린” 행위로 비난
 - ※ 자유조선(반북성향) 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멕시코 국적 에이드리언 홍 창 등 10명이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폭행하고 디지털 자료를 절취하여 도주한 사건

04.02.(화)

-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상 - 블라디미르 콜로코체프 러시아 내무장관 회담
 - 북한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 및 간부, 러시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대사 참석
 - 친선관계 발전 및 공통 관심사 논의

- 김영남, 러시아 내무부 일행 면담 및 선물 접수
 - 참가자: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한 밀, 흥남항 도착

04.05.(금)

- 로동신문, 한-미 연합 ‘퍼시픽 썬더’ 공중 구조훈련 및 해상 검문검색훈련 비난
- 라오스 분당 보라쉴 당 중앙위 국가 주석, 김정은 위원장의 ‘당 창건 64주년’ 축전(3.21)에 대한 답전 발송

04.06.(토)

- 당중앙위원회, 시리아 집권당인 아랍사회부흥당 중앙지도부에 창건 72주년 축전 발송

04.09.(화)

- 중앙통신, ‘쌍룡’, ‘맥스 썬더’ 등 군사훈련 비난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싸이트, 통일부의 철도 남북공동조사 결과 국회 보고에 대해 비난
 - 북의 노후하고 열악한 실태를 여론에 공개하여 비방 중상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을 설득할 것을 주장
-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일성주석 탄생 107주년 기념 축전 발송

04.10.(수)

- 박경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방중(4.9-13)
 - 중국 양찬탕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면담(4.10)

04.12.(금)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 응우옌 푸 쯑 베트남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04.13.(토)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국가회의 정당연합대표단 면담
 - ※ 최룡해, 상임위원장 취임 이후 첫 외교 업무. 한만혁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배석
-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최룡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축전 발송
- 중앙통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 반입 및 추가 도입 계획 비난

04.14.(일)

- ❑ 최룡해, 베트남 보 반 푸옹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베트남 국가예술단 주요성원과 접견
 - 참가자: 류명선(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춘식(문화성 부상), 북한주재 베트남대사
- ❑ 베트남국가예술단, 태양절 기념 북-베트남 친선공연 “봄날의 해빛(햇빛)” 진행(4. 14-15)
 - 참관: 리수용, 북한주재 베트남대사

04.15.(월)

- ❑ 카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04.17.(수)

- ❑ 김정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축전을 보낸 것에 대한 답전 발송
- ❑ 김정은, 응우옌 푸 쯙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축전을 보낸 것에 대한 답전 발송
- ❑ 김정은,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독립 73주년 축전 발송

04.18.(목)

- ❑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축전을 보낸 것에 대한 답전 발송
- ❑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발표를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난 및 대화상대 교체 요구
 - 15일 폼페이오의 북한의 비핵화 촉구 발언 이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하는데”라는 언급과 함께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뿐”이라 밝힘
- ❑ 김재룡 내각총리, 시리아에 독립 73주년 축전 발송

04.19.(금)

- ❑ 중국 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 공연 진행(4.19-20)
 - 참가자: 리두성, 김형룡 등 군 장령 및 군관, 리진권 북한주재 중국대사

04.20.(토)

-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핵포기의 ‘진정한 징후’에 대해 거론한 것 비난

- “우리는 불턴 보좌관이 언제 한번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었다”고 비판
- 김명식 해군사령관,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 행사 참가

04.22.(월)

- 노광철 인민무력상, ‘제8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참가(4.22-26)

04.23.(화)

- 노동신문,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획 발표
-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대표단, ‘제2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가(4.24-30)

04.24.(수)

- 김정은, 러시아 방문을 위해 전용열차로 출발, 오후 6시 블라디보스토크역 도착
 - 동행: 김평해, 오수용, 리용호(외무상), 리영길(총참모장),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대표단, 러시아 방문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회 위원장최고대표자’ 추대 축전 발송
-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시리아 독립절’ 축전(4.17)에 대해 답전 발송

04.25.(목)

- 김재룡, 부부 씨씨 신임 말리 수상에게 축전 발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한미합동공중훈련 실시’ 비난 담화 발표
 - 남한정부의 훈련 축소진행을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량난질을 하고 있는 이중적행태”라 주장

04.26.(금)

- 김정은 위원장-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및 연회 진행 ☞ 이슈 분석
-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04.27.(토)

- 김정은, 연해주 주지사와 오찬 및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 참배
- 김정은, 새벽 전용열차로 귀환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판문점선언 1주년, ‘철저 이행’ 호소문 발표

- 중앙통신 논평, 한미연합훈련 ‘동맹 19-1’, ‘동맹 19-2’을 침략연습으로 규정하며 비난
- 김정은, ‘김정일 생일 107주년’ 기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전(4.9)에 답전 발송
-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 박명국 외무성 부상, 시리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몽골 방문(4.27-5.14)

04.28.(일)

- 김정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에 답전 발송

04.29.(월)

- 베트남 사회과학원대표단, 방북(4.29-5.3)

04.30.(화)

- 로동신문, ‘을지프리덤가디언’ 대체 ‘동맹 19-2’ 훈련 비난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경로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을 비난
 -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미국의 협상 입장 변경을 요구
- 장카를로 발로리 이탈리아국제그룹 이사장 방북(4.30-5.4)

05.01.(수)

- 남북노동자단체(北 ‘직총’·南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절’ 129주년 공동성명 발표
 -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촉구

05.02.(목)

- 최룡해 , 이탈리아국제그룹 이사장 면담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

05.03.(금)

- 국제당뇨병연맹 대표단 방북(5.3-7)

05.04.(토)

- 중앙재판소 대표단, 라오스·베트남 방문(5.4-13)

05.06.(월)

- ❑ 최룡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국제공항 발생 여객기 사고(비상착륙중 화재, 41명 사망) 관련 위문전문 발송
- ❑ 베트남 여성동맹대표단 방북(5.6-10)
- ❑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친선대표단 방북(5.6-10)

05.07.(화)

- ❑ 로동신문, 일본의 'SM-3 블록 2A' 도입 추진 비난(논평, 「불순한 야망실현을 위한 흥심의 발로」)

05.08.(수)

-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5월 4일 실시한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 타격훈련'에 대한 한국 국방부 반응 비난
-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 훈련"(5.4)에 대해 남측이 도발로 규정했다고 유감 표명

05.09.(목)

- ❑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 발송
- ❑ 강일섭 국가비상재해위원장, 스위스 방문(5.9-23, 제6차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 ❑ 중앙통신, 주한미군 '사드 전개훈련 실시' 비난
- ❑ 조선신보, 미국 태도 따라 "핵 대결 국면 재현 가능" 시사

05.11.(토)

- ❑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미 국무부 '북한 자유주간 성명' 발표 비난

05.13.(월)

- ❑ 안톤 흘로브코프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소장 방북(5.13-15)

05.14.(화)

-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관련 선박 반환 촉구
 - 미 법무부, 9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하여 국제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물수소송 제기 및 선박 압류조치 단행
 -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시에라리온 국적의 이중 등록 선박으로, 석탄을 불법 운송 하던중 2018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사실이 19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짐
- ❑ 북 적십자회대표단, 중국 방문(5.14-18)

05.15.(수)

- ❑ 조선신보,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결단에 ‘단계식 접근법’ 조언 참고할 것” 주장

05.16.(목)

- ❑ 북한 외무성, UN을 ‘소수 대국 특권 허용하는 불공정한 국제기구’로 비난

05.18.(토)

- ❑ 조선신보, “외세 눈치 보느라 금강산관광·개성공업지구 재개 등 진전 없다”고 한 국정부 비난
- ❑ 김성 UN 주재 북한대사, ‘미국의 북한 화물선(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관련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중앙통신)
 -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로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을 유엔 헌장 위반국으로 규탄
- ❑ 조선신보, 북미협상 재개 관건은 ‘선(先) 핵포기 철회’ 주장

05.20.(월)

- ❑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정부대표단, 쿠바 방문(5.20-28)
- ❑ 체코 국회대표단 방북(5.20-24)

05.23.(목)

- ❑ 리수용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쿠바 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및 내각수상 미겔 디아스카넬 면담(쿠바 국가이사회청사)
- ❑ 오영란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원 대표단, 중국 방문(5.23-30)

05.24.(금)

- ❑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를 통해 하노이회담 결렬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비선의 적 태도 때문 주장
- ❑ 중앙통신,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UN 주재 북한 대사 서한’, UN 총회 및 안보리 공식문건(A/73/877-S/2019/409호)으로 배포 보도

05.25.(토)

- ❑ 중앙통신, 한국군의 미 전략사령부 ‘글로벌 썬더’ 훈련 참가 비난
- ❑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기증한 밀 도착
 - 러시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2019년 5만t 규모 밀 지원 검토(2019.2)
 - 러시아 정부, 북한에 2, 3, 4, 6월 밀 지원(개별 지원별 약 2-4000t 규모)

05.27.(월)

- 로동신문, ‘납북의심 특정실종자 발견’ 관련, 일본 납치문제 주장 비난
 - 1992년 실종된 납북 추정자의 2019년 4월 생존 확인에 따른 비난
- 외무성 대변인,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결의 위반” 발언 비난
 - 4월 25일 도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 주장
- 장혁 철도상, 제47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가 목적 우즈베키스탄 방문(5.27-6.11)
- 김능오 당 평양시위원장, 러시아 방문(5.27-6.3)

05.28.(화)

- 림광웅 민용항공총국 총국장 중국 방문(5.28-6.1)

05.29.(수)

-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의 ‘힘에 의한 문제 해결’ 추구 비난

05.30.(목)

- 로동신문, ‘글로벌 썬더(Global Thunder)’ 훈련 참가 및 함대공미사일 관련기술 구입 비난(「평화흐름에 역행하는 도발행위」)

05.31.(금)

- 베트남 공산당 중앙이론이사회 대표단 방북(5.31-6.7)

06.02.(일)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외무상 발언 비난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북한의 ‘올바른 판단’ 관련 발언에 대하여 비난하며 일본에 과거사 청산 및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06.03.(월)

-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명의로 라울 카스트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88세 생일 기념 축전 발송

06.04.(화)

- 외무성 대변인, 6.12 북미 공동성명 발표 1주년 담화 발표
 -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습 언급,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일방적 핵폐기 이외의 새로운 해법 제시 촉구
- 김명길 중앙검찰소장, 중국 방문(6.4-11)

06.05.(수)

- ❑ 로동신문, 남측에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날 것 주장
-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 국방부 전략보고서의 '불량배국가(rogue state)' 표현 비난

06.06.(목)

- ❑ 로동신문 논평, 한국군의 을지태극연습 진행 비난
 - 남측 군사훈련을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또 한차례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소동”으로 규정
- ❑ 러시아 원동 및 북극발전상 일행 방북(6.6-8)

06.07.(금)

- ❑ 김재룡 내각 총리·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원동 및 북극발전상 일행 면담

06.08.(토)

- ❑ 리룡남 내각 부총리, ‘민주주의의 날’ 행사 참가로 나이지리아 방문(6.8-17)

06.11.(화)

- ❑ 김재룡,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 영농사업 현지요해
 - 발전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일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 강화 지시
 - 가뭄속 적기 모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장원 및 지원자 노고 치하
- ❑ ‘온실남새(채소)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 개막(6.11-26, 평양남새과학연구소)

06.12.(수)

- ❑ 김정은, 김여정 제1부부장 통해 통일각에서 이희호여사 유가족에게 조의문·조화 전달



- ❑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날’ 기념 축전 발송

- ❑ 로동신문,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비난하며 동맹19-2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남북군사분야합의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
- ❑ 중앙통신, 6.12북미공동성명 발표 1주년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6.4.)를 11일 UN 공식문건 A/73/894-S/2019/466호로 배포 보도

06.13.(목)

- ❑ 베트남이 기증한 식량 남포항 도착
 - ※ 일본 마이니치 신문, 식량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쌀 5000t 규모 추정 기사 보도
- ❑ 라울 카스트로 쿠바공산당 제1비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 ❑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북한 주재 시리아 대사 면담

06.15.(토)

-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선언 19주년 결의문 발표

06.17.(월)

- ❑ 중앙통신, 일본의 대북정책 ‘이중적 행태’ 비난

06.19.(수)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전 양국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북중관계의 기본 방향을 밝히는 기고문을 로동신문에 게재(『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 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 강화, 친선 왕래 및 실무 협조 강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위한 대화와 조율 및 협조 강화(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진)
- ❑ 차승수 북한기자동맹 중앙위원장 중국 방문(6.19-28)

06.20.(목)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금수산영빈관) ➡ [이슈 분석](#)
 - 참가자: 최룡해, 김재룡, 리용호, 리수용, 김수길(군 총정치국장), / 덩쉐샹 판공청 주임, 양제츠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 외교부장, 허리핑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쑹타오 당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마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 전략적 의사소통의 긴밀한 추진, 고위급 교류 지속, 분야별 교류 협조 심화 합의



- ❑ 로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 사설 발표(「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
-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중 외교관계수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의 친선 유대 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 ❑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스위스 방문(6.20-27)

06.21.(금)

- ❑ 왈리드 알 무알림 시리아 내각 부수상 및 정부대표단 방북(6.21-26)

06.22.(토)

-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귀국
- ❑ 로동신문, 시진핑 방북 계기 북-중 친선 역사 강조 기사 게재(「력사의 풍파를 헤치며 더욱 굳건해진 조중친선」)
- ❑ 김광철 체신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신성대표단, 정보통신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장관급회의 참가하기 위해 싱가포르 방문(6.22-29)
- ❑ 임천일 외무성 부상, 북-러 차관급 협상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 방문(6.22-27)

06.23.(일)

- ❑ 로동신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 보낸 사실 공개



06.24.(월)

- ❑ 조성걸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국 대표단, 쿠바 방문(6.24-7.8)
- ❑ 라오스 직업연맹 대표단, 방북(6.24-28)

06.25.(화)

- ❑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일군 친선대표단, 중국 방문(6.25-7.1)
- ❑ 최룡해, 시리아 정부대표단 면담

06.26.(수)

- ❑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 ‘적대행위’ 비난 및 ‘실력행사’ 시사
- ❑ 중앙통신, 미-일의 남중국해 공동훈련 진행 관련 대일 비난
- ❑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중국 방문(6.26-7.2)

06.27.(목)

- ❑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미국 태도 및 대남 비난
 - 대화상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 및 한국당국의 중재자 역할 비난
- ❑ 조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학생체육협회대표단,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0차 하계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참가(6.27-)

06.28.(금)

- ❑ 북한 당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창건 98주년 축하 꽃바구니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통해 전달
- ❑ 8월 예정 ‘동맹 19-2’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촉구(중앙통신)
- ❑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일군대표단, 중국 방문(6.28-)
- ❑ 박금희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의회제도 발전에 관한 제2차 국제연단’ 참가 위해 러시아 방문(6.28-7.8)

06.29.(토)

- ❑ 최섉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 만남’ 제안에 대해 실무접촉 제안
- ❑ 북 적십자회 대표단, ‘동아시아지역 적십자회의’ 참가 위해 몽골 방문(6.29-7.8)

06.30.(일)

- ❑ 김정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 [이슈 분석](#)
 -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 진행(리용호 외무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배석)

07.01.(월)

- ❑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정부 특사 일행 방북(7.1-4)
- ❑ 러시아 외무성 국장 일행,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07.02.(화)

- ❑ 중앙통신, 리용호 외무상, 스웨덴 정부 특사 면담 보도
- ❑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 및 국방성 대표단, 방북(7.2-4)

07.03.(수)

- ❑ 최룡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벨라루스 국경절’ 축전 발송
- ❑ 조선신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계기 “북-미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 진전에 훈풍” 주장

07.04.(목)

- ❑ 북한에 억류되었던 알렉 시글리 호주 대학생 석방
 - ※ 미국의 소리, 6.24-25일 사이 시글리 북한 체포소식 보도 후 9일 만에 석방,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시글리 석방 후 특사를 파견하여 석방에 도움을 준 스웨덴에 사의 표명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논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7주년 기념 논설 발표

07.05.(금)

- ❑ 최룡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르쿠츠크 주 홍수 피해 관련 위문 전문 발송

07.06.(토)

- ❑ 중앙통신, 억류되었던 호주 유학생 “인도주의적 관용으로 경내 추방” 보도
- ❑ 중앙통신, 일본의 ‘대북 제재결의 완전 이행’ 발언(6.28. G20 오사카 정상회의) 비난

07.08.(월)

- ❑ 멕시코노동당 대표단 방북(7.8-13)

07.09.(화)

- ❑ 리성철 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성 친선대표단 중국 방문(7.9-7.15)

07.10.(수)

- ❑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대표단 중국 방문(7.10-13)
 -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면담(7.12)
- ❑ 중국 외교부 보도국 대표단 방북(7.10-13)

07.11.(목)

- ❑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를 발표하여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비난하며 “불가불 특별 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 ❑ 조영삼 북한 외무성 보도국장 - 룡강 중국 외교부 보도국장 회담
- ❑ 북한-불가리아, ‘2019 - 2022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평양)

-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 중국 외교부 보도국 대표단과 면담(중앙통신)
- 최룡해 상임위원장, 카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에게 ‘몽골 인민혁명승리 98주년’ 축전 발송

07.13.(토)

- 김동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몽골 방문(7.13-22)

07.15.(월)

- 강운석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 중국 방문(7.15-20)

07.16.(화)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동맹 19-2’ 한미연합군사훈련 비난
 - “6.12 北美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北)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 경고
-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동맹 19-2’ 진행시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 주장
- 클로드 러네 베글레 스위스 국회의원 방북(7.16-25)
- 스위스공산주의청년대표단 방북(7.16-26)

07.18.(목)

- 페르난도 곤잘레스 요르트 ‘쿠바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방북(7.18-20)

07.19.(금)

- 최룡해, 쿠바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면담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선쿠바단결위원회 등과 친선 및 연대성에 관한 합의서 조인

07.22.(월)

- 중국 청년간부 대표단 방북(7.22-29)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사무총장 일행 방북(7.22-25)
- 아프리카민주주의혁명동맹 대표단 방북(7.22-29)

07.23.(화)

-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쿠바 단결위원회 대표단, ‘제9차 쿠바와의 연대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참가 위해 네팔 방문(7.23-30)

07.24.(수)

- 중앙통신, 북 대표단 단장, 비동맹운동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7.20.-21. 베네수엘라)' 연설 보도
- 최룡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사무총장 일행 면담
- 리수용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스위스연방 국회의원 면담

07.25.(목)

- 최룡해,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 면담

07.26.(금)

- 노동신문,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 지지 표명 및 국제사회의 내정간섭 비판

07.28.(일)

- 노동신문, 한미 합동침투훈련·'사일런트 샤크' 합동잠수함훈련 비난

07.30.(화)

- 주북 중국 대사관 국방무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2주년' 연회 마련

07.31.(수)

- 중앙통신 논평, 한미 합동침투훈련·합동잠수함훈련 비난
- 중앙통신 논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쟁협정·평화파괴협정'으로 간주하며 폐기 주장
- 최룡해, 율리 마우어 스위스 대통령에게 스위스건국기념일(8.1.) 축전 발송

08.02.(금)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개최 및 '영국-독일-프랑스 3국 공동성명' 발표 비난
- 라오스 사회과학원대표단 방북(8.2-5)

08.03.(토)

- 이탈리아 국회의원대표단, 방북(8.3-6)

08.06.(화)

- 외무성 대변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비난 담화 발표
 -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침략연습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의 책임을 한미당국에 전가하며,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 합의 동력 상실 경고
 - ※ 8.5-20, 한미연합군사훈련(CPX, 지휘소내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08.07.(수)

- 네팔공산당 대표단 방북(8.7-13)

08.08.(목)

- 조평통,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 발표를 통해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한미연합·단독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비난

08.09.(금)

- 로동신문 논평,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 게재 비난
- 최룡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총리에게 독립기념일 축전 발송

08.10.(토)

- 중앙통신 논평, 한국의 ‘F-35A 전투기 도입·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 등을 “반공화국 전쟁준비 책동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비난
- 김성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청년동맹 대표단 러시아와 라오스 방문(8.10-9.1)
- 스웨덴 안전·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 방북(8.10-15)

08.11.(일)

-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발표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8.11.-20.) 비난(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홍콩사태 관련 중국 지지 및 반외세개입 입장 표명

08.13.(화)

- 민주조선, 한미연합훈련을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규정

08.14.(수)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담당 차관 일행 방북(8.14-16)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면담 및 리태성,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 진행

08.15.(목)

- 김정은, 광복절 74주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 교환

08.16.(금)

- 조평통, 대변인 담화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 ❑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 중국 방문(8.16-20)
 - 쑹타오, 마오화, 장유샤 면담 및 북중관계 발전 논의
- ❑ 시리아 농민총동맹 대표단 방북(8.16-23)

08.17.(토)

- ❑ 박철민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이란 방문(8.17-24)

08.18.(일)

- ❑ 로동신문, 일본의 유아교육·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 유치원 제외 조치에 대한 비난 논평 발표

08.19.(월)

- ❑ 김창도 수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러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 러시아 방문(8.19-26)

08.20.(화)

- ❑ 로동신문 논평,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를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하며 적대행위이자 도발로 규정

08.21.(수)

- ❑ 로동신문 논평, 한미연합군사훈련은 6.12 북미공동성명을 위반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따라서 자위적 무기의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
- ❑ 주북 베네수엘라 대사관 개관
- ❑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대표단 중국 방문(8.21-26)
 - 제12차 중국-동아시아박람회 참가
- ❑ 김진수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 중국 방문(8.21-27)
 - 황군밍(황곤명) 중국 선전부장 접견

08.22.(목)

- ❑ 외무성 대변인 담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비난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주장
- ❑ 리용호 외무상, 베네수엘라 외무성 부상 일행 면담

08.23.(금)

- ❑ 리용호 외무상 담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유지” 발언 비난

08.24.(토)

- ❑ 중앙통신, 한국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 중앙통신, "제재 해제와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강조

08.26.(월)

- ❑ 주영길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베트남 방문(8.26-9.2)

08.27.(화)

- ❑ 김익성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교단사업총국 친선대표단, 중국 방문(8.27-9.2)

08.29.(목)

- ❑ 김선경 북-유럽협회 고문 담화, 영국·프랑스·독일의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발표 비난

08.31.(토)

- ❑ 김재룡 내각 총리·리용호 외무상, 말레이시아 수상·외무상에게 각기 축전 발송
-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 불량행동' 발언 비난
- ❑ 오춘복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대표단 'WHO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72차 회의'에 참가차 인도 방문(8.31-9.10)

09.01.(일)

- ❑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의 '북,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20억 US\$ 해킹 탈취' 주장 비난

09.02.(월)

- ❑ 김정은,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주석에게 '베트남 창건 74주년' 축전 발송
- ❑ 김재룡 내각 총리·리용호 외무상, 베트남 정부 수상과 외무상에게 각기 축전 발송
-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 및 리용호와 외교장관회담 진행(9.2-3)
 - 북중친선협조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실무문제 논의
 - 참가: 리용호(외무상), 리길성(외무성 부상),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 왕이(중국 외교부장), 루오자오후이(외교부 부부장), 왕빙난(상무부 부부장), 등보칭(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및 리진권(북한주재 중국대사)

- 리룡남 내각 부총리,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가 차 러시아 방문(9.2-6)
- 양철식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아시아국가 사회주의통일전선단체들의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방중(9.2-8)

09.03.(화)

-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방북(9.3-7)

09.04.(수)

- 중앙통신, '미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검토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기회' 주장 비난

09.05.(목)

- 최룡해, 재일본 조선상공인대표단 면담
-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 기념 방북(9.5-19)

09.06.(금)

- 응우옌 푸 쯙 베트남 주석, 김정은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 발송
-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주석, 김정은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꽃바구니 전달
-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대표단 방북(9.6-13)

09.07.(토)

-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 발송
- 노동신문, '국방예산 증액' 관련 우리 군 비난 및 군사적 도발(한미연합훈련, 신형 전술무기 도입 등) 자제 촉구

09.09.(월)

- 중국·러시아·쿠바 정상, 김정은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 발송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발표하며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 언급
- 스페인 적십자사 위원장 일행 방북(9.9-13)

09.10.(화)

- 판캄 위파완 라오스부통령이 이끄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방북(9.10-14)
 - 방북기간중 리수용, 최룡해, 박봉주 등과 회담 및 친선담화 진행

09.13.(금)

- 최룡해, 만수대의사당에서 판캄 위파완 라오스 부통령 면담

09.16.(월)

-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의 비핵화 관련 입장 불변 강조

- “제도 안전·발전 장애물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 가능” 주장
- 응우옌 푸 쯡 베트남 국가 주석, 김정은의 ‘베트남 창건 74주년’ 축전(9.2)에 대한 답전 발송

09.17.(화)

- 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일본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침입(8.23.-24.)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09.18.(수)

- 최룡해,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면담

09.19.(목)

-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정권 창건립(9·9절)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 김정은,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당 제1비서와 라울 카스트로 내각 수상의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에 답전 발송
- 최상건 총장이 인솔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연변대학 창립 70주년 행사참석차 중국 방문(9.19-24)
- 베트남-북한친선협회대표단 방북(9.19-24)

09.20.(금)

-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발표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관련,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기대’ 표명

09.21.(토)

- 심영학 중앙위원장이 인솔하는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 제10차 웨이하이국제생태환경축전 참가를 위해 방중(9.21-30)

09.22.(일)

-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표단 면담
 - ‘조선노동당-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사이의 협조 의정서’ 조인

09.23.(월)

- 최룡해,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 대표단 면담
-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베트남-북한친선협회대표단 면담

09.24.(화)

- 베네수엘라 당·정 고위대표단 방북(9.24-27)
 - 박태성(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국회의장) 회담 진행

09.25.(수)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연회 개최
- 최룡해, 베네수엘라 당·정 고위대표단 면담

09.26.(목)

- 리진진 북한주재 중국 대사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연회 개최
 - 박봉주 참석
- 북 대표단 단장,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에서 “도전과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강의 국방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

09.27.(금)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 기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 이라고 밝힘

09.30.(월)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미국에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의 이행 및 ‘대조선 적대시정책’ 폐기 강조
- 쿠바공화국 최고검찰소 대표단, 방북(9.30-10.4)

10.01.(화)

-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축전 발송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예비접촉·실무협상 개최 합의’ 발표
- 중앙통신, 리성국 중앙검찰소 부소장-쿠바 최고검찰소 검사부 총장 간 회담개최 및 ‘2019년-2020년도 협조계획서’ 조인 보도
- 안톤 홀로프코프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소장 방북(10.1-3)

10.02.(수)

- 로동신문 논평,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한국의 최신무기도입을 비난하며 교착국면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전가

10.03.(목)

-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탈리아국제그룹 이사장 방북(10.3-9)

10.05.(토)

-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 개최
 - ※ 싱가포르 북미협상, 6월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된 북미간 비핵화 논의 실무협상. 10.4 마크 램버트 대북특사·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간 예비 회담에 이어 10.5-6 스티브 비건-김명길 간 본회담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됨

10.06.(일)

- 김정은, 북-중 수교 70주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호 축전 교환
- 외무성 대변인, 5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조치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는 입장 천명

10.07.(월)

- 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제4차 확대회의 개최
 - 참가: 김기남(김일성김정일기금위원회 위원장), 김창덕(이사장)
- 러시아 주요언론사 대표단 방북(10.7-11)

10.09.(수)

- 최룡해, 러시아 주요언론사 대표단 면담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북한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 꽃바구니 전달

10.10.(목)

- 류가노프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장, 조선로동당 창건 74주년 축전 발송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럽 6개국의 북 SLBM 시험발사 규탄 ‘공동성명(10.8.)’ 비난

10.11.(금)

- 김정은, 미겔 디아즈카넬에게 쿠바 국가주석 선출 축하 전문 발송

10.12.(토)

- 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에서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한 일본 어업단속선과 북한 어선의 충돌 사건(7일)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김영철 황해남도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 중국 방문(10.12-22)
- 리혜정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과학원대표단 중국 방문(10.12-17)

10.14.(월)

- 마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일행 방북(10.14-16)
 - 김수길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대장)과 마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해군 상장) 사이의 회담 개최
 - 북중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한 양국군의 관계 발전방향 논의

10.15.(화)

- 로동신문 논평, 한국 해병대사령부가 발표한 해병대연합훈련(KMEP) 실시에 대하여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규정하고 남북한 군사합의를 파기한 적대행위라고 비난

-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방북, 월드컵 남북축구 관람 및 평양 국제축구학교·조선축구협회 청사 방문(중앙통신)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경기, 무관중·무중계로 평양에서 진행
-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카타르에서 개최하는 '제24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참가(10.15-22)
- 김성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동맹 대표단,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차 아시아 아프리카 청년축전' 참가(10.15-19)

10.17.(목)

- 김재룡 내각 총리, 아제르바이잔 신임 수상에게 축전 발송
-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 제7차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제9차 베이징향산포럼 참가를 위해 중국 방문(10.17-24)

10.18.(금)

-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 방북(10.18-21)

10.19.(토)

- 박태성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러시아 방문(10.19-25)

10.21.(월)

- 최상건 고등교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의원단 대표단, 중국 방문(10.21-25)
-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 방북(10.21-25)

10.22.(화)

- 최룡해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 제18차 비동맹운동 정상회담 참석차 아제르바이잔 방문(10.22-29)

10.24.(목)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발표를 통해 북미관계 관련 대미 태도변화 촉구

10.25.(금)

- 평양시 형제산구역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 개건·보수공사 착공
- 최룡해,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면담
 - 제18차 비동맹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방문 중 친선 면담 진행
- 러시아 외무성 산하 외교단복무총국 대표단 방북(10.25-29)
- 러시아 외무성 산하 청년사업국 대표단 방북(10.25-31)

10.26.(토)

- 중앙통신 논평, 한국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 실사격 훈련 정례화' 발언 비난

10.27.(일)

- 김영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비난

10.28.(월)

- 최룡해, 아제르바이잔 방문 중 쿠바, 나미비아, 말레이시아, 네팔 정부 수반 개별 면담 진행
- 중앙통신 논평, 일본의 '북 어선-일본 수산청 단속선 충돌 장면 동영상 공개' 비난, 배상 및 재발방지 촉구
- 안드레이 스빈초프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 방북(10.28-11.1)
- 미렐라 카르멘 그렉 루마니아 외무성 문화 및 과학외교담당 국장 방북(10.28-11.1)

10.29.(화)

- 중앙통신 논평, 수원 공군비행장 보관 '미군 열화우라늄탄' 관련 비난
- 세계민주청년연맹 위원장 방북(10.29-11.2)
- 북-루마니아 수교 71주년 '루마니아의 밤' 문화행사 개최

10.30.(수)

- 시진핑, 중국 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김정은의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11.01.(금)

- 김정은,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대통령에게 알제리혁명 65주년 축전 발송

11.02.(토)

- 김선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방문(11.2-16)

11.04.(월)

- 차희림 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시친선대표단 네팔 방문(11.4-17)

11.05.(화)

- 김승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위원회 대표단 중국 방문(11.5-10)

11.06.(수)

- 중국공산당 라오닝성위원회 친선대표단 방북(11.6-9)

11.10.(일)

- 리길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방문(11.10-23)

11.12.(화)

- 캄보디아인민당대표단 방북(11.12-14)

11.17.(일)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UN 인권결의 채택’ 비난(중앙통신)

11.18.(월)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발표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윗에 대해 선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이 11.17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게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고 한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에게 무익한 북미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
- 김영철 북한 아태평화위원장, 담화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우선 요구
 - 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따른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 촉구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것”이라 언급
- 최선희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 러시아 방문(11.18-25)

11.19.(화)

-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2월 북미회담’ 거론을 일축하며 “미국은 더 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낚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11.20.(수)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전략대화
 - 중앙통신, 북러 친선협조관계 강화 발전 및 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고 보도(11.21)

11.21.(목)

- 중앙통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의 김정은 초청 거부 입장 표명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 친서를 보냈지만,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대장)과 면담
- 오춘복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 대표단, 쿠바 방문(11.21-12.3)

11.22.(금)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성 부상 면담

11.23.(토)

- 쿠바 공화국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11.26.(화)

- 오춘복 보건상과 쿠바 보건상 간 회담 개최 및 ‘보건-의학분야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11.28.(목)

- 김성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동맹 대표단, 키프로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민주청년연맹 제20차 대회 참석 및 베네수엘라 방문(11.28-12.17)

11.29.(금)

-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 방북(11.29-12.2)

12.01.(일)

- 중국 국가대극원교향악단 공연(11.30-12.1)
 - 관람: 박광호, 리수용, 관계부문 간부, 문화예술 종사자, 리진권 북한주재 중국 대사 및 대사관 성원

12.02.(월)

- 백호룡 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적십자회대표단 스위스 방문(12.2-16)

12.05.(목)

-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경제대표단. 북한시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회의 참석차 시리아 방문(12.5-17)

12.06.(금)

- 리해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성동맹 대표단 벨라루스 방문(12.6-13)

12.09.(월)

-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방북(12.9-13)

12.16.(월)

- 라오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방북(12.16-20)

12.23.(월)

-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친선대표단 방북(12.23-)

12.26.(목)

- 북한 주재 중국 경제 및 무역참사관,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축하편지 전달

12.31.(화)

-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겔 디아스카넬 공화국 주석에게 쿠바혁명 61주년 기념 축전 발송

부록. 2019년 북한의 주요 원문

- 1. 김정은 위원장 연설문과 서한**
- 2. 북한의 주요 기관 · 인사 · 매체의
대미 · 대남 입장 관련 자료**

1. 김정은 위원장 연설문과 서한

< 1 > 신 년 사 (19.1.1)

< 2 >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
(19.3.6)

< 3 >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19.4.12)

< 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
(19.12.31)

< 1 > 신 년 사 (19.1.1)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 한 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에 뜻 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건설위업에 헌신하여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 거래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3차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은 우리 인민은 자주권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에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 월의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 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긍지와 보람으로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각종 료전기계들과 경공업제품들의 질적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고 대량 생산되어 우

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고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역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 되었습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 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년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페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의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역세여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나라의 자립적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건인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 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양상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

략적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련쇄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로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새 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존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절실한 부문과 대상부터 하나씩 개건현대화하여 전력생산을 당면하게 최고생산년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척후전선입니다.

석탄이 광광 나와야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수 있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연료, 동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탄보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춤없이 정상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며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된 제철, 제강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며 철생산능력이 늘어나는데 맞게 철광석과 내화물, 합금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린비료공장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회망초공업과 인조섬유공업을 발전시키며 현존 화학설비와 기술공정들을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화학비료공장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

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에서 규률강화의 뒷바람을 일으키고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기계설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부문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 들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밝혀준 축산업발전의 4 대고리를 틀어쥐고나가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증식시켜 수산업발전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제고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 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설공법들을 계속 혁신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질적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식으로 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문명과 락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 2 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목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몽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은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에 기백과 랑만이 차 넘치게 하며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미학관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4 대강군화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투쟁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지날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적적인 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위력, 우리 당의 군대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혁명의 붉은 방패답게 우리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여야 하며 로동적 위군은 창건 예순돛을 맞는 올해에 전투력강화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입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선진국가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일군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에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혀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어려운 일에 한 몸을 내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피타게 사색하여야 하며 인민의 높아가는 웃음소리에서 투쟁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근에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신화들을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은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가 되며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청춘의 기백과 활력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이 사회주의건설전역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혁신과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농사와 교육사업, 지방공업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 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한 해동안 세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과 구바공화국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에 당, 국가, 정부급의 래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호상리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립장과 의지가 확인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으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립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도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 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하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

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해의 령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역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딪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 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아갑시다.

〈 2 〉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

(19.3.6)

※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9년 3월 6일 (출처: 『로동신문』, 2019.3.9.)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로정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당사상전선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대회합을 가진 것은 자못 의의가 큼니다.

나는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애국충정의 피를 먼저 끓이며 전진하는 대오에 혁명열,투쟁열,창조열을 더해주고있는 온 나라의 선전원,선동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혁명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결단과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고있습니다. 자력으로 보란듯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을 그 무엇으로써든 억제할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전쟁위협이 무용지물로 된것처럼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도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격변하는 현정세하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웅대한 투쟁목표는 언제나 그러했던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발동함에 더 진지하고 더 많은 품을 들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가발전의 근본원천은 인민의 창조력이며 혁명의 전진동력은 인민대중의 정신적힘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고무된 인민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고 그것을 실제적이며 비약적인 사회주의건설성과로 지향시키는 기본방략은 정치사상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벌리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국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할 당면한 혁명임무와 우리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상응하게 선전선동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초급선전일군들에게 새로운 투쟁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번 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 선전원,선동원들을 두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하나가 열,열이 백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한 대중교양체계,군중공작방법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전기간 군중의 핵심이고 선도자인 초급선전일군들을 중시하시고 그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으셨습니다. 친근한 스승,다심한 아버지의 손길로 시대를 대표하는 붉은 선전원,선동원들을 키우시고 당조직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적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화선선전,화선선동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사회주의전진의 동력을 부단히 보충강화하는 위력한 방도로 되어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수호와 국력강화의 기적적성과를 쟁취할수 있을것도 전국의 초급선전일군들이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대중을 영웅적창조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였기때문입니다.

사상사업은 우리 당사업의 중핵중의 핵심입니다.

사상의 위력,선전선동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방식은 어제도 오늘도 일관합니다.

당중앙의 의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온 나라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는것입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당사상전선이 약동하게 되고 혁명대오전반이 용을 쓰며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결심도 새로이 분발하여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자면 현시기 당사상사업 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제들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혁명진지,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는데 총력을 집중하는것입니다.

혁명진지,계급진지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혁명진지,계급진지를 다지는데서 완성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군중대회를 하고 새 건축물을 세운다고 하여 사회주의가 공고해지는것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성과일면에 치우쳐 사상교양사업을 형식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현상들을 방심하면 세대를 이어다져온 혁명진지,계급진지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질수 있으며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업적을 헛되이할수 있습니다.

당사상부문에서는 제국주의반동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책동으로부터 당과 혁명을 옹위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혁명진지,계급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주되는 과업은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필수5대교양을 실속있게 하는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생명을 유지하자면 반드시 양식을 섭취하여야 하는것처럼 혁명하는 인민은 필수5대교양내용과 같은 사상정신적양식을 무조건 정상적으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진지,계급진지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정신적기둥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당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순결하게 간직한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을 소중히 지켜주고 그 바통을 이어주자면 위대성교양을 진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품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수령의 사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품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인민적품모라는것을 원리적으로,생활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성교양의 내용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생활에 발을 붙이고 하여야 합니다.

애국심,애국적행동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서,특출한 위훈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일터,자기 초소를 사랑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주의락원이 일떠서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일욕심이 곧 애국주의의 발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애국기치인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도 추상적인 선전을 경계하여야 합니

다. 국가의 강대함은 그 어떤 특별한 힘에 있는것이 아니라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것을 누구나 명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서한은 정세의 류동변화에 대처하여 신념교양,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각 방면에서 복원하자고 하여도 모든 사회성원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회주의신념과 계급의식으로 무장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서한은 계급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전체 인민이 자기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현상과의 투쟁에 궤기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건결히 보위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의 혁명진지,계급진지는 덕과 정으로 결합된 사회주의대가정입니다. 장기간의 야만적인 봉쇄속에서도 순수한 인간미와 고상한 도덕륜리를 견지하고 화목하게 사는것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흉내낼수 없는 조선의 우수한 국풍,아름다운 민족풍속을 추호도 흐리게 해서는 안되며 대를 이어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높이에 맞게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위해주면서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리상이고 투쟁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무는 없습니다.

서한은 당사상사업부문에서 불리한 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극복해나가도록 일군들의 혁명성과 투신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전을 강도높이 들이대었다면 이미전에 경제사업에서 많은 전진이 이룩될수 있었을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실 혁명진지,계급진지도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당이 내세운 방대한 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법입니다. 당사상사업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록 그만큼 실효도 커지게 됩니다.

자력갱생하는 우리 인민의 힘을 더욱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참신하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갱생,자급자족의 기풍은 우리가 가장 빨리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이며 제일 값비싼 재부이고 자원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대외적환경과 대외경제활동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자립적발전능

력이 강해야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견지하고 그 비약적장성을 확고히 주도해나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하고도 절박한 문제이며 또한 우리 나라의 항구적인 경제 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정치선전에서는 민족자존을 혁명의 근본으로 삼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그 생활력과 밝은 전망을 대중속에 정확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생산장성의 동음으로 당과 혁명을 옹위할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들이대야 합니다.

과학기술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동하는 선전선동활동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과학으로 비약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였지만 아직 과학 기술사업은 대중자신의것으로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만 놓고보아도 많은 경우 해당 단위발전과 인재육성의 거점으로 되지 못하고 참관대상으로 종업원들의 관심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력경쟁의 세계적추세에 대비한 우리 당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대중속에 명확히 침투되지 못하였으며 사활적인 과제로 접수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당선전부문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홀시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것을 구체적이며 생동한 자료를 안받침하여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과학기술학습의 비중을 높이며 당학습망과 과학기술보급 망에서 취급하는 과학기술내용들이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해당 단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짜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당의 과학기술정책선전을 강화하여 국가적인 기술진보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대중을 증산투쟁,창조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선전선동공세를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따라배우기,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전국적으로 련대적혁신,새로운 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생산장성을 이룩하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척후선전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초시키는 작전을 책략적으로,창발적으로 조직전개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 전인민적인 기풍을 확립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이며 진취적인 발기와 소행들을 적극 장려하고 널리 소개일 반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전개하는것은 현시기 사상사업부문 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입니다.

서한은 지금 당사상사업의 주되는 걸림돌,고질적인 결함은 형식주의이고 변천되는 현실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있지만 사상사업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도식과 경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선전선동사업이 혁명과 건설을 박력있게 추동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대가 전장에서 허장성세하면서 작전과 전투를 도식적으로 하면 우세한 력량을 가지고도 패배를 면치 못하듯이 선전선동사업을 형식이나 차리며 기계적으로 하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진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사상전선강화의 급선무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상사업도 과학적으로,실리적으로 주도세밀하게 전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능력과 인간개조의 합법칙성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최적화,최량화하여야 합니다.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객관적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알맞는 사상사업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에 맞게 적중한 처방을 내리는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형식주의는 현실도피,민심외면의 산물입니다.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도를 인민들에게 직선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당의 의도를 명확히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구호를 게시하고 한건의 선전선동자료를 침투해도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요란한 표현으로 분식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선호하고 인정하며 호응할수 있게 진실성과 통속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규학습을 실효성있게 조직하여 혁명의 연료,사상정신적자양분을 보충하는 유익한 계기로,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인식능력과 수준,감정정서를 고려함이 없이 주관적으로 학습제강,강연제강들을 무리하게 내리먹이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것입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예방하자면 대중속에 당정책이 실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하는것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분석총화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사업을 했다고 하여도 해당 단위의 종업원들이 당정책을 잘 모르고 혁명과업 특히 경제과업수행에서 진전이 없으면 빈대포를 쏘것입니다. 사상사업부문에서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의 도수와 실효성을 증폭시킬수 있는 공세적이며 다각적이며 립체적인 참신한 방법들을 적극 창조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들을 반영하여 당중앙은 사상사업부문앞에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합니다.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는데서 초급선전일군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급선전일군,이는 항일유격대군중정치사업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정치공작원이며 대중이 거울로 삼고 의지하는 친근한 벗,집단의 기둥입니다. 대중의 심장속에 당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울려주는 선각자,대중을 당정책관철에 떨쳐일어나게 하는 선구자의 긍지와 보람은 우리 당초급선전일군들만이 가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사상일군은 적지 않아도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대신할수 있는 력량은 없습니다.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혁명진지,계급진지강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집중하며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행되고 진척됩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의 활동은 결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며 자기 집단을 잘되게 하고 다같이 잘살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초급선전일군들이 오늘의 붉은 선전원,선동원이 되여 함께 일하

는 사람들을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들고 자기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으로 추켜세울것을 호소합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모든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들고 군중속에서 열정적으로,능동적으로,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열정적으로 사업하여야 합니다.

선전원,선동원들은 본신사업을 하면서 사회적분공으로 선전선동활동을 하는것만큼 누구보다 시간이 모자라며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지금 초급선전일군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우리 당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리상향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찬이슬도 헤치며 피땀을 바치는것은 참으로 보람있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선전원,선동원들의 열정적인 사업태도는 집단의 혁명화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고민하고 안타까와하며 이악하게 노력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일이 잘 안되고 뒤떨어진 사람이 있는것을 자기사업의 부족점으로,다름아닌 자기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그 해결방도를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사람들이 당정책을 환히 알 때까지,자기 단위 사업이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이를 때까지 지칠줄 모르고 애쓰는 무서운 정열가가 되여야 합니다. 집단에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뿐아니라 그것이 식지 않도록 불길을 계속 뿜어주는 선전원,선동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정책의 등불로 깨우치고 곤난앞에 주저하면 고동구호와 혁명가요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아름답한 과제가 나서도 남먼저 일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단의 분위기가 들끓게 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전진이 없을수 없습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진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불같은 투쟁에 의하여 실증되는것입니다.

선전원,선동원들도 무쇠가 아닌 이상 힘들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때마다 당에서 가리킨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고 당조직과 군중이 자신을 지켜보고있음을 자각하면 새힘이 솟게 될것입니다.

서한은 온 나라 공장,기업소,협동전야의 모든 선전원,선동원들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여 대중속에 혁신의 불길,경쟁의 불길을 지퍼올린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해낼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게 내세운 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하는것도 문제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급선전일군들이 똑같은 본새로 활동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조건과 환경이 같을수 없으며 한 단위에서도 어제와 오늘의 형편이 다릅니다. 때문에 당에서는 선전선동사업을 도식적으로 틀에 맞추어하지 말것을 계속 강조하고있습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전임일군들 못지 않게 자기 사업에 대하여 머리를 써야 합니다. 우에서 내려보내는 제강이나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하는것을 선전원,선동원사업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됨

니다. 선전선동사업은 준비를 잘하고 품을 들일수록 그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단위앞에 나선 혁명과업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맞게 당정책을 깊이 체득시킬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군대에서 중대장의 명령을 받은 소대장이 구체적인 임무를 수립하는것처럼 접수한 제강에 기초하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한 내용이라야 군중이 쉽게 납득하고 공감할수 있습니다.

선전원,선동원들은 격식과 틀이 없이 사업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야만 선전선동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학습과 강연,선동의 기본형식을 옹계 활용하면서도 정황과 조건,군중의 동향과 심리에 맞게 선전선동활동을 능숙하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생활의 다양한 계기와 공간들이 다 교양이 되고 학습이 될수 있게 효과적인 방법을 부단히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실정을 손금보듯 알고있는것만큼 사람들이 듣고싶어하고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당정책에 립각하여 구수하게 이야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작업장에서나 출퇴근길,일상생활에서 군중과 잘 어울리면서 화제를 교양적의의가 있게 이끌어나가는 선전원,선동원이 진짜 살아움직이는 정치활동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긍정감화교양도 창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록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애지중지 가꾸면 애국의 거목이 되고 버려두면 묻히게 됩니다. 군중속에서 긍정의 싹,미풍의 싹,혁신의 싹을 적극 찾아 내세워주는것이 좋습니다. 말한마디가 천냥값이라고 소박한 소행도 값높이 여겨주는 집단의 평가는 큰 힘을 낳는 법입니다. 군중에게 전국적인 전형단위들의 성과를 알려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조건과 환경이 비슷한 단위들의 모범을 가지고 경쟁심과 분발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 더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초급선전일군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고 활발히 교환할 때 우리 당사상사업은 보다 참신하게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서한은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선동사업은 그자체가 군중과 인간적으로 친숙해질것을 요구하며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동지가 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군중이 바라는것은 요란한 뜰소리나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고 인정이며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선전원,선동원들이 군중의 친혈육이 되여 마음과의 사업,감정과의 사업을 해야 할 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기를 교양자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양대상으로만 여기면 랑패를 보게 됩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 공작원들이 적들의 악선전에 속아 곁을 주지 않던 사람들도 하루이틀사이에 돌려세울수 있는것은 그들이 자기 부모형제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위해주었기때문입니다. 나이와 성격,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릇은 진정뿐입니다. 선전원,선동원들은 군중과 한집안식구처럼 흥금을 터놓고 정을 나누는것을 체질화,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선전원,선동원들은 뒤떨어진 사람,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원심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조건에서 초급당일군들과 세포위원장들,초급선전일군들이 고충을 겪는 사람들을 한명씩만 맡아 돌보아주어도 집단의 위력이 크게 강화될수 있습니다. 초급선전일군이라고 생활이 넉넉하고 괴로움이 없을수는 없으나 제집일보다 더 걱정하고 고락을 함께 하는 고마운 인정이면 목석이라도 감화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초급선전일군들은 언행이 일치하고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같고 술선하여 모범을 보이는 선전원, 선동원이야말로 참된 공산주의교양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초급선전일군의 임무를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앞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진정을 바치면 대중이 따르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맡겨진 임무를 착실히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열성만 가지고서는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과 군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모범적인 선전원, 선동원들의 경험은 애써 수준을 높이고 풍부한 자료를 갖추어야 군중교양사업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열을 알아야 하나를 가르칠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할 오늘의 시대에 초급선전일군들의 수준은 지난 시기보다 더 높아야 할것입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책을 보지 않고도 원만히 해설선전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초급선전일군들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열성독자, 기술실무형의 열성분자입니다. 선전원, 선동원들은 당정책에 정통할뿐아니라 자기 단위의 사업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선전과학기술자료를 탐색하여 군중속에 전파하고 기술혁신, 창의고안도 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선구자인 선전원, 선동원들에 대한 군중의 기대와 요구는 높습니다. 모든 초급선전일군들은 집단과 군중을 위하여 자기의 수준상한계를 대담하게 돌파하여야 하며 팔방미인형의 선전일군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에게 풍부한 사상정신적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는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 학습강사, 강연강사, 방송선전차 방송원과 같은 초급선전일군들에게 정상적으로 선전선동자료를 보장해주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를 비롯한 선전기관들에서는 초급선전일군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선전선동자료들을 기동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합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초급선전일군들을 위한 정보봉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연구도입하는데도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과 당세포들에서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에 힘을 들여야 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군중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 기본력량이며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군중을 각성분발시킨다는것은 군중속에 있는 당세포와 초급선전일군들을 움직인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경시하는 군당위원회와 초급당위원회는 관료화된 당조직, 정치를 하지 않는 실무화된 조직이라고 낙인하여야 합니다. 신천군당위원회와 같이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을 비롯한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당조직은 참말로 전투력이 있다고 평가할수 있으며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크게 전진할것이라고 확신할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대렬을 잘 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이 투철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속에서 남다른 열정과 인정미를 지닌 사람들을 당초급선전일군들로 선발하고 실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강사의 날, 강연강사의 날, 선동원의 날을 비롯한 제정된 날들을 실속있게 운영하고 보여주기, 경험토론회, 참관 등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초급선전일군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로부터 초급당위원회, 당세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선전원, 선동원들에게 의거하여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사업방식을 철저히 견지하면 우리 당의 군중적지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정치공작원들인 초급선전일군들이 아무때나 의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기둥, 고마운 친정집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금지와 영예감을 가질 수 있게 각방으로 내세워주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늘 관심하여 그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초급선전일군들을 모범적인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로 만들고 그들속에서 천리마시대의 길확실, 리신자와 같이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과 대의원도 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하고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킴에 있어서 당중앙은 수십만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시면서 초급선전일군들이 한사람같이 분기하고 맹활약하여 자기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으로 만들어나가면 우리의 혁명진지는 비할바없이 강화될 것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다 조선혁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상의 힘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분투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끝)

〈 3 〉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19.4.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었습니다.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

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나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 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대한 역사적임무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

1.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 되어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 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 속에서 병진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룬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 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 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

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여있고 의연히 국토가 분열되어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령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 정세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자주적 립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고 크건 작건 나라들사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던 지난 시기에도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나갈 것입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와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남의 식, 남의 품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 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합니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 리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 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어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려왔습니다. 최근 년간 우리 국가가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 것도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류레없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 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군들의 룡락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고아의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나가면서 세계가 괄목하는 기적적 승리들을 련이어 안아 오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일관 되어야 합니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 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항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입니다. 당과 정권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령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말려들고 실무적 방법에 매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

상과 령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이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 무한대한 발전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 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2. 동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 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는 짓뭇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 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 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 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 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능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전력공급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수력과 조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네르기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척후전구인 탄광, 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의 기계화실현

에 힘을 집중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광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철철생산지지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화학공업을 철저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전환시켜 비료와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비료, 물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균중적으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근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건설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철도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와 도소재지들의 려객운수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개선완비하고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마그네사공업과 흑연공업을 비롯하여 전망성있는 경제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과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 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특성을 옹계 살려 지역적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

동을 원활하게 조직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 고리들인 가격, 재정, 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을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최량화, 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료와 자재, 자금과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자원이 국가발전에 최대로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며 실리있고 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과학기술연구과제와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역량과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가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되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제도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당정책적 요구에 립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 시켜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 앞서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 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 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체육과학과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 진행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국제경기들도 원만히 치를 수 있게 체육시설들을 늘리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량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관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개별적부문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업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심화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벽한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총공세의 앞장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담성과 적극성이 당을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면 소심성과 눈치놀음은 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나옵니다. 일군들은 당에서 밀어주어야만 일자리를 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며 당에서 준 과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혁명가적일본새를 지녀야 합니다. 일군들은 착상력과 조직력, 장악력과 지도력, 전개력을 부단히 키워 그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사업의 능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기풍을 발휘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심장에 쏘아박고 인민앞에서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 몸을 갇그리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3. 동지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연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으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만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향한 력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 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 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었 으며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 관계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 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결단과 대응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 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 번 우리와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리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 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미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 하고있는 조건에서 6. 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감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

우 위협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 나아갑시다.

〈 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

(19.12.31)

※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자 보도 내용.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8개월간은 대단히 강도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연속이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그 기간 항상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권익,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대내외 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용진하여온 우리의 전투적로정을 새로운 승리로 계속해 이어가자면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어야 하며 현정세의 추이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제들은 현실에 대한 랭철한 판단에 기초한 적실하고 과감한 대책을 요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은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속에서 자립, 자력을 원동력의

로 하는 우리의 주체적힘이 일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를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몇개월동안 우리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흑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으나 그 어떤 곤난도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굴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돌진을 멈춰세울수도 지체시킬수도 없었으며 국가의 힘,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적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스스로 찾을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모든 연구과제들은 주체적력량 즉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설계가,군수로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였습니다.

이는 위대한 승리로 되며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수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된데 대하여서와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 공사가 결속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가 자랑스럽게 건설되었으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우리 당의 구상대로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선물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대상건설들도 면밀히 추진되고 금속,석탄,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국에 자력갱생경쟁을 호소한 강원도에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적인 경험들을 계속 창조하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것은 전체 인민이 당의 부름따라 한사람같이 꺾기해 견인불발의 증산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위대한 투쟁의 필연적결과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압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라고 략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것일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흥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라고 못박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적과의 치열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갱생,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립,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대담하게 혁신하지 못하고 침체되어있는 국가관리사업과 경제사업 등 현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 위업을 성공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모든 일군들이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기 부문,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심각히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정세하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하고있는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몫을 엄밀히 따져보고 략심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무거운 과제를 억척같이 떠메고 완강히 돌진해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란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시기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통제력이 미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준엄한 난국에 부딪친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웨치면서 실제로 있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있는 폐단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세세히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고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없다보니 국가의 경제조직자적역할이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여 장성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이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립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시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하며 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건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전원회의이후부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였다.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전반적인 기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상업을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국가의 리익과 인민들의 편리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게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대책하기 위한 문제,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경

쟁을 벌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할데 대한 문제,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국가적으로 전문건설력량을 확대강화하고 건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수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문제,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당적,전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경제장성의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명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금속공업,화학공업,전력공업,석탄공업,기계공업,건설공업,철도운수,경공업부문에 산적되어있는 폐단들과 부진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일일이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땀때기식투자,자체의 잠재력에 의거하지 않는 하루살이식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경제사업에서 그 어떤 진일보도 가져올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망성있게 사업하는것이 혁명을 책임지는 마땅한 태도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목표가 확정되면 국가적으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고 전인민적인 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맹렬히 벌려 그것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농업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여 흥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토지를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과학,교육,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은 과학자,기술자들에게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성,중앙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우리 나라를 첨단과학기술개발국,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종합화,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변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재능있는 인재들과 가치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 문제,교원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품을 들어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보건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의상의 주요징표라고 언급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이 자기의 본태를 지키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모든 의료일군들을 무한한 인간애와 높은 의학적자질을 갖춘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 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극력 아껴쓸 때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의 경제는 끄떡없고 우리의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에너지절약형,원가절약형,부지절약형기업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찾아내고 더 많이 증산절약하는 경쟁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우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의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군사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 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것이 더없이 기쁘며 이것이 우리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이,더 빠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이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으로 보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으로 보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현 국면을 타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8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제일 많은 품을 들이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매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과업과 방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능숙히 조직동원하는것이며 당의 향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간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오늘의 이 사회주의운명의 기로에서의 승과 패의 결정은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항도적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봉착한 난관들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것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곳곳이 뻗치고 서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것이 우리의 역센 혁명신념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건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면서 모두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어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2. 북한의 주요 기관 · 인사 · 매체의 대미 · 대남 입장 관련 자료

- < 1 >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_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19.04.25)
- <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5.14)
- < 3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가안보보좌관의 궤변을 규탄(19.05.27)
- <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19.05.29)
- <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6.05)
- < 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6.26)
- < 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19.06.27)
- < 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 담화(19.06.29)
- < 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19.07.11)
- < 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7.16)
- < 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8.03)
- <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8.06)
- < 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19.08.11)
- < 14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19.08.16)
- < 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08.22)
- < 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19.08.23)
- < 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19.08.31)
- < 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19.09.09)
- < 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19.09.27)
- < 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19.10.01)
- < 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10.06)

- < 2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19.10.24]
- < 23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19.10.27]
- < 2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19.11.06]
- < 2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송일호 외무성 대사 담화[19.11.07]
- < 2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19.11.14]
- < 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19.11.14]
- < 28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19.11.14]
- <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11.17]
- < 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19.11.18]
- < 31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19.11.19]
- < 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대담[19.11.19]
- < 33 >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19.11.21]
- < 34 > 아베의 눈은 콩까풀을 씹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 담화[19.11.30]
- < 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19.12.03]
- < 36 >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19.12.04]
- < 3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19.12.05]
- < 3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19.12.08]
- < 39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19.12.09]
- < 4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 담화[19.12.09]
- < 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19.12.12]
- < 4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19.12.14]
- < 43 >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19.12.14]
- < 44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무성 차관보의 망발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19.12.21]

〈 1 〉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_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19.04.25)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할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지난 22일부터 2주일동안 남조선군부가 미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연합공중훈련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지금 남조선군부는 대화상대인 우리의 면전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F-15K》와 《KF-16》,《F-16》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술한 비행대력량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긴장완화와 적대관계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행위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화해협력의 소중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할 대신 지난 한해동안 북과 남이 공동으로 이룩한 조선반도의 화해기류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면서 《맥스 썬더》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조선반도정세를 고려하여 훈련규모를 축소하였다고 떠들고있으나 그러한 상투적인 헛소리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훈련만이 아니라 지난 3월에도 《키 리졸브》훈련을 《동맹》이라는 허울로 바꾸어달고 이미 중단되게 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러한 군사적도발책동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에로 돌아가게 할수 있는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규모축소》홍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우리는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행태를 리해할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로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수 없을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하

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4월 25일
평 양(끝)

〈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5.14)

미국이 우리 무역집배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와 저들의 대조선《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우리 무역집배를 강탈한 리유의 하나로 내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하고 규탄해왔다.

더우기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것을 강박하고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계산법의 연장으로 되며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는것으로 된다.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미국이 제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국식《힘》의 론리가 통하는 나라들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주체108(2019)년 5월 14일
평 양 (끝)

〈 3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가안보보좌관의 궤변을 규탄 (조선중앙통신, 19.05.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자가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었는데 정도이하로 무식하다.

볼튼이 췌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는 불법무도한것으로서 우리는 언제한번 인정해본적도, 구속된적도 없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마련인데 사거리를 론하는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리용하는 발사 그자체를 금지하라는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

우리의 군사훈련이 그 누구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고 주변국가들에 위협을 준 행동도 아닌데 남의집일을 놓고 주제넘게 이렇다저렇다 하며 한사코 《결의》위반이라고 우기는것을 보면 볼튼은 확실히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를 가진것이 명백하다.

볼튼은 제임스로 말한바와 같이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노릇을 하고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전쟁광신자》로 잘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볼튼은 이라크전쟁을 주도하고 수십년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해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을 파기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남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함으로써 호전광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최근 미국에서 볼튼을 가리켜 동남아시아의 논판에서 죽고싶지 않다고 하면서 군사복무도 기피한 주제에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있는것도 우연치 않다. 결국 볼튼은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것이 마땅하다.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뿜어져온 소리가 나오는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

〈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5.29)

미국이 지난 2월 13일 네바다주 핵시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림계전핵시험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번 림계전핵시험이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문제를 논의하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을 눈앞에 두고 진행되었다는데 있다.

이로써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를 제창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힘에 의거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였다.

미국이 역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지금까지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한 정치, 경제, 군사적적대행위들을 돌이켜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후에도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고위인물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불량정권》이라고 헐담하였는가 하면 선택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로를 변경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11차례 걸쳐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40여개 대상들을 겨냥한 단독제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선제재규정을 계속 개악하고 우리와 금융 및 선박거래를 하지 못하게 강박하는 각종 《주의보》를 여러차례 발표하였다. 지어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제재법을 위반하였다는 황당한 구실로 우리 선박을 강탈해가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최근에는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를 발동하여 우리 선박, 단체, 개인들에 추가제재를 가하며 우리 외교관들의 합법적인 활동까지 제한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4월 남조선과 해병대련합훈련, 《동맹19-1》합동군사연습, 연합공중훈련 등 각종 전쟁연습들을 벌여놓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캘리포니아주의 공군기지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요격을 가당한 요격미사일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트라이던트-2 D- 5》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찰비행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최신상륙함들을 일본에 전진배치하고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을 조선반도주변에 배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으며 힘으로 우리를 덮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듯이 미국은 저들의 적대행위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에 긴장을 더해주고 역류를 몰아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주체108(2019)년 5월 29일
평 양(끝)

<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6.05)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흐름을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계기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이를 위한 정책적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입증한것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지난 1년간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전략적결단을 요구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것을 비롯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웰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포기》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대화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였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던다면 조선반도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계와 인류앞에 조미 두 나라가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

야 할 과제이다.

조미사이의 첫 수뇌회담에서 두 나라 수뇌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6.12조미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리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화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6.12조미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수 없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에 어떻게 화답해나오는가에 따라 6.12조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것이다.

력사적인 6.12조미공동성명발표 1돐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하며 더 늦기전에 어느것이 옳바른 전략적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섹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나오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주체108(2019)년 6월 4일

평 양 (끝)

< 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6.26)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행위를 더욱 로골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인신매매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헐뜯었는가 하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계속 가할것을 요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특히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조미실무협상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북조선 경제의 80%이상이 제재를 받고있다는데 대해 모두가 기억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력설하면서 제재가 조미대화를 가능하게 하고있는듯이 꾀변을 늘어놓았다.

폼페오의 말대로 현재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의 80%이상에 미치고있다면 100%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이 미국의 목표인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대조선적대행위의 극치이다.

제반 사실은 제재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국가비상사태》로 말하면 2008년 6월 미행정부가 우리를 《적성국무역법》적용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 우리를 계속 적으로 규정해놓고 대조선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밑에 고안해낸것으로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조미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개선도, 조선반도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제재해제따위에 련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싶으면 치고 말고싶으면 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없이 당길것이다.

〈 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6.27)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재개를 영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것이 아니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이미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옳바른 쉼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이다.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들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싶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있는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있는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말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적대관계의 발생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것이 있으면 조미사이에 이미전부터 가동되고있는 연락통로를 리용하면 되는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것만큼 남조선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있는것처럼 광고하고있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행기는것이 좋을 것이다.

〈 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최선희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6.29)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

나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량국관계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주체108(2019)년 6월 29일

평 양(끝)

< 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7.11)

남조선당국이 지난 3월에 이어 이달중순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 《F-35A》2대를 납입하려 하고 있다.

일명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우는 《F-35A》의 납입이 지역에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해합의서》에 정면도전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조미수뇌상봉으로 조선반도에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자기 동족을 해칠 살인무기를 끌어다놓는데 순응하는것이 남조선당국자가 떠들어대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창안품인지 묻고싶다.

이번 전투기반입이 우리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인장격화예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것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

남조선당국이 조미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일보 전진하였다가 백악관에서 차단봉을 내리면 이보 후퇴하는 외세의존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전망은 기대할것이 없다.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올수 있을것이라는 허황한 망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7월 11일

평 양 (끝)

〈 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7.16)

미국과 남조선이 오는 8월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연습이 남조선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이라고 떠들어대고있지만 유사시 《억제》와 《반공격》의 미명하에 기습타격과 대규모중원무력의 신속투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실동훈련, 전쟁시연회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합동군사연습중지는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이다.

우리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한것이나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것은 어디까지나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하여 한 공약이지 그 무슨 지면에 새겨넣은 법률화된 문건은 아니다.

우리는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하여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에 이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인도주의적조치들도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이 있을 때로부터 한달도 못되어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인 압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사실 지난 7월초 미국이 일본, 남조선 등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훈련을 벌리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고있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많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타방은 지키지도 않고 류념조차 하지 않는데 지킨다고 하여 득이 될것도 없는 판에 일방만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나 법이 있겠는가.

주체108(2019)년 7월 16일
평양(끝)

〈 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03)

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의 사측하에 우리의 무장현대화조치들을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걸고드는 비공개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우리는 유엔이 자기의 구미에 따라 불법무도하게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결의》들을 언제 한번 인정해본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국이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결의》를 조작해내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감히 탁우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질을 해대는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모독이고 무시이며 엄중한 도발이다.

그 어떤 발사체든 지구중력에 의하여 직선이 아니라 탄도곡선을 그리는것은 지극히 자명한 리치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발사체의 사거리를 문제삼은것도 아니고 탄도기술을 리용한 발사 그자체를 문제시하러 접어드는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것이나 같다.

더우기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도 미싸일을 비롯한 발사체들의 사거리를 제한할데 대한 합의를 맺은것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법에도 구속되어있지 않다.

우리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한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선의이고 배려이지 생억지에 불과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결의》들을 인정하고 준수하려는 행동의 일환은 결코 아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이미 20개월 이상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는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과 첨단공격무기증강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조치들에 대하여서만 무턱대고 시비하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로 하여 유엔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소진하고있으며 분노로 화하고 있다.

더우기 터무니없는것은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 도이칠란드가 쫓딱 나서서 우리를 걸고드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까지 발표하면서 주제넘게 놀아댄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자주권과 자위권을 룡락하려드는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똑똑히 계산해둘 것이다.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는데 앞장선 나라들은 남의 집안일에 주제넘게 참견한 저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마땅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영국과 프랑스, 도이칠란드의 훈수없는 언동은 조선반도정세긴장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촉매로 작용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늦기전에 깨달아야 한다.

이따위 회의소집을 주도하는 웃기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2일

평 양(끝)

〈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06)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 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여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레외없이 우리에게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당한 침략전쟁연습들이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

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연합훈련,《동맹 19-1》,연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여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 맨-3》과 잠수함탄도미사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 미사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췌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뿜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 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11)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성격이 달라진다고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똥을 깨끗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현대화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지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다.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찢절매여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빠질 일도 아닌데 쫓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치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것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싸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때도 아니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빼앗이 벌려놓고있는 와중에 우리를 타매하러 들며 제편에서 오히려 분주탕을 피우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아니라 할수 없다.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것이 안타깝다.

남조선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두는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적이 명백히 우리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것이며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다.

또다시 정경두같은 웃기는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

주체108(2019)년 8월 11일

평 양(끝)

〈 14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16)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당국자의 《광복절경축사》라는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섬나라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었으니 《허무한 경축사》,《정신구호의 라렬》이라는 평가를 받을만도 하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니,북조선의 《도발》 한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는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다.

남조선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노릇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분위기니,평화경제니,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륙무기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씨나리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것까지 시작되고있는 시점에 빠졌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것이 의문스러울뿐이다.

정말 보기도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전자기임폴스탄,다목적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명백한것은 이 모든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사람들이 써준것을 그대로 줄줄 내리읽는 남조선당국자가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인것만은 분명하다.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력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것이 력력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것이 좋을 것이다.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주체108(2019)년 8월 16일
평 양(끝)

〈 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22)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신랭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있는것이 그러한 움직임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라라하게 드러내 보일뿐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싸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스텔스전투기들과 《F-16V》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

우리는 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

주체108(2019)년 8월 22 일

평 양 (끝)

〈 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23)

8월 21일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미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할것이라는 망발을 쫓아냈다.

개고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역시 폼페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외교의 독초이다.

지난 4월 24일에도 폼페오는 미국언론과의 인터뷰라는데서 그 무슨 《경로변경》을 운운하였다가 된매를 맞은바 있다.

세계도처에서 미중양정보국의 가장 사악한 수법들을 외교수단으로 써먹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있는 폼페오가 바른 소리를 할리 만무하지만 조미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있는것은 무심히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흉두깨라고 폼페오가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도,외교수장으로서의 체면도 다 쫓아버리고 우리에게 대한 악설을 쏟아낸 이상 나 역시 그와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 해줄수 있다. 과연 그가 평양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접견을 받고 비핵화를 애

걸하며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외워대던 그 폼페오가 맞는가?

축제비도 낫짜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뇌까리는지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고 이런 사람과 마주앉아 무슨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는지 실망감만 더해줄뿐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본인이 미국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우기 6.12조미공동성명채택이후 미국이 한 일이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 늘만 던지는 휘방군이 분명하다.

일이 될만 하다가도 폼페오만 끼여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군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미국의 현 대외정책보다 앞으로의 보다 큰 《정치적포부》를 실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있는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알아들으리만큼 설명도 하였고 최대의 인내심을 베풀어 시간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 제재로 모든것을 이룰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면 저후자 실컷 꾸게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그 꿈을 깨버리는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

미국이 대결적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해 그들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해줄것이다.

주체 108(2019)년 8월 23일
평 양(끝)

〈 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8.31)

최근 미국상층부에서 우리를 걸고드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련이어 튀어나오고 있다.

27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북조선의 불량행동이 간과할수 없다는것을 인식하였다.》는 비리성적인 발언을 하여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

폼페오가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다.

폼페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있는 조미실무협상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을 뿐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다.

곰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하려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9.09)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협상을 주도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실무협상개최에 준비되어있다고 거듭 공언한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며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였다.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나는 미국측이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가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것이라고 믿고싶다.

만일 미국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리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수도 있다.

주체108(2019)년 9월
평양(끝)

〈 1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09.27)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문제가 화제에 오르고있는데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의지를 밝힌 역사적계기로 되었다.

그러나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전망은 밝지 못하다.

조미사이의 신뢰구축과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하여 우리는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되였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유골을 송환하는 등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리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제재압박을 한층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되보시켰다.

아직도 위싱턴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수 있다는 《선 핵포기》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란무하고있는 실정에서 나는 또 한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대조선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각각과 결단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싶다.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동향을 주시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9월 27일
평 양(끝)

< 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0.01)

조미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림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체108(2019)년 10월 1일
평 양 (끝)

< 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0.06)

조미사이의 합의에 따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측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오면서 협상개최를 지긋게 요청해왔으므로 미국측이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것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가지고 협상에 림하였다.

그러나 정작 협상장소에 나타나 보여준 미국측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한 희망이었다는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과연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립장을 가지고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립장을 고집하였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련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목적만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대표단의 기자회견이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조선측과 훌륭한 토의를 가졌다는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락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량측이 두주일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있는데 판문점수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두주일이라는 시간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세계적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천명한바 있다.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측에 명백히 제시한것만큼 앞으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말까지이다.

주체108(2019)년 10월 6일
평 양(끝)

〈 2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0.24)

나는 최근 트럼프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조미수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깊게 읽어보았다.

내가 확인할수 있는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있다는 것이다.

며칠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를 만나뵈고 조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리었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정가와 미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작성자들이 아직도 랭전식사고와 이데올로기적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있는 것이다.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마련이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싶다.

주체108(2019)년 10월 24일
평 양(끝)

〈 23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0.27)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얼마전 유엔총회 제74차회의 1위원회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결코들면서 미조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것이라느니,북조선이 FFVD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유엔《제재결의》리행을 집요하게 강박하고있으며 추종국가들을 내세워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지어 미전략군사령관지명자라는 놈은 국회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우리 국가를 《불량배국가》로 악의에 차서 혈똥했으며 미군부호전세력들은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훈련까지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제반 상황은 미국이 선포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적대행위들과 잘못된 관행들로 하여 몇번이나 탈선되고 뒤틀릴번 했던 조미관계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는것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조미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수 없으며 조미관계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가 신뢰구축을 위하여 취한 중대조치들을 저들의 《외교적성과물》로 포장하여 선전하고있지만 조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자기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나는 영원한 적도,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주체108(2019) 10월 27일
평 양(끝)

〈 2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06)

최근 미국방성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하였던 남조선군과의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스톡홀름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지 한달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계획을 발표한것은 우리에게 대한 대결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수 없다.

조미관계의 전망을 놓고 온 세계가 우려하고있는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여놓으려 하고있는 미국의 처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사적힘을 문제해결의 만능수단으로 여기는 패권주의국가로서의 저들의 본색을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일뿐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광기는 점점 꺼져가고있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침략적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가까이하고있으며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11월 6일
평 양(끝)

〈 2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송일호 외무성 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07)

머저리는 죽을 때까지 머저리로 남아있고 타고난 불망종은 영원히 개종될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놓고 일본땅에 핵탄이라도 떨어진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일본수상 아베가 바로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천치이고 불망종이다.

아베는 우리가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진행한 후 탄도미싸일발사요, 일본에 대한 위협이요 하고 복닥소동을 피워대고 있다.

지어 제 집안에서도 모자라 아세안수뇌자회의마당에까지 나서서 북의 미싸일발사가 유엔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제넘게 걸고들면서 국제사회가 북비핵화를 위해 펼쳐나서야 한다고 게거품을 토해냈다.

최근 련이어 진행된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외위대단 아베가 이번에는 돌변하여 탄도미싸일이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하고 독설을 퍼붓고있으니 그 변덕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다.

대세가 저들에게 유리할것 같으면 강아지마냥 꼬리를 저으며 다가붙고 형세가 달라질것 같으면 약삭바르게 본태를 드러내며 미친개처럼 물어뜯는 아베는 역시 저속하고 비렬하며 불쌍한 정치속물이다.

방사포와 미싸일도 구분할줄 모르는 주제에 군사대국화의 룡꿈을 꾸는 천하의 무식쟁이, 그 빈곤한 머리로 《도발》과 《폭거》, 《위반》, 《랍치》와 《압박》이라는 조악한 단어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저능아가 바로 아베이다.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저렬하고 무지무모한 패륜아가 수상자리를 꿰차고있으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인들로 부터 《정치소국》, 《가라앉은 섬나라》, 《앞길이 없는 외로운 나라》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아베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마당에 끼우지도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가련한 강아지, 불쌍한 난쟁이취급을 당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주제에 《조건부없는 회담》이니 뭐니 하며 조심스레 평양문을 두드려보는 아베의 물골을 보면 웃지 않을수 없다.

설태깁 허바닥을 함부로 눌러대며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해 악설을 쏟아낸 아베는 영원히 평양문턱을 넘어서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하늘에 평온이 깃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때 섬나라 상공을 날아넘는 비행체의 궤적과 굉음만 들어도 바지에 흥씨를 싸갈기던 난쟁이들이 그때의 그 불안과 공포가 그렇게도 그리워 우리 공화국에 한사코 도전하려든다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고독한 섬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우리 할바를 하게 될 것이다.

자기 몰골과 주제도 파악 못한채 지금처럼 설레발을 치다가는 더 큰 재앙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7일

평 양 (끝)

〈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4)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계획하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피할수없이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으며 그러한 행동을 중단할데 대하여 거듭 경고를 보냈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측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반공화국적대적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 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는 예견되어있는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하여 북조선의 분노를 바탕으로 훈련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시점이 이런 류의 연합훈련실시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통하여 오늘 밤에라도 전쟁을 치를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였다.

미국은 또한 우리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진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쌍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이며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합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애써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할데 대해 공약한대로 미국이 우려하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중단하고 가능한 신뢰적조치들을 다 취하였으며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치적으로 꼽는 성과들이 마련될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미국측은 이에 아무런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미국측으로부터 받은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다.

미국은 새로운 해법으로 《북핵문제》를 다룰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식립장까지 뒤집고 기존의 타당치 않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조미관계개선과 적대관계청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계속 덧쌓고 있다.

올해에만도 3월에는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동맹 19》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달고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올리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전시작전권전환점검훈련》이라는 이름을 달고 강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계기가 있을 때마다 특수작전훈련을 비롯한 은폐된 형식의 위험한 적대적인 군사행동들을 수없이 벌여놓았다.

이렇듯 상대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배신행위로 하여 조미관계의 운명이 파탄위기에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과격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하여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공식립장이다.

우리는 타방이 공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적대적조치만 취하고있는 현시점에서 일방만 그 공약에 계속 얽매여있을 아무런 리유도,명분도 찾지 못하고있으며 이제는 그만큼 여유롭지 않다.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물리적움직임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이를 강력하게 제압하기 위한 응전태세를 취하는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권리이다.

대화에는 대화로,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이다.

강한 인내심으로 참고 넘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이상의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조미관계의 거듭되는 악순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미국은 자중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어쩔수없이 선택하게 될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세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멀지 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고달프게 시달리며 자기들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주체108(2019)년 11월 13일

평 양 (끝)

〈 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4)

최근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나는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조미대화와 관련하여 제기할 문제나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허심하게 협상상대인 나와 직접 연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른바 조미관계와 관련한 구상이라는것을 공중에 띄워놓고있는데 대하여 리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회의심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초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때처럼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열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

우리가 이미 미국측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힌것만큼 이제는 미국측이 그에 대한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이다.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

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미국측이 우리에게 제시할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면 그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

주체108(2019)년 11월 14일

평 양 (끝)

〈 28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4)

나는 13일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조미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직후 나온 미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 하고싶다.

나는 그가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정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것이라고 믿고싶으며 조미대화 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도발이 끝끝내 강 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주체108(2019)년 11월 14일

평 양(끝)

〈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7)

14일 유엔총회 제7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것이 강압채택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과녁으로 명백히 정하고 우리 제도를 강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적대세력 들의 무분별한 정치적도발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이번 《결의》채택놀음은 유엔이라는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되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때마 다 《인권》문제를 조작해내고 이를 침략의 구실로 써먹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워싱턴정계에서 《인권》타령이 울려나오고 제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이 백악관에 뺨뺨이 드나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이번 《결의》채택놀음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사실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치는데 대하여 우리편에는 대화상대인 우리에게 대한 고려로부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에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채택된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조미관계가 절묘한 모퉁이에 놓인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점에 미국이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는 정치적도발을 걸어온데 대하여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특히 조미대화가 물망에 오르고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있는것은 우리와 마주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

더우기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따위와 연결시키고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11월 17일

평 양(끝)

〈 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8)

나는 17일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조미사이에 세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조미관계에서 별로 나아진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것이며 이미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하는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18일

평 양(끝)

〈 31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19)

17일 미국방장관은 남조선과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선의의 조치》를 취하는데 맞게 북조선도 《상응한 성의》를 보이며 협상탁에 조건부없이 복귀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연기를 그 누구에 대한 《배려》나 《양보》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것처럼 생색을 내고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다.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과 제재압박에 것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혼탕스럽고 엇박자를 내는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일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모든것이 명백하게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야심을 버리지 않고 년말년시를 앞둔 지금의 바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시간벌이만을 추구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있는데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바쁠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피를 부리고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미국대통령이 1년도 쯤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하는 값을 받을 것이다.

비핵화협상의 틀거리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문제를 논의할수 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18일
평 양(끝)

〈 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대답 (조선중앙통신, 19.1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조미대화문제와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물음: 얼마전 미국언론들이 12월에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평가해줄수 있는가.

대답: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있다.

물음: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넘두에 둔것인가.

대답: 스웨리예를 두고 한 말이다.

물음: 미국이 직접 연계하지 않고 스웨리예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답: 내가 보기에는 미국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리예를 리용해먹은것 같다. 우리는 스웨리예측이 지난 10월초 조미실무협상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보장해준데 대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조미가 서로의 입장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는 실정에서 스웨리예가 더이상 조미대화문제를 들고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미관계개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미국의 끈질긴 부락을 받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미국은 잠자코 있는데 스웨리예측이 겉가마끓는 격으로 처신한다면 오히려 풍수없는 행동으로 비쳐질수 있다. 지금 조미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연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스웨리예측이 정세판단을 바로하고 앉을자리,설자리를 가려볼것을 권고한다. 미국은 더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끝)

< 33 >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조선중앙통신, 2019.11.21.)

오는 25일부터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세안나라들의 특별수뇌자회의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여왔다.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놓고 학수고대하고있다는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리해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관계문제를 들고 미국으로의 구걸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것을 외세의 손탁에 전적으로 떠넘기고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할수 있고 해결할수 있겠는가.

진정이 담긴 글은 소경도 읽는다고 했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데,날데가 따로 있는 법이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수뇌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행성의 전파를 타고 흘러드는 소란스러운 울림들을 통하여 이남땅의 정서가 심히 깨끗치 못하다는것을 우리도 알만큼은 다 알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현 《정권》을 《친북정권》이니,《좌파정권》이니 하고 입을 모아 헐뜯어대고 그 연장선우에서 《북남합의파기》를 떠들며 우리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

지어 이전 《정권》에서도 감히 들어볼수 없었던 《북정권교체》니,《북붕괴유도》니 하는 망언까지 튀어나오는 정도이다.

마른나무에 물내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뒤집듯이 가법게 바꿀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북과 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싶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근본문제,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북남수뇌들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있다는 뉘새나 피우고 저들이 주도한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북남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북남수뇌분들이 두손을 높이 맞잡은 력사적순간에 비길수 있겠는가.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보다 못하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더우기 북남관계의 현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랑패를 본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북남관계를 론의하자고 하니 의아할따름이다.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소뿔우에 닭알쌈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와 실을 랑정하게 판단하는데 숨을 고를 대신 물우에 그림그릴 생각만 하고있으니 북남관계는 어떻게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의 꽃은 언제 다시 피어나겠는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리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 척박한 정신적토양에 자주적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있게 지켜보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것 같지 않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리유를 끝 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리해해주길 바란다.(끝)

< 34 > 아베의 눈은 콩까풀을 씹웠는가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1.30)

바보는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는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놓고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뉘쳐대며 무지와 우매를 말짱히 드러낸 일본수상 아베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아베는 지난 11월초에 우리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해 아세안수뇌사회의 마당에까지 나서서 탄도미싸일사격이라고 걸고들다가 방사포와 미싸일도 구분할줄 모르는 저 능아,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는 개욕을 얻어먹고 처참하게 망신만 당하고도 여전히 콩과 팥도 분간 못하는 바보놀음을 계속하고있기 때문이다.

11월 28일에도 아베는 우리의 초대형방사포의 연발시험사격이 대만족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자 서둘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하고 무작정 탄도미싸일발사라느니,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니 하며 악청을 돋구어댔다.

큰 개가 짖으면 작은 개도 따라짖는다는 격으로 아베의 뒤를 이어 관방장관,방위상,외상을 비롯한 일본의 아래것들과 언론들도 《탄도미싸일발사》라며 덩달아 짖어대고 있다.

우리가 이번 시험사격에 대해 보도하면서 발사장면사진들을 큼직하게 안받침하여 내보낸데는 아베와 같은 얼간이들이 다시는 착각하지 말고 무엇이 날아갔는가를 두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군복입은 사병들은 물론 《군》자도 모르는 민간인들마저 한눈에 알아볼 사진자료를 멀쩡히 보면서도 방사포와 미싸일을 구분 못하는 아베야말로 세계유일초유의 천치이며 최악의 못난이가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리의 이번 시험사격에 대해 방사포시험사격이라고 정평하고있지만 유독 아베만이 방사포를 미싸일이라고 우겨대면서 큰 변이 난듯이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별스럽게 놀아대며 세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베의 그 물골이 겁에 질린 개라할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주인앞에 잘 보이기 위해 재롱을 부리며 꼬리를 저어대는 강아지라 할지 어쨌든 개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무엇이든 《북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것이라고 타산한것 같은데 역시 정치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눈에는 콩까풀을 씹우고 낫짝에는 철판을 씹운채 홀라닥거리는 아베이니 국제정치의 축에도 끼우지 못하고 주변에서 비실거리는 털빠진 강아지취급을 받으며 조롱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희귀한 천치,눈에도 차지 않는 난쟁이와 괜히 상종하다가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뽀치듯 할것이므로 애당초 영원히 마주서지 않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이 날로 굳어져가는 우리의 생각이다.

더우기 대양건너에서도 다 알아본 방사포를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탄도미싸일이라고 뉘쳐대는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일본해역에 떨어지지도 않은 포탄을 놓고 《일본뿐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니,《북의 위협》이니,《항의》니 하고 행악질을 해대고있으니 더욱 꼴불견이다.

때린 사람도 없는데 얻어맞았다고 생떼를 쓰는 아베는 철부지바보가 분명하다.

조선속담에 곤장을 매고 다니며 매를 청하는 미물이 있다고 하였다.

아베는 진짜탄도미싸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싸일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것을 권고한다. 아베는 정말로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난쟁이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

주체108(2019)년 11월 30일
평 양(끝)

〈 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03)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년말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하여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무슨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여달리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대화탁에 묶어놓고 국 내정치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미국이 공지에 몰릴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대화타령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으며 이제 더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온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년말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주체108(2019)년 12월 3일
평 양 (끝)

〈 36 〉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04)

나는 미국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기간 우리에게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
지금 이 시각도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에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최근 미국군대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을 보이고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처럼 위험한 군사적대치상황속에서 그나마 조미사이의 물리적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있는것이 조미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념두에 두고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하여 매우 실망하게 된다.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수 있다.
한가지만 명백히 말해두지만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것은 미국만이 가지고있는 특권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주체108(2019)년 12월 4일
평 양(끝)

〈 3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05)

며칠전 나토수뇌자회의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무력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더욱더 기분나쁜것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다.

이로하여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인민군은 이에 대하여 즉시 자기의 격한 립장을 밝혔다.

우리 외무성 역시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의 무력사용발언과 비유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바로 2년전 대양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련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주체108(2019)년 12월 5일
평 양(끝)

〈 3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조선중앙통신, 19.12.08)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결과를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또한
 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끝)

〈 39 〉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09)

미국대통령의 부적절하고도 위험성높은 발언과 표현들은 지난 5일 우리의 경고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5일 우리는 미국대통령이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자극적표현을 계속 반복하는가를 앞
 으로 지켜볼것이며 의도적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대한 이상한 발언과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는 문
 제를 다르게 보겠다는 명백한 립장을 밝혔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트럼프는 7일과 8일 기자회견과 자기가 올린 글에서 우리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볼것이라느니,북조선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자
 기는 놀랄것이라느니,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사실상 모든것을 잃게 될것이라느니 하면서 은근
 히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듯 한 발언과 표현들을 타산없이 쏟아냈다.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수 없는 대목이다.
 어쩔수없이 이럴 때 보면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것이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있음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녕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될 시기
 가 다시 올수도 있을것 같다.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지만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표현
 도 하지 않았다.
 물론 자제하는것일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만약 우리더러 보고 들으라고 한 언행이라면 트럼프식허세와 위세가 우리 사람들에
 게는 좀 비정상적이고 비리성적으로 보인다는것과 내뱉는 말마디 하나하나가 다 웃지 않고는
 듣지 못할 소리들이라는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걱정
 또한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것이 많다.
 우리는 더이상 잃을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더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굶힘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다.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년말이 다가오고 있다.
 격돌의 초침을 멈춰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협박성표현들을 골라보는것보다는 더 현명한 처

사일 것이다.

시간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

미국이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미국의 안전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수밖에 없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12월 9일
평 양(끝)

〈 4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부위원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09)

트럼프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매우 궁금해하는것 같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초조해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내놓는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들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것이 좋다.

얼마 안 있어 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판단과 결심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한 누구처럼 상대방을 향해 야유적이며 자극적인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12월 9일
평 양(끝)

〈 4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12)

년말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속에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도발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10일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유엔제재결의를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고 떠벌인데 이어 11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자위적

인 무장현대화조치들을 걸고드는 적대적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주권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들을 걸고든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방증하여준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압박분위기를 고취한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위적군사력을 키우는것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된다면 모든 나라들의 국방력 강화조치들도 다같이 문제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들은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쏘아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상응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는데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더이상 잃을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주체108(2019)년 12월 12일
평 양(끝)

〈 4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조선중앙통신, 19.12.14)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냈다.

최근에 우리가 련이어 이룩하고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것이다. (끝)

〈 43 〉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19.12.14)

최근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시험들을 련이어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방력강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을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축하였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도발과 군사적도발에도 다 대비할수 있게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대화도,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대는 최고령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힘의 실체를 평가하는것은 자유겠으나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예한 대결상황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년말을 편하게 지낼수 있을것이다.

〈 44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무성 차관보의 망발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것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19.12.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인권문제》를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9일 미국무성 민주주의,인권,로동담당 차관보라는자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북조선같은 인권유린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는 망발을 췌쳤다.

유엔총회 제74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강압채택시킨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든것은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의 발로이며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조미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것은 불는 불에 기름을 붓는격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살인과 강간,인종차별,이주민학대와 같은 온갖 인권유린의 오물을 안고있는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끼여들 명분도 자격도 없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인권이자 국권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 제도를 어째보려든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무성 차관보는 입부리를 바로 돌려야 한다.

쥐새끼가 짹짹거리다고 고양이 물러서는 법은 없다.

우리는 인민들의 인권을 법률실천적으로 담보해주는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끝)



세종연구소

편 집: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최은주 연구위원

김덕우 연구원

박영은 연구원

민현종 연구원



본 연구는 (재)세종연구소가 통일부의 용역사업 ('19년도 북한정보분석 데이터기반 개발 사업)에 응찰하여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 및 (재)세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